

# Univera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02 / June 5, 2004

Miss Smile - Nickie Storms / Oasis



“백아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할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볼때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우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을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Douglas McArthur's prayer for his son*

Build me a son, O Lord,  
 who will be strong enough to know when he is weak;  
 and brave enough to face himself when he is afraid;  
 one who will be proud and unbending in honest defeat,  
 and humble and gentle in victory.

Build me a son  
 whose wishes will not take the place of deeds;  
 a son who will know Thee ?  
 and that to know himself is the foundation stone of  
 knowledge.

Lead him, I pray, not in the path of ease and comfort,  
 but under the stress and spur of difficulties and challenge.  
 Here let him learn to stand up in the storm;  
 here let him learn compassion for those who fail.

Build me a son  
 whose heart will be clear, whose goal will be high,  
 a son who will master himself before he seeks to master other  
 men,  
 one who will reach into the future,  
 yet never forget the p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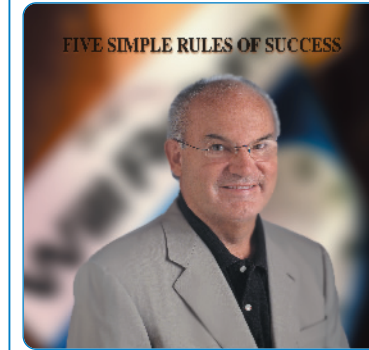
And after all these things are his, add, I pray,  
 enough of a sense of humor,  
 so that he may always be serious,  
 yet never take himself too seriously.  
 Give him humility,  
 so that he may always remember the simplicity of true  
 greatness,  
 the open mind of true wisdom,  
 and the meekness of true strength.

Then I, his father, will dare to whisper, "I have not lived in  
 vain!"

Amen



유니베라웨이(Univera Way) 6월호  
 발행인 이병훈  
 발행처 (주)남양  
 편집기획 (주)남양 경영전략본부  
 편집 오경아  
 편집.디자인 Intercube Design  
 인쇄 정광인쇄(주)



# Univera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 CONTENTS

**ECONET Culture**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 02 > 아름다운 스마일 - 미국 현지법인 'Oasis' 를 꽃 피우는 미스 스마일 'Nickie'
- 04 > 미국과 멕시코의 농장문화 - Aloecorp
- 08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세계적인 기업** ECONET지구촌 리포트

- 10 > 스투어트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기업의 5가지 조건
- 12 > 서울에서 러시아로, Let's ECONET - 2차 러시아 연수
- 16 > 멕시코 알로에 농장 취재파일

**연구하는 기업** People

- 18 > ECONET Vision - ECONET의 탄생동기
- 20 > 이달의 연구사원 - Michale Chtourou UPI 품질관리 담당자 인터뷰
- 22 > CEO칼럼 - 내가 본 남양알로에
- 24 > NABA System의 Vision 2005

**사랑하는 기업**

- 26 > 어버이날 특집 - 엄마, 아빠 사랑해요!
- 28 > 서로 다른 공간의 같은 시간
- 30 > 문화행사 탐방 - 강추! 푸치니 나비부인
- 32 > 순대토크 - 병천에 등지를 뜬지도 어언 2년
- 36 > 동기사랑 - 통하였느냐!
- 38 > 나도야 간다 - (주)남양 산악회 제주도 여행기
- 42 > 회사내 이런소식 알고계셨나요?  
 1) ECONET 통신원 수첩      2) ECONET 전사 소식  
 3) 새 식구 양케이트      4) 동호회 소식  
 5) 경조사 소식      6) 생일자 소식 (6~7월달)

64 > 창간호 뒷얘기

68 > 특별 창간호 이벤트 당첨자 소개 및 퀴즈!

03 > **All Smiles at ECONET**  
 Nickie, June's Miss Smile, brightens up our U.S. subsidiary, "Oasis"

06 > **Farm Culture on the U.S., Mexico Border** - Aloecorp

09 > **ECONET News Network** - News from ECONET subsidiaries

10 > **Five Simple Rules of Success**

12 > **From Seoul to Russia, Let's ECONET** - The 2nd ECONET Russia Training

17 > **A Report from an Aloe Farm in Mexico**  
 Together with trainees at the '04 U.S. subsidiary training

19 > **ECONET Vision** - The origin of ECONET

21 > **Employee of the month**  
 An interview with Michale Chtourou, quality control officer at UPI

23 > **CEO Column** - "Namyang Aloe from My Perspective"

25 > **Vision 2005 at NABA System**

27 > **Parents Day Features** - I Love You, Mom and Dad!

28 > **Different Places at the Same Time**

31 > **A Visit to a Cultural Event**  
 Puccini's "Madame Butterfly" is Strongly Recommended!

34 > **Dinnertime Chat** - "Two Years Since Building a Nest in Byeongcheon"

37 > **A Few Kind Comments Between Colleagues** - Two Peas in a Pod

40 > **On the Road** - The Namyang Alpine Club's Expedition to Jeju Island

42 > **What's Happening Around the Office?**  
 1) Tidbits from ECONET Correspondents      2) ECONET-wide News  
 3) Survey of New Hires      4) Club Activity News  
 5)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6) Happy Birthday!

64 > **Letters from Readers**

69 > **Winners of special prizes in celebration of the first issue and quiz!**



## 미국 현지법인 ‘Oasis’를 꽃피우는 미스 스마일 “Nickie”

미국의 오아시스, 알로콧, 유니젠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면 Nickie Storms를 찾는다. Nickie는 고향인 콜로라도 하늘처럼 끝없는, 록키산맥을 뒤덮은 하얀 눈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한명 한명을 맞아준다. Nickie는 오아시스, 알로콧, 유니젠 지주 회사인 유니베라 인사 담당자다. 7년 전 입사하여 현재는 회사 내에서 경력이 가장 많은 선배 직원 중 한 명이다. 처음에는 접수원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한 승진을 통해 현재 직위까지 올랐다. 오아시스 콜 센터에 걸려 온 최초의 전화를 받은 사람도 바로 Nickie였다.

오아시스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인 Mark Metzler는 이렇게 말한다. “Nickie는 직무 수행능력이 뛰어납니다. 모든 직원을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잠시만 지켜봐도 Nickie가 자신의 일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쉬운 일든 어려운 일든 모두 진지하고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Nickie만의 강점이지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Nickie는 워싱턴주로의 회사 이전에 큰 역할을 맡은 핵심 인물 중 하나다. 신입 사원을 확보하는 막중한 책임이 그녀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Nickie보다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첫 인상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

미국 오아시스 재무팀 손병일 기자

### Nickie의 인터뷰 내용

Univera Way 6월호에서 ECONET 전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뜻 밖의 기회를 얻게 되어 더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본사 인사 책임자로서 제가 많은 분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제 개인에 대해 조금 알려드리고 사정감을 중심으로 우리 회사가 거둔 성공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설명 드리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7년 전, 저의 절친한 친구인 조현정씨가 당시 콜로라도 브룸필드에 곧 설립될 제약회사에 입사 면접을 보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현재 유니젠 파머슈티컬 웨스트의 전신인 유니베라 파이토슈티컬 입사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면접을 하는 동안 저의 에너지가 제대로 분출 되었나 봅니다. 면접 후 접수원으로 처음 일을 하게 되었고, 1년 후 MaxCell 프로젝트에 동참해 Qi Jia 박사가 이끄는 본사 식물자원의 원재료 소싱, 구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가을, 영양 및 건강한 노화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꿀 준비를 마친 오아시스 웰니스 네트워크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오아시스의 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마음이 설레던 시절이었으며, 우리 모두 오아시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콜 센터가 처음 문을 연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험의 일환으로 저도 전화를 받기로 했는데, 우연하게 콜 센터에 걸려 온 첫 번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저도 나름대로 저를 제일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아시스의 모든 지불계정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구매 및 송장 내역을 살펴본다면, 누구든 조직 내에서 각 부서의 역할 및 필요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관련 업무를 보면서 모든 직원과 일대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누구보다 먼저 신입 사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를 기쁘게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모든 직원이 같은 배를 타게 된 것을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1월, 유니베라의 직원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었고, 덕분에 미국 내 모든 조직과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얻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걸어 온 길을 돌아볼 때 이 때만큼 중요한 시기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 동안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임직원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일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가족보다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만, 저에게는 동료가 곧 가족입니다. 우리네 삶이란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 점 칠 수 없는 듯 합니다. 만일, 1997년에 누군가 저에게 앞으로 7년 동안 저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함께 성장해 갈 것이라 말했다면, 당시에는 그 가능성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ECONET 조직 내에서 제 일과 관련된 성장 뿐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까지 이룰 수 있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좋은 기회를 누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절친한 우정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Bill Lee CEO가 설립한 막내동생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오아시스의 탄생도 지켜보았습니다. 알로콧의 끝없는 힘과 유니젠의 거칠 것 없는 추진력을 느꼈습니다. 모든 조직이 하나가 되어 자연이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인류에게 제공한다는 공동 목표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뿐 아니라 ECONET 가족 모두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 할 뿐입니다.

## Nickie, June's Miss Smile, brightens up our U.S. subsidiary, "Oasis"

When the U.S. employees of Oasis, AloeCorp and Unigen need someone to help them, they all see the same person - Nickie Storms. Nickie greets them all with a smile as endless as her native Colorado sky and as white as the snow on the Rocky Mountains. Nickie is the Manager of Human Resources for Univera, the holding company overseeing Oasis, AloeCorp and Unigen. She started with the corporation seven years ago and is one of the longest-standing Colorado employees. She started her career as a receptionist - even took the first call at the Oasis call center -- and worked her way through the ranks until reaching her current level. "The reason I think Nickie is so good at her job is that she treats everyone equally and fairly," said Mark Metzler, Oasis's Manager of Communications. "You can tell that she takes her work to heart and does the easy and hard parts with a sincerity and niceness that sets her apart. She's just a good person." Nickie is one of the key people in the move to Washington because she will be responsible for securing new employees for the companies. And who better? No one could give a better first impression."

By Byung-il Sohn, Financial Analyst of MaxCell BioScience, Inc. d/b a Oasis Wellness Network./USA/Reporter

### Nickie's version : Interviewee

I am extremely surprised and honored to represent the employees of the ECONET for June's edition of "Univera Way." Since I know so much about so many of you as the head of Human Resources here in the U.S., I think it's only fair that you know a little bit about me and how I came to share in the success of Mr. Lee's companies.

Seven years ago a dear friend of mine, Ms. Hyun-Jung Cho, called me with the opportunity to interview for an up-and-coming pharmaceutical company in the Broomfield, Colorado area. I was very excited to interview at Univera Phytoceuticals, now know as Unigen Pharmaceuticals W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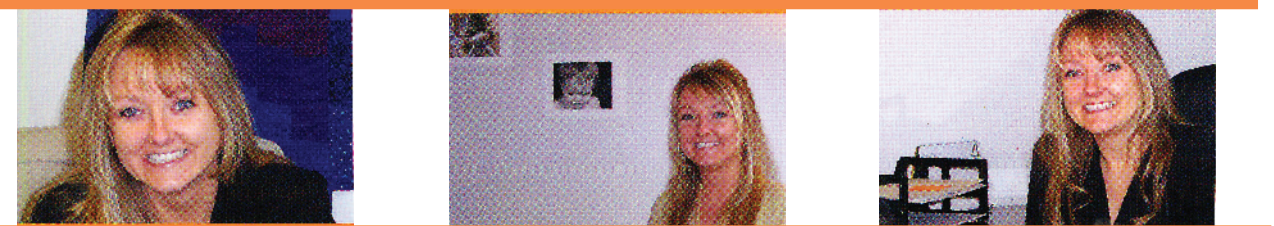
My energy must have shown through during the interview. I happily started my career as a receptionist, and after a year, I began working on the MaxCell project, assisting Dr. Qi Jia in raw material sourcing, purchasing and database management for our plant library.

In the fall of 1998, Oasis Wellness Network was born, ready to change the world's thinking on nutrition and healthy aging. I enthusiastically accepted the opportunity to be a part of Oasis's growth. This was an extremely exciting time, and we put a lot of work into Oasis. I will never forget the day we opened the call center. I was on the phones to be part of a test, but I ended up taking the first call that Oasis received. As Oasis began to grow I found myself stepping in where I was needed most. I began to handle all accounts payable and human resources for Oasis. This gave me the opportunity to see how a business runs. When you see all of the purchases and invoices, you begin to learn every department's function and need within the organization. The human resources aspect allowed me to have the one-on-one relationship with each member of the staff. I was happy to be the first person an employee would meet. I feel it is my responsibility and privilege to ensure every employee feels welcomed and happy to be a part of our team.

In January of 2003, I was given the honor of becoming an employee of Univera, Inc., which allows me to work with all of our U.S. organizations. I have to say this was the highlight of my time to date because over the years I have been blessed with meeting staff from around the world. I enjoy the people I work with more than any other part of my career. I spend more time with my co-workers than my own family, and there isn't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It's really funny how life unfolds. If you would have told me in 1997 that I would spend the next seven years growing along with these incredible companies, I know I wouldn't have believed it was possible.

I have been given wonderful and unique opportunities to grow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within the ECONET. I have found best friends and teachers along the way.

I have witnessed the birth of Mr. Lee's youngest and potentially most vital company, Oasis, during this time; I have felt the everlasting strength of AloeCorp and the relentless drive of Unigen. All of these companies together are striving for a common goal -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I have been blessed to be part of it all, and know this is only the beginning for me and each member of our ECONET family.





## 국경지역의 문화는 멕시코 언어 및 문화의 바탕위에 미국의 법과 질서로 짜여진 공유문화 지역



### Buenos dias!

상쾌한 아침인사로 하루를 열어본다. 근데 어라? 별 반응이 없네.. 그저 무의식적으로 되돌아 오는 Buenos dias.. 그리고 피하는 시선... 뭐지 날 무시하는 듯한 이 느낌??

3년전 알로코프 생산관리부 자리이동 후 멕시코 농장 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내려올 때마다 느꼈던 이 기분... 미국생활 어언 10년(당시), 그리고 미국 직원들과의 직장 생활에도 거뜰하게 적응하며 외국생활에 자부심을 갖고 생활한 난데 이젠 또 무얼까?

같은 직장에서나 혹은 조금만 아는 사이가 되면 주저없이 상대방의 성 (Mr./ Mrs.)을 부르는 대신 그 사람의 이름이나 애칭을 부름으로써 그로 인해 더욱 친밀감을 느끼며 지낸다는 사실을 이제 영어공부의 보편화로 미국문화에 익숙해진 한국에서나, 미국생활을 하는 한국인에게는 맥주 3병에 안주 하나이다.

이병훈 사장님께서도 미국에 오시면 직원들이 꼭 친구처럼 "Bill" 이라 호칭하면서 반가이 인사하고 환영한다. 오히려 직원들간의 대화시 내가 "Mr. Lee" 혹은 "Chairman Lee" 라고 이병훈 사장님을 호칭을 하는데 그건 말 가운데라도 상사분 혹은 내가 존경하는 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는 우리만의 문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바로 이런 비슷한 문화가 멕시코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데, 그들은 미국에서 자신들의 업무실태를 조사하러 내려온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의 높은 사람 (?) 에 대한 최대의 예의가 감히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그저 간단히 아침인사만 주고 받는 정도이며 이름과 성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Job Title로 호칭을 하던가 아니면 이름 앞에 Senor (Sr.)를 붙여 호칭을 한다는 사실들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직장에서도 김대리/ 이과장/ 박부장/ 정이사 등등 그 사람의 직급으로 불러 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나 할까. 미국식에 익숙한 나로서는 그들을 오해할 수 밖에... 미안합니다...

하지만 문화란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 열등하다하는 상호 비교우위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직급과 호칭에 관계없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상대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 난? 이 지면을 통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Sr. (Mr.) Kim으로 불러 지고 싶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큼은 Mr.로 호칭을 해야겠다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호칭을 듣고싶다. 난 지금 딱 두분을 그렇게 호칭한다. 이병훈 사장님과 알로코프 부사장인 Mr. Pilgrim. 이 두분께서 하시는 모습을 배우면 곧 나도 그렇게 불려지지 않을까 하는 당찬(?) 계획을 세운지 어언 3년, 아무런 진전이 없다.. 후후후...

그들에게 더 가까게 다가서려고 여러시도를 많이 해본다. 섭씨 40도가 넘는 여름에 점심 먹고 축구하기.(반드시 청바지 입고..)/ 남양 방문단 모시고 점심식사 직원들과 신나게 흔들기 (?)/ 건물 보수공사시 페인트 칠 누가 누가 잘하나 시합하기/ 진흙탕에 빠진 자동차 트랙터로 구해 내기... 순수한 그들의 마음과 함께 숨쉬고자 하는 게 나의 작은 철학이다. 진전이 터디다 하더라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또 하나 발견한 생소한 점은 그들은 계속되는 Overtime(초과 근무)에 그리 반가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초과 근무에 따른 초과 수당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지불해 줘도 두석달 이상 지속되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인다. 처음에는 "야, 돈을 준다고 해도 일을 안해?" 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했는데 사실을 보면 이렇다. 우선 그들의 낙천적인 생활습관이다. 다음은 그들의 부족한 영양실태이다. 이 모두가 습기 많고 무더운 날씨와 무관하지 않다. 영양을 실하게 하는 음식 역시 많지가 않다. 한국에도 이제 제법 알려진 타코와 콩으로 만든 음식이 대부분. 한마디로 무더운 날씨와 초과 업무로 인해 육체적으로 기진맥진 해지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다. 누구를 탓 할 것인가... 오해했던 그 순간에 대해 또 한번 미안합니다.

잠시 한숨 돌리는 차원에서 미국 알로코프에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대한 비밀 정보를 입수 해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County (카운티: 한국의 '군'에 해당)별 인구: 알로코프는 Hidalgo(히달고)군에 소속되어 있음.

Hidalgo(히달고): 570,000/ Cameron(카메론): 335,000/ Starr(스타): 54,000 Willacy(윌라시): 20,000

▶국경통과 건수 한달에 3,500,000건

There are approximately 3,500,000 border crossings per month

▶미국내 도시중 시장성장 속도 4위/ 라틴계 시장성장 속도 10위

Hidalgo-Cameron County is the 4th fastest market in the U.S. and is the 10th ranked in Hispanic market.

▶인구 구성비

87% Hispanic (가족구성원이 라틴 아메리카 계통)

52% Female(여성)/ 48% Male (남성)



위의 자료에서 벌써 짐작할 수 있듯이 이곳의 도시성장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빠른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끊임없는 인구유입이다. 그 인구라 함은 당연히 멕시코- 라틴계의 이민 (불법포함)이라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이곳은 오히려 백인이 소수인종이며 상대적으로 동양계가 대우를 받는 어부지리(?)까지 생겨난 지역이다. (인종차별적 언급이 아님을 밝혀둠) 언어 역시 이중언어가 사용되는데 영어구사를 못하는 주민들이 히스페닉(Hispanic)가구 중의 50%이상이라고 귀동냥으로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고 언어가 스페인어고 이민자가 많다고 해서 앞서 이야기한 멕시코 문화가 이곳에서도 적용되지 않겠냐는 상상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

우선 미국내 국경지대에서 쓰이는 스페인어와 멕시코 내륙지역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 국경지대의 스페인어는 뭐라 할까, 영어와 스페인어의 방언 및 유행어 게다가 속어까지 합쳐진 짬뽕 스페인어인데 예를 들자면 멕시코에서 Que honda라고 말하면 모두가 What's up? (어떻게 지내니?/ 뭐 일 있어?)라고 이해하고 대답을 하지만 국경지대에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How deep?(얼마나 깊으니?)로 이해한다. 또 멕시코에서 Dame la mano라고 말하면 Help someone (누구를 도와줘)라고 이해하는 반면 국경지대에서는 Give me a hand. (나를 좀 도와줘)라고 엉뚱하게 물어본 꼴이 된다.

둘째, 미국이란 나라의 구조가 한번 정해진 규칙과 제도안에서 지속적 실행을 실천하게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잘 짜여진 조직이라는 점을 봤을때 미국생활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미국의 법과 문화를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게 된다. 즉, 그대로 실천하면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가 온다는 간단한 진리에 라틴계 역시 미국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국경지역의 문화는 멕시코 언어 및 문화의 바탕위에 미국의 법과 질서로 짜여진 공유문화 지역인 셈이다. 나름대로의 언어구사로 라틴문화를 이어오면서 한편으론 미국문화에 흡수, 동화되어 미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합리적인 생활인 셈이다.

참고로 현재 알로코프 텍사스의 생산부 및 농장에는 모두 3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백인계는 부사장을 비롯하여 단 3명, 동양계인 필자를 제외한 32명이 히스페닉(Hispanic)계인데 모두가 한결같이 착하고 성실하다. 우직하리 만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공통적인 정신은 바로 회사에 대한 애정이다.

Aloecorp, USA와 Aloecorp de Mexico의 관계는 멕시코 알로코프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을 미국 알로코프에 제공을 하고 그에 관련되는 비용은 미국 알로코프에서 지원하는 Maquiladora(멕시코내의 외국투자기업)라는 특수한 법적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 멕시코의 농장에서 알로에를 수확한 후 우리만의 독특한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한 1차 제품인 농축액은 그 후 텍사스 공장으로 보내져 (6시간 육로운송) 고객업체의 주문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가 되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사실에 멕시코/ 텍사스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이러한 조건이 그들로 하여금 알로코프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게 하는 큰 요소이다.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라는 우리의 기업철학은 멕시코와 텍사스에서는 이미 자연스럽게 시작 된 지 오래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꿈을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자신한다. 관리자로서 더욱 그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 나의 숙제로 아직 남아있다.

Gracias, los amo a todos !!! Thank you, I love you all !!!

미국 알로코프 생산관리부 김수겸 (Joseph Kim) 기자





The culture on the border is a meshed culture where American law and order is practiced, but the Mexican language and culture predominates.

By Joseph Kim,  
Operation Management Team Leader/ Chief of Staff, Aloecorp, USA./ Reporter

## Buenos dias!

### Buenos dias!

I start the day with a cheery good morning, but hardly get a response. How come? All I get from people is an involuntary “Buenos días” and no eye contact. I almost feel as if I’m being ignored here.

I felt the same way whenever I came here to survey the status of farm operations after being transferred to the Aloecorp Operation Management Team three years ago. By that time, I had been living in the U.S. for 10 years, and had no problem getting along well with my American co-workers. I was even somewhat proud of adapting well to life in a foreign country. Then, what was wrong?

It’s common sense in Korea, where American culture is well-known thanks to all those English lessons, and to Koreans living in the U.S. that when you work in the same company as or get acquainted with somebody, you freely call people by their first name instead of addressing them with Mr. or Mrs. This makes people feel friendlier toward each other.

When CEO Byeong-hoon Lee comes to the U.S., employees call him “Bill,” like a close friend and extend him a warm welcome. However, when I speak to employees, I refer to the CEO as “Mr. Lee” or “Chairman Lee.” I think it’s because of Korean culture, which values showing politeness and courtesy to a boss or a person we respect, even verbally. It wasn’t long before I realized that Mexican culture was similar in this way. The greatest courtesy they could show to an unknown big shot coming from the U.S. to inspect their work was to avoid eye contact and only briefly exchange morning greetings. Even if they knew the person’s name, they would address the person by his or her job title, or Señor (Sr.). This is within the same context as Korean workplaces, where people are addressed by their job titles such as Assistant Manager Kim, Manager Lee, Senior Manager Park and Director Cheong. Being more familiar with things American, I misunderstood them. I extend my sincere apologies. However, one cannot compare cultures in the sense of one being better than the other. Likewise, regardless of hierarchy in job titles, I believe what’s more important is interacting with others with respect. Then, what do I want? To be honest, I want to be called Señor (Mr.) Kim. But don’t get me wrong; I don’t want to be addressed this way because of culture. I hope that people will want to address me that way out of respect for me. I address two people this way. They are the CEO, Mr. Lee, and Mr. Pilgrim, the vice president of Aloecorp. Three years ago, I came up with an ambitious plan to be addressed like them someday, for they are my role models. No progress so far, though...

I tried several different things to become more friendly with them: playing soccer after lunch in summer temperatures above 40°C (in jeans), rock’n’rolling at lunchtime with staff when a Namyang delegation was in town, lending a hand to paint during building renovations, and towing a car stuck in mud with a tractor. My humble wish is to breathe together with their pure heart. Despite this, the fact is progress is slow... they are still too distant.

Another odd thing I noticed was how they didn’t welcome overtime work. Despite our paying them overtime allowances, as required by law, they resisted working overtime if it continued for two or three months. At first, I thought they were hopeless to not work even when they got paid. However, the truth is that they are optimistic and undernourished. It’s all related to the hot, humid weather. Not many foods are nutritious. Their main foods are the taco, which is fairly well known in Korea nowadays, and dishes made from beans. In short, once they’re physically exhausted from the sultry weather and working overtime, they don’t care about money; they just want to get some rest. And who can blame them? I am once again sorry for misunderstanding them.

For the sake of taking a brief break, I’d like to share some information I obtained about the U.S.-Mexican border area where Aloecorp USA is located. They are as follows:

- ▶ County populations: Aloecorp is located in Hidalgo county.  
Hidalgo: 570,000, Cameron: 335,000, Starr: 54,000, Willacy: 20,000

- ▶ There are approximately 3.5 million border crossings per month
- ▶ The Hidalgo-Cameron County area is the 4<sup>th</sup> fastest-growing market in the U.S. and the nation’s 10<sup>th</sup> largest Hispanic market.
- ▶ Population breakdown  
87% Hispanic  
52% Female/ 48% Male

As evidenced by the aforementioned data, the region is growing very fast. One of the reasons is the endless population flowing in. Indeed, growth is driven by Hispanic immigration, both legal and illegal. Caucasians are a minority here and Asians sometimes enjoy the windfall. (this statement in no way implies racial discrimination). As for languages, several are used. I once heard that over 50% of Hispanic families in this area couldn’t speak English. However, it is presumptuous to think that the Mexican culture described above is applicable just because Spanish is spoken and many immigrants are from Mex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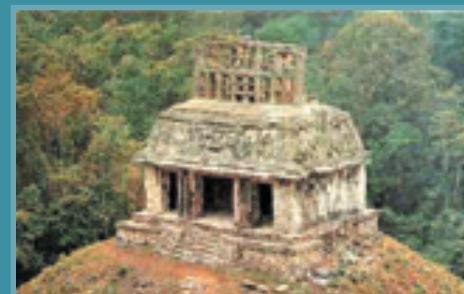
First of all,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Spanish used in the U.S. border area and that spoken in the interior of Mexico. Spanish in the border regions is a mixture of English, Spanish slang and dialects. For instance, when you ask “Que honda?” in interior Mexico, everybody understands it to mean “What’s up?” However, along the border, it is completely different and means “How deep?” In addition, while “Dame la mano” means “Help someone” in Mexico, it is understood as “Give me a hand” along the border. Second, in light of how the U.S. is structured around established rules and regulations and one is rewarded for following those rules, once you set foot in the U.S. you cannot live without ignoring American laws and culture. In other words, Hispanics also quickly absorb American culture, learning that opportunity comes when you act accordingly. Therefore, the culture on the border is a meshed culture where American law and order is practiced, but the Mexican language and culture predominates. While they continue Latin culture by using its language, they absorb and adapt to American culture and enjoy a decent life by exercising their rights and fulfilling their duties as members of the American citizenry.

For your reference, 36 people now work in the Production Division and plantation belonging to Aloecorp’s Texas facilities. Of this, 32 are Hispanics; three, including the vice president, are Caucasian, and there’s one Asian, which is myself. Everyone is sincere, hardworking and incredibly honest.

The common spirit shared by us is a love for this company.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loecorp USA and Aloecorp de Mexico, all of the produce of Aloecorp de Mexico is provided to Aloecorp USA and all relevant costs are paid by Aloecorp USA through a special legal arrangement known as maquiladoras, or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Mexico. After harvesting on the Mexican plantation, the aloe concentrate, the chief product of our unique processing, is transported six hours by truck to our facilities in Texas where it’s turned into a variety of products requested by our customers. The staffs at both Mexico and Texas operations are quite proud of our being a multinational company whose products are distributed worldwide. This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ir considering Aloecorp as a lifelong employer. Our corporate philosophy,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has long been practiced in Mexico and Texas. As we speak, I am confident that folks are working hard to make their dreams come true.

My unfinished homework is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as managers and to reward them for their devotion.



*Gracias, los amo a todos!!!  
Thank you, I love you all!!!*



# ECONET News Network

##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Oasis



Oasis Wellness Network이 새로운 핵심 전략상품 AgelessXtra의 출시에 맞춰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 행사에 1,200명 이상의 열성 회원이 참여했다. 이 행사의 핵심 순서에서 Oasis의 이사회 의장인 Stuart Ochiltree 대표와 Stephen Cerniske 사장이 AgelessXtra의 사업기회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며 참석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자 행사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병훈 회장과 딸 영경양이 비디오로 전달한 메시지도 참석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신제품 AgelessXtra의 출시로 이어진 모멘텀을 통해 상위 랭크로 승급한 회원도 많았다. Oasis의 최상위 랭크인 블루 다이아몬드 회원이 1명 늘었고, 2위 랭크인 다이아몬드 회원도 5명이나 늘었다. 행사의 기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러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번 행사에는 단일 행사로는 이전의 최대 규모 보다 2배 이상 많은 회원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는 Oasis ‘사상 최고의 행사’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AgelessXtra에 대한 샘플링 행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회원의 비즈니스 구축에 도움이 되는 새 잡지, 사업 프리젠테이션, CD, 브로셔, 최고 수준의 웹 시스템 등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자매사인 Unigen이 공급하는 ECONET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AgelessXtra는 출시 이후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 Headline: Oasis Going From “Good to Great”

Oasis Wellness Network’s “Good to Great” event April 2-4 drew more than 1,200 enthusiastic Associat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y’s new breakthrough product, AgelessXtra. Excitement ran high as Oasis CEO and Chairman of the Board Stuart Ochiltree and President Stephen Cerniske highlighted the event with motivational talks about the business opportunity and science behind AgelessXtra. Chairman Bill Lee and his daughter, Grace, also provided a video that was well received. Momentum leading to the launch of the product helped to motivate Associates to achieve new ranks. Oasis added one new Blue Diamond Associate, the company’s highest Associate rank, and five new Diamond Associates, the second highest rank. Many corporate staff helped to plan and execute the event, which drew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attendees than any other single event. The event was described as Oasis’s “best ever.” In addition to sampling AgelessXtra, those who attended the Event learned about a new magazine, business presentation, CD, brochures and premier web system that will help them build their businesses. AgelessXtra includes ECONET compounds supplied by sister company, Unigen, and has been selling at a record pace since its introduction.



## 창립기념일-창립28주년 대동한마당



창립28주년 축하, ECONET가족 친목 및 화합을 도모하는 한마음 대회를 4/3(토) 청강대에서 개최하였다. 한마음 대회를 통해 이병훈 사장은 ECONET 가족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대동놀이로 전체가 하나되는 놀이한마당 자리였다.

## The Daedong Grand Fete celebrates 28 years in business

The Grand Fete to promote friendship and harmony in the ECONET family and celebrate the company’s 28th anniversary was held at the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in E-chon, Gyeonggi province on April 3. At the affair, CEO Byeong-hoon Lee recognized the entire ECONET family for their dedicated service. It was an occasion to enhance solidarity among organization members through a group-wide Daedong game.



## 제2차 ECONET SVC (Shared Value Course) 대리 & 과장 연수



지난 2월 ECONET 1차 SVC(Shared Value Course)에 이어 4/12~4/14에 대리&과장을 대상으로 한 ECONET(Shared Value Course) 2차 연수가 있었다. 2차 교육 프로그램은 문제해결기법-PSP와(Problem Solving Process), 다양한 회의기법등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로 진행되었다. 초급간부 대상연수에 걸맞게 교육의 열성과 반응은 대단히 높았다. \* SVC 연수는 6월 러시아 농장 연수와 연계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 2nd ECONET Shared Value Course training is a resounding success

The 2nd round of SVC (Shared Value Course) training, which targeted assistant managers and managers, took place from April 12 to 14. This round focused on practical techniques that can be utilized by working-level staff, such as the problem-solving technique known as PSP (Problem Solving Process) and various techniques for running meetings. The response by participants to the training for newly appointed managers was overwhelmingly enthusiastic and positive, which matched the reputation that SVC had developed following the 1st round. \* Note: The June SVC training is likely to take place as a part of the Russia Farm Training.



## SupplySide East Trade Show



유피아이(Unigen-West)는 올해도 미국 볼티모어에서 5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씨플라이씨드 동부 박람회 및 회의에 참가하여 성공리 마쳤다. 박람회에 참가한 리진 마일스, 데이프 멘롭, 트레버 홀, 로드니 스톰, 이요한에 의하면 이번 박람회는 대단한 성황이었다고 하며, 매우 많은 미래고객들과 유명 회사들로부터 우리 회사 제품, 특히 새로 출시된 폴리코사놀에 대한 지대한 주목을 받았다. 2개의 부스를 방문하였던 전 세계에서 온 현재 및 미래 고객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우리 제품에 매우 인상 깊은 반응을 보였다. 유피 아이는 미국 부시 대통령 및 체니 부통령의 전 보좌관이었던 메리 메틸린 및 그녀의 남편이며, 정치 자문 전문가로서 씨엔엔의 크로스 화이어 (Crossfire)의 공동 진행자인 제임스 카빌의 기조연설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우리 회사를 업계에 소개하며 최고의 천연물 연구회사로 부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유니젠에서 우성식 연구소장, 김동선, 성선영, 도선길 박사와 민병국 과장이 함께 참가하여 유피아이의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천연물 과학, 업계의 동향과 제조에 필요한 원료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첨단 과학과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세계의 수준을 경험하며 어깨를 겨루었다.

## SupplySide East Trade Show

The SupplySide East Trade Show and Conference was a big success this year! It was held at the Baltimore Convention Center on May 6th and 7th. The feedback from our representatives, Regan Miles, Dave Menlove, Trevor Hall, Rodney Storms and Yohan Lee, was extremely positive. Many contacts for potential clients were made at the show and several prominent companies are very interested in our products, especially our new Policosonol entry. Our double-sized booth was visited by current and future customers from around the world who were impressed with our science-supported products. Unigen West sponsored the keynote speakers who were Mary Matalin, former assistant to President George Bush and counselor to Vice President Dick Cheney and her husband, James Carville, political consultant and co-host of CNN’s Crossfire. This was a good opportunity to present our company in the industry, and demonstrated us as one of the best natural product research providers. Unigen East also participated at the show. Dr. Sung-Sick Woo, Dong-Seon Kim, Seon-Gil Do, Sun-Young Sung and Mr. Byeong-Gug Min supplied support to Unigen West sales force, and gathered information regarding science of natural products, industry trends and resource for manufacturing. They also attended educational seminars on cutting edge science and new technology.



## Science Summit



유피아이(Unigen West)는 우성식 연구소장, 김동선, 성선영, 도선길 박사와 민병국 과장을 초청하여 제4회 상반기 과학수석회의를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본사가 있는 미국 브룸필드에서 개최하였다. 양사 과학자들의 발표를 통하여 각각 최근 진행하고 있는 개발과제를 서로 공유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이 발명된 대나무, 인삼, 홀몬대체소재, 피부미백제 등을 포함한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주력 상품인 유니베스틴을 능가하는 차세대 상품과 미래 성공 가능한 제품을 발굴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었다. 또한 양사가 보유한 연구 및 임상실험 결과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난제들이 토론을 통하여 성공리 해결되었다. 제조 과정 및 품질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서로의 노력에 대하여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호간의 토의 및 협력은 현재는 물론 향후 연구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디로 참가자 모두가 신바람으로 흥겨운 과학향연의 마당이었다.

## Science Summit

Unigen West hosted Dr. Sung-Sick Woo, Dong-Seon Kim, Sun-Young Sung, Seon-Gil Do and Mr. Byeong-Gug Min for our fourth semi-annual Science Summit from May 10th through May 12th, 2004 at Broomfield. Presentations by both companies’ scientists were very informative and a great opportunity to share recent and ongoing discoveries between the two companies. The topics discussed included new materials in development such as bamboo, ginseng, HRT, skin whiteners and more. With so many possibilities for the next Uninvestin, the real challenge is deciding which of the products in the pipeline to launch first as each compound has tremendous potential. Scientific and clinical trial data from both companies was shared with dozens of questions being raised. Also a round-table discussion on manufacturing process and quality control enabled both labs to appreciate the efforts of each other. Mutual discussion and cooperation enhanced our science to benefit current and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ummary, I believe all parties agree that they enjoyed a scientific feast.





# FIVE SIMPLE RULES OF SUCCESS



## 스튜어트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기업의 5가지 조건

Stuart Ochiltree / Oasis Wellness Network 대표 겸 이사회 의장  
By Stuart Ochiltree, Chairman of the Board and CEO, Oasis Wellness Network

저는 직원 18,000명에 4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기업인 Avon Products에서 아주 작은 비영리 학교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직을 이끌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조직을 이끌면서 쌓은 경험과 그 결과를 통해 기업의 성공법칙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Oasis에서 이 성공법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 1. 리더십

리더십이 기업의 궁극적인 성패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에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lead a number of organizations from the \$4.0 Billion Avon Products with 18,000 employees, down to a very small non profit school Board of Directors. My experience and results have led me to make some simple observations about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success for any enterprise, and at Oasis we are seeking to apply these same factors.

### 1. LEADERSHIP

It is difficult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to the outcome of ultimate success or failure in an enterprise. Any

는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팀 구성원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조직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은 구성원의 의견 개진을 유도하여 의견 일치를 도모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성패를 가름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리더의 몫입니다.

### 2. 능력

리더는 필요한 경우 선택을 하고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선택과 변화를 수행하고 진로 수정이 필요할 때 대안을 제안하는 일은 팀 구성원이 하는 일입니다. 리더십은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 방향으로 실제로 나아가는 것은 팀이기 때문에, 결국 성공은 팀 구성원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구성원을 조직 내에 보유해야 합니다.

### 3. 공통의 가치

모든 조직에는 저마다 정신이 있으며, 리더와 팀 구성원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매일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직의 기본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공유되지 않는다면, 조직의 정신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조직 자체를 해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4. 포커스

모든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핵심자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란 시간과 돈과 사람을 말합니다.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목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양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최상층에서 최하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이 조직의 핵심목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일 조직 구성원 저마다의 선택을 함에 있어 조직의 핵심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5. 진행상황 모니터링

사업과 인생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업이나 사람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계획한대로 되는 일은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내재되어 있다는 진리를 설파하는 말입니다. 핵심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궤도에서 벗어나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올바른 리더를 선택하고, 능력있는 구성원을 뽑고,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성공의 5가지 법칙입니다. 물론, 이 5가지 성공법칙을 실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은 실패할 확률이 크게 높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objective which involves a team of people for its accomplishment will require choices and priorities. Leadership in attaining goals demands setting the course, deciding who will be a part of the team, balancing priorities, and exemplifying the values of the organization. While leadership can and should encourage input and hopefully consensus, ultimately only the leader can make the hard choices which determine success.

### 2. TALENT

The leader must make the choice of selection and response to change if needed,

However it is the team that executes direction, or makes recommendations when corrections are required. Leadership sets direction, but the team fulfills direction and it is in the talent of the team where success is ultimately achieved. The organization must have the talent in the organization to fulfill it's goals.

### 3. SHARED VALUES

Every organization has a soul, and it is critical that the leadership and the team share common values. Decisions must be made each day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by every member of the organization, and if the underlying values of the organization are not known and shared, it is likely that decisions can be made which can damage the soul of the organization, and ultimately the organization itself.

### 4. FOCUS

Any enterprise has a limited amount of critical assets, and these assets are time, money and people. It is rare that organizations fail because they pursue a bad idea; it is more likely that they fail because they pursue too many good ideas, without appreciating the resource requirements to execute them well. To be successful, it is important that an organization know from top to bottom what the critical goals are, so that they can make their own individual choices each day which support those key goals.

### 5. MONITORING PROGRESS

Business and life do not travel in a straight line, and each day changes occur which must be responded to. There is a saying that nothing succeeds as planned, which is another way of recognizing the truth of change as inherent in everything we do. It is very easy to get off course, and forget the critical goals one started out to achieve, therefore regular monitoring of progress, and making course corrections if necessary is critical to the ultimate goal.

In summary; select the right leadership, get the best talent on the team, ensure that you share the same values, establish the priorities and regularly monitor progress as you go. These five principles may not guarantee success, however the failure to apply them will very likely lead to the failure of the enterprise.







서울에서 러시아로

Let's ECONET

RUSSIA

(주)남양 경영전략본부장 윤경수  
K.S. Yoon,  
Head of strategy & planning office, Namyang Company

## From Seoul to Russia - Let's ECONET

### 제 2차 ECONET 러시아 연수

제2차 ECONET 러시아 연수를 6월22일부터 29일까지 다녀올 예정이다. 참여인원은 약 40여명이며 남양, 남양알로에, 유니젠 3사에서 선발한 우수팀원들과 작년 러시아연수에 참여치 못한 팀장이상 임원들 그리고 성한용 유니베라 사장, 한상준 중국현지법인 사장이 참여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연수이기 때문에 진행팀인 본인과 김석원과장은 일정을 좀더 알차게 짜기 위하여 고민 중이다. 참여하는 연수생들도 작년의 고생담을 들어 각오가 대단한 것으로 듣고 있다. 올해 러시아 연수의 목적은 ECONET의 철학인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Nature's Best)'를 연수생들이 러시아 본삼(Bon Sam)농장을 체험함으로써 피부로 익히고, 기업철학을 현실화하기 위한 ECONET Vision과 Mission을 이해하고 공유함이 첫째이다. 기업의 구성원들이 기업의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과제

### The 2nd ECONET Russia Training

A total of 40 staff members are participating in the 2nd ECONET Russia Training program scheduled for June 22 to 29. Included are high-performing team members from Namyang, Namyang Aloe and Unigen, team leaders or higher management who were not able to join the last year's team, Univera CEO H.Y. Sung and China Office CEO Jeff Han. Since this is the second Russia Training session, Manager Greg Kim and I, who organized the program, are trying harder to enrich the agenda. The trainees are also bracing themselves, for they're aware of the rigors that last year's trainees went through. The first objective of this year's Russia Training is for trainees to fully comprehend ECONET's corporate philosophy, "Nature's Best," by experiencing the Bon Sam farm in Russia, and to understand and share ECONET's vision and mission to realize that philosophy. When organization members share in the

를 자기화할 때, 비로소 기업의 철학은 현실화한다. '天然物(Natural Product) 시장에서 영원한 세계 1위 기업'이 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Vision은 1단계 집중전략, 2단계 확대전략, 3단계 선두전략의 9개년의 Roadmap에 따라 착실히 나아갈 것이며, 요번 연수에서 이러한 전략이 좀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참여자 각자에게 각인될 것으로 믿는다. 러시아 본삼 농장이 위치한 연해주 크라스키노(Kraskino)시는 우리의 역사와도 밀접한 장소이다. 크라스키노시는 멀게는 AD 698년에서 926년에 만주 인근과 러시아 연해주의 광대한 지역에 고구려민족의 후손으로 국가를 이루었던 渤海國의 근거지로서 다섯개의 首都중 東京이 위치한 자리이다. 지금도 농장 주변에서는 옛 渤海國의 유적인 절터, 기와 가마터, 청동인물상, 맷돌 등이 심심치 않게 발굴되고 있다. 이 지역은 가깝게는 구한말 한인 의병운동의 근거지이자 안중근義士가 斷指同盟을 맺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항거한 곳이기도 하다. 요번 연수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조상의 얼과 투쟁정신이 깃든 농장에서 대자연의 품에 안겨 浩然之氣를 키우고 기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동하고 경쟁하는 자기수련과 원칙중심의 기업문화를 더욱 높이는 데 있다. 남양알로에는 27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 연구하는 기업, 사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왔다. 기업의 역사에는 굴곡과 부침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속을 헤쳐온 기업 속에는 우리들만의 문화가 남는다. 남양알로에가 가꾸고 키워온 문화를 구체적인 언어로 만들기 위해 지난 1차 ECONET 러시아 연수에서 시도하고 발표도 했지만, 요번 2차 연수에서는 더욱 본질에 근접한 우리기업의 문화code를 만들어 볼 예정이다. 기업의 저변에 흐르는 문화code는 기업의 철학을 善循環 모델로 실현시키는 강력한 윤희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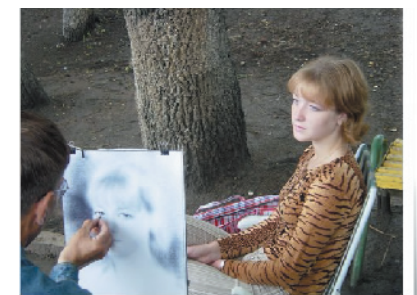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7월이면 雨期로 들어선다. 지난 1차 ECONET 러시아 연수는 7월14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이었다. 연수기간이 雨期였기 때문에 연수기간 중 5일은 비가 왔다. 심지어 러시아에서 서울로의 출발예정일에는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 항구에 배가 정박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덕분에 블라디보스톡을 보고자 한 연수생들의 소원을 풀 수 있었다. 연수기간중의 잦은 비 때문에 연수참가자들은 많은 토론을 나눌 수 있었다. 특히 ECONET 기업이 내부 구성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신을 1차 ECONET 러시아 연수 중에 사장님이 밝히시기도 했다.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가 그 것이다.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는 기업의 구성원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공유

corporate Strategic objectives and fully understand the initiatives for achieving them, the corporate philosophy can be realized. We intend to achieve our corporate vision, "Becoming the eternal leader in the world's natural product market," step by step according to a 9-year roadmap. It will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Concentration Strategy, Business Expansion Strategy and Leading Industry Strategy. I believe that through this training, more specific concepts of these strategies will be engraved in the minds of trainees.

Kraskino, where Bon Sam farm is located, is a city closely associated with Korean history. By tracing far back in history, you can learn how this area was the source of the Balhae Dynasty, which was founded by descendants of the Goguryeo people across an area of present-day Manchuria and the vast Russian maritime provinces from A.D. 698 to 926. This is where Donggyeong, one of Balhae's five capital cities, was located. Even today, Balhae remains such as temple sites, a tile-kiln site, bronze statues and millstones are being excavated around the farm from time to time. In the context of more recent history, this locale was the headquarters of Korean royal troops at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and where Jung-geun An, a martyr, formed the "Finger-cutting Alliance" to resist Japanese invasion.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training is to revitalize our energy by being embraced by nature's grandeur, where the mind and combative spirit of our ancestors are ingrained, and to enhance a corporate culture driven by principles and self-discipline that encourages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its members. Over its 27-year history, Namyang Aloe has evolved into a company of global renown, a company devoted to research and a company that values love. Certainly, a company undergoes ups and downs in its history. But only those companies that plow their way forward end up with a unique culture. Some efforts were made during last year's 1st ECONET Russia Training to put into words the culture fostered and cultivated by Namyang Aloe. At this training session, we plan to define a code for our corporate culture that more closely resembles the essence of our spirit. The code of culture that underlies this company will serve as a powerful engine to translate our corporate philosophy into a cycle of honorable deeds.

In Russia's maritime provinces, the rainy season begins in July. The first ECONET training in Russia took place from July 14 to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人材와 技術, 資本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역량'이 내부에 있어야 한다.  
For a company to engage in business, it needs talent, technology and capital. For a company to realize its "dream," it needs to have the required "capability" internally.

하고 그 가치를 자기회합에 동의함으로써, 그 철학의 실현에 더욱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고, 결국은 기업의 Vision을 성취하여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뜻이다. 제2차 ECONET 러시아 연수의 세 번째 목적은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를 이루기 위해 각 자의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짐 콜린스(Jim Collins)의 저서 'Good to Great'에는 人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짐 콜린스는 이 책에서 'Good to Great' company가 되기 위해서는 '규율(discipline)의 문화'와 '창업가 정신'이 동시에 만족되고 이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규율(discipline)의 문화'와 '창업가 정신'은 'Framework 내의 자유와 책임',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자율로 가득한 문화', '고슴도치 개념과 일관성'을 말한다. ECONET이 지향하는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에 참여하기를 선택한 개인은 자신의 R&R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규율(discipline)의 문화'와 '창업가 정신'을 무기로 ECONET의 Vision을 실현하리라 본다. 제2차 ECONET 러시아 연수는 6월에 진행된다. 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비출 것이고 밤에는 영롱한 별빛이 잠자리를 밝혀 줄 것이다. 요번 연수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소속한 기업의 R&R과 자신의 R&R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될 것이다.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人材와 技術, 資本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역량'이 내부에 있어야 한다. 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의 원천인 핵심역량을 ECONET은 '도전정신', '창의력', '인화정신'으로 본다. 제2차 ECONET 러시아 연수의 네 번째 목적은 ECONET의 핵심역량인 '도전정신', '창의력', '인화정신'을 러시아 천연물 생산지인 본삼농장에서 키우고자 함이다. 요번 연수에서는 2,150ha(650만평)에 달하는 광대한 농장지역을 걸어서 답사할 계획이다. 둘레 길이는 마라톤 거리인 40여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한다. 연수생은 광활한 대지의 흙 기운을 마시면서 동료들 사랑하는 '인화'의 마음을 다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잡은 ECONET 기업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러시아 농장에서 가꾸고 키울 천연물의 新素材化를 꿈꾸는 '창의력'을 상상해 볼 것이다.

마지막 목적으로는 러시아 농장의 연수를 근무의 연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연수자가 불황기 타파를 위한 결속력 강화와 실천주체로서의 사명감을 굳건히 하고자 함에 있다. 한국의 내수 경기는 3년째 불황의 터널 속에서 빠져 나올 줄 모르고 있다. 남양알로에는 지난 90년대 초 불황기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서울 위치한 본사 직원이 모두 인천으로 내려가고 매출이 격감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다. 2004년은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한 해이다. 내수경기의 불황과

21, during the rainy period. It rained for five days of the 8-day training period. In fact, on the scheduled day of departure from Russia to Seoul, ships couldn't even set anchor in the harbor due to the storm. Thanks to such misfortune, however, trainees were able to fulfill their wish of visiting Vladivostok. Also, the frequent rains during the training period allowed trainees to become absorbed in discussions. In particular, during the 1st ECONET Russia Training, our CEO revealed the spirit that ECONET member companies seek to share with their internal organizations as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This means that organization members, by sharing a mutual corporate philosophy and values, can concentrate on realizing that philosophy more passionately and ultimately boost their individual value in executing the company vision.

The third objective of the 2nd ECONET Russia Training is clearly defin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individual toward realizing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In the book "Good to Great," the author Jim Collins stresses the importance of talents. He explains that in order for a company to go from "good to great," "a culture of discipline" and "an ethic of entrepreneurship" need to be met simultaneously and they should drive all decision-making and action. The phrases "culture of discipline" and "ethic of entrepreneurship" refer to "freedom and responsibility within a framework," "people who are willing to go to extreme lengths," "culture with self-discipline" and "The Hedgehog Concept and consistency." Individuals who chose to take a part in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as ECONET desires, will clearly recognize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realize the ECONET vision by arming themselves with the four elements of "a culture of discipline" and "an ethic of entrepreneurship" as mentioned above. The 2nd ECONET Russia Training is taking place in June. The warm sunlight will brighten your days and twinkling stars will lull you

# Let's ECONET

더불어 시작하는 '건강기능식품법'의 발효는 한국의 ECONET 가족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인 것이다. 불 보듯 뻔한 시장의 확대와 大企業群의 시장침투라는 두 가지 현상은 기회와 위기를 나타낸다. 남양알로에를 비롯한 한국의 ECONET 가족은 이 두 가지 현상을 미리 예측해 왔으며 착실히 준비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ECONET 가족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호흡을 고르기 위하여 러시아로 간다. 가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불황을 극복할 태세를 갖추어 올 것이다.

ECONET 가족 여러분!  
제2차 ECONET 러시아 연수의 대장정에 오르는 40여명의 동료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o sleep at night. The participants in this training will ponder the company's R&R as well as their own R&R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a company to engage in business, it needs talent, technology and capital. For a company to realize its "dream," it needs to have the required "capability" internally. ECONET views a "challenging mind," "creativity" and "a spirit of harmony among men" as core capabilities, the source of power that drives corporate growth. The fourth objective of 2nd ECONET Russia Training is to build a "challenging mind," "creativity" and "a spirit of harmony among men," at Bon Sam farm. During the program, trainees are scheduled to tour the vast 2,150 hectare (6.5 million pyeong) farm on foot. Its circumference is roughly 40 kilometers, which is equivalent to a marathon course. While breathing in the vitality of the soil, trainees will cultivate "a spirit of harmony among men" to care for their colleagues, further expand the "challenging mind" of the globally-positioned ECONET, and employ "creativity" to dream about new kinds of natural products that can be grown and cultivated on the Russian farm.

The final objective is for trainees to strengthen their solidarity to overcome the economic malaise and to assert a sense of duty as the torchbearers of achievement by viewing their Russia-based training as an extension of their service. Korea's domestic economy has not emerged from an endless tunnel of depression over the past three years. During the economic recession in the early '90s, Namyang Aloe suffered a great deal in relocating the entire head office staff in Seoul to Jincheon while witnessing a sharp decline in sales. In 2004, Health Supplement act will take effect in Korea. Coupled with the domestic depression, the enactment of Health Supplement act poses threats as well as opportunities to ECONET families in Korea, due to the obvious market expansion and market entry of large business groups. In anticipation of these two phenomena, ECONET member companies in Korea including Namyang Aloe have been taking sound preparatory measures. However, ECONET families in Korea are now traveling to Russia to brace themselves for the competition and to compose themselves once more. When they return from Russia, they will be well equipped to overcome the economic slump by transforming the crises into opportunities.

The members of ECONET family!  
Let's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40 co-workers who are embarking on the 2nd ECONET Russia Training.





## 2004년 미국 현지법인 연수자와 함께!

### 꿈에 그리던 알로에 농장!

입사한지 만 11년만에 사내교육이나 광고 사진으로만 보던 상상속의 알로에 농장을 5월12일 나는 현재 남양알로에 대리점 사장단들과 미국현지법인 "알로콥" 농장 연수 과정을 취재차 버스로 탐피코(곤잘레스) 마을길을 달리고 있다. 알로콥은 탐피코 농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탐피코 안에 속해있는 곤잘레스란 마을에 더 가깝다고 한다. 곤잘레스 마을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시골처럼 소박한 마을처럼 느껴졌다. 그런 곤잘레스 마을을 조금 더 들어가자니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알로에 농장에 도착! 농장 입구서부터 눈 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알로에 밭은 내가 상상했던 것 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넓었다. 농장 입구서부터 사무실까지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창문을 보면 아직도 알로에 '바다' 다. 가고 또 가도, 보고 또 봐도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알로에를 보는 순간 정말 웬지 모를 뿌듯한 마음에 가슴벅차 올랐고, 알로에 농장이 너무 아름다워 잠시 감상에 잠기게 되었다. 잠시 후, 알로콥 농장 식구들은 하나같이 밝은 미소로 반겨주었고, 한국에서 있을 땐 멀게만 느껴지던 알로콥 식구들이 여기와서 만나보니 언어, 인종과 피부색의 장벽을 넘어 가족처럼 가깝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ECONET 가족이란게 이런것인가! 라는 생각에 온화한 정감이 느껴졌다.

### 세계에서 가장 큰 알로에 농장! 알로콥~

알로콥 농장이 얼마나 광활한지 "세계에서 가장 큰 농장"이라는 문구가 간판에 새겨져 있는데 손색이 없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알로콥은 1988년부터 할린젠(텍사스)에 72만평(60acres)을 구입했고, 1990년 곤잘레스(멕시코)에 120만평(1,000acres)를 구입했는데 이곳을 Lake Farm이라 부른다. 또 2000년 약 25만평을 멕시코에 추가구입 했는데 이곳은 Mountain Farm이라 부른다. 특히 Mountain Farm은 전지역이 유기농법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Lake Farm도 2006년 1월까지 유기농법 재배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그래서 위의 두 알로에 밭을 다 합하면 무려 217만평이나 되니 과연 농사규모와 유기농법이라는 품질면에서 또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세계 알로에 원료시장에 40%이상 공급하고 알로에를 직접 재배하는 농장으로써 알로콥은 세계최대의 세계에서 가장 큰 알로에 농장이라는 말을 증명해준다.

### 알로에 베라 농축액 과학적 생산과정!

실습에 들어가기전 우선 알로에의 전문가 김수겸 부장님의 열강을 들어보았다. 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직접 수확했던 자료를 보면서 잎 상태를 확인하여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SOP(표준공법) 이라고 하고, 보통 잎파리는 60일 사이클로 18개는 남겨두고 2~3잎을 채취한 후 생산시설로 운반하여, 1차 세척 및 2차 살균세척을 하고 박피기계를 이용하여 겉껍질을 제거 후 섬유제거기를 이용한 섬유질을 제거한다. 다음 효소처리 및 색상 제거과정 후 여과과정을 거쳐 HTST(순간고온살균) 방법을 이용한 살균작업을 한다. 여기서 HTST란? TTS 3가지 공법으로 첫째, Time(시간)-수확 후 6시간 이내에 생산완료 둘째, Temperature(온도)- 수확 후 고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셋째, Sanitation(위생)- 공정에 의거하여 최대한 세균감염을 미연에 방지한다. 라는 내용이다. 다음 농축기를 이용한 농축과정을 거쳐 소독 후 냉장실에 넣고 냉장력으로 6시간 숙성을 한다. 그럼 텍사스에서 액상제품과 분사건조 분말 파우더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액티브 알로에다. 다들 잘 알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액티브 알로에는 생초보다 면역기능이 3배, 세포재생 효과가 27%나 높고, 생리활성물질의 전달체 역할이 뛰어난 알로에 원료로서 국제 알로에 심의협회로부터 "최상의 알로에 원료"로 과학적으로 검증 받은 것이다. (김수겸 부장님 오경아 연수생 수업 제대로 받았나요?)

###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그 체험 현장~

드디어 열띤 강의를 듣고 배운대로 실습할 기회가 주워졌다. 알로콥 직원들의 정성어린 구슬땀으로 땀글땀글 통통한 알로에 잎들, 하나라도 흘리고 버릴까라 고이고이 바꾸기에 모시는데, 초보일꾼(대리점 사장님들과 본사직원)들은 진땀이 흐르고, 60일전에 심어 잘 자란 묘목들, 손발 맞춰 제 더 잡아주는데도 연신 '하이고 타령' 이다. 묘목밭 자리잡은 세계 알로에들, 조심조심 새 밭으로 이사시키고, 서툰 솜씨지만 초보일꾼들 구슬땀 아까지 않고 중형무진한 끝에 기쁨까지 체험한 우리의 땅 알로콥에서 우리가 심은 알로에가 잘 자라길 바란다.

"알로에의 바다 한복판"에서 (주)남양 경영전략본부 오경아 기자

## The Aloe Farm I Dreamed Of!



**On** May 12, I was on a bus bound for Tampico, Mexico, together with a delegation of Namyang Aloe agency heads to cover a training program by the company's U.S. subsidiary, an Aloecorp farm.

This was to be my first hands-on experience at an aloe farm since joining Namyang eleven years ago. Up to this point, I had only seen their farms in pictures during training sessions, or in ads, or through my imagination.

Although most people think this farm as being in Tampico, it's actually closer to a village of Gonzales, which is a part of Tampico. My impression of Gonzales was like that of a simple village somewhere in the countryside of Korea. After traveling slightly deeper into Gonzales, we finally came upon the aloe farm of our imagination. The endless fields of aloe, which caught my attention at the entrance, were even vaster than I had imagined. As I stared out the window on the bus ride from the entrance gate to the office, my eyes surveyed an unbroken sea of aloe plants. As the endless expanse of aloe fields unfolded before me, I felt an indescribable excitement; the beauty of the scene truly touched our hearts. Shortly, our group was greeted warmly by staff members of the Aloecorp farm. Though I had felt quite distanced from the other employees of Aloecorp while in Korea, here they felt more like family? regardless of different language, race or skin color. I thought, "That must be why we're called the 'ECONET family.'"

### Aloecorp - the world's largest aloe farm!

The Aloecorp farm was so expansive that the words "World's Largest Aloe Farm" on a sign at the entrance was hardly an exaggeration. Allow me to be more specific about the size of this farm. In 1988, Aloecorp purchased 720,000 pyeong (60 acres) in Harlingen, Texas, and two years later purchased another 1.2 million pyeong (1,000 acres) in Gonzales, Mexico, which is known as Lake Farm. In 2000, the company then purchased an additional 250,000 pyeong of farmland in Mexico, which it named Mountain Farm. Organic farming methods were introduced to Mountain Farm, and they are to be expanded to Lake Farm by January 2006. When counting both farms, the total acreage planted with aloe amounts to 2.17 million pyeong. This certainly goes far in proving that Aloecorp owns the world's greatest aloe farm in terms of both size and quality, as represented by organic farming. The farm grows enough aloe to supply more than forty percent of the world's raw aloe to the marketplace, which includes Namyang.

### Scientific process for producing aloe vera concentrates!

Before actually heading out to the fields, we first listened to an enthusiastic lecture by Senior Manager Joseph Kim, an expert in the aloe field. Please allow me to summarize his comments. Kim said that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amount of aloe to be harvested by comparing the condition of a leaf to historical harvest data. Usually, two or three leaves are harvested from each plant every sixty days, and transported to production facilities, while leaving about eighteen leaves intact. After the leaves are washed and sterilized, their skins are removed using a special machine. Then, the fibrous part is removed using a separate process. At this point, the leaves go through an enzyme treatment, a discoloring process and a filtering process before they are pasteurized using the "Hot-temperature, Short-time" (HTST) method.

The HTST process helps regulate the time, temperature and sanitary quality of processing. First, it ensures that production is completed within six hours of harvest. Second, it ensures that the leaves are not exposed to high air temperatures for more than two hours after harvest. Third, standardized procedures are followed to prevent bacterial infection as much as possible.

Once the concentrate is extracted, the gel is pasteurized and chilled in an insulated tanker for the six-hour trip to processing facilities in Texas, where liquid products and spray-dried powder - better known as Active Aloe - are produced. As you are already aware, the Active Aloe produced this way has three times the immunity function and a 27 percent higher cell regeneration effect than fresh aloe. It is also an effective carrier of biological activity substance. Active Aloe has been scientifically verified by the International Aloe Science Council as the "best aloe raw material." (Senior Manager Kim, did Reporter Oh get everything right?)

###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 A field of action ~

After this high-spirited lecture, we finally had a chance to get into the fields. We carefully harvested the aloe leaves? which turned into thick strips of gel thanks to the sweat on Aloecorp staff members' hands - and placed them in baskets. Agency heads and headquarters staffers, who are all novice farm hands, were sweating in no time. Their groans could be heard in the field as they transplanted sixty-day old saplings. The newborn aloe plants, which had been growing in a field of saplings, were then carefully moved to a different field. Though lacking in skills, the greenhorn farmers were still rewarded for their hard work in the form of sweat running in beads down their brow. We sincerely hope the aloe plants that we planted with our own hands grow well in our soil.

"In the center of a sea of aloe" By KyoungAh Oh, Strategy and planning office of Namyang Company/Korea/Editor-in-Chief





# The Origin of ECONET



대표이사 이병훈

## ECONET Vision – ECONET의 탄생 동기

## ECONET Vision The Origin of ECONET

Bill Lee, President & CEO, Namyang Company

철 이른 소나기가 추적추적 내리던 1986년 6월 어느 날, 성수동 제일빌딩 312호실, 작은 문을 여는 순간, 남양알로에와 첫 만남이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사무실은 마치 용광로처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열정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공장 직원의 화상, 이웃 회사 여사원의 여드름, 집안 어른의 평생 고생이던 위궤양, 또 회사 사장님의 왕성하셨던 사업의욕을 꺾어놓았던 간 질환, 참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었던 알로에. 이 땅에 알로에를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한 1976년부터 첫 제품을 생산한 1985년까지 십여 년 세월 동안, 익히 보고 확인했던 경이로울 만치 대단한 알로에의 효능에 대한 믿음에서 그 열정은 비롯되었으리라. 여러 해의 고생 끝에 마침내 알로에를 제품으로 개발하여 알로에의 효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나눔을 통해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다는 열정으로 사무실은 한껏 달아올라 있었다.

“저는 한평생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도 이제까지 계속 기업을 이끌어 온 것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화를 수단으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십여 년 전 몸쓸 간병에 걸려 수단과 목적, 모두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로에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 기적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알로에 사업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재화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사업의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는 선순환의 사업인 것입니다. 좋은 알로에를 구슬땀으로 키워 연구를 통해 제품화하고, 그 제품으로 저같이 병마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이라는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제 여생을 바쳐 해야 할 일을 알로에를 통해 찾았고,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인류를 위한 이 사업의 큰 의미와 보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입사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조회시간에, 십여 명 남짓한 남양알로에 직원들에게 이연호 회장이 하셨던 말씀은 회사 구석구석에 충만했던 열정이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할지를 참석자 모두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시작한 1986년의 여름은 주경야독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초창기 회사의 다양하고 분주한 업무를 위해 열심을 다했고, 밤에는 둘러앉아 우리의 미래를 칠판에 그렸다 지웠다 하기를 반복하며 토론에 열중했다. 창업 회장의 신념이 녹아 있던 조회 때의 말씀은 자연히 토론의 중심이 되었다. 알로에, 혜택, 사업의 수단과 목적, 선순환, 세상을 위한 좋은 일, 인류, 최선……. 조회사 안의 단어들에 접히고 펼쳐지기 여러 수십 번, 토론이 밤마다 계속되면서 우리는 회장이 그려주신 비전이 우리 모두의 신념이 되어 감을 알 수 있었고, 신념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창대한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그리고 거듭되는 토론으로 한여름을 보내던 어느 날, 누군가 “그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자연의 신비를 인류에게 전하는 일이야!”라는 선언적인 말을 던지는 순간, 토론의 장은 깊은 침묵에 싸였고, 그 침묵은 지난 석 달 동안 벌여왔던 격론이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안도의 기쁨과 우리의 미래가 드디어 확실히 규정되었다는 솟구쳐 오르는 희망의 숙연함으로 승화했다. 나중에 정부의 감독기관에서 ‘신비’는 너무 애매하다는 유권해석으로 ‘혜택’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그해 여름 우리 남양알로에는 우리가 백 년을 두고 추구할 이상과 철학을 담은 비전을 그릴 수 있었다.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표어에는 18년 전 젊은 회사, 남양알로에의 자못 치기어린 꿈과 소망이 담겨 있다. 인류가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하는 까닭은 어찌면 자연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인간 문명의 무절제한 방종 때문이며, 현대의 많은 건강 문제도 여기서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알로에로 상징되는 자연을 바로 이해하고, 그 자연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혜택을 찾자고 굳게 결의했다. 지금 보아도 참 도전적인 발상이었다.

‘인류’라는 단어를 정할 때도 젊은 남양의 도전의식은 살아 있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그래서 사람과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기로 했으니, 그 혜택은 한국인과 아시아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 모두, 즉 인류에게 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논의의 결론이었다. 연매출이 고작 10억 미만이던 신생회사의 다부진 꿈이었다.

무엇을 위해 우리 회사가 존재하느냐 하는 의미를 담은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철학을 명문화한 후 18년, 이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려는 수많은 시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시도에 쏟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오늘의 ECONET을 만들어냈다.

My first encounter with Namyang Aloe began on an overcast June day in 1986, when I opened the door to Room 312 of the Jeil Building in Seongsu-dong, Seoul. It was raining that day, which was quite early for the monsoon season.

Although the office was small, it seemed to be so full of passion and energy that it reminded me of a furnace. ‘Where did all of this passion come from?’ I wondered. That passion must have originated from the steadfast belief in the amazing abilities of aloe, which had been observed and verified from 1976, when aloe was first planted in Korea, to 1985 when the first products were manufactured. That office was boiling over with enthusiasm stemming from the fact that aloe had finally been developed into a viable product after several years’ hard work, and that aloe’s value could now be shared with more people. Aloe has truly solved many problems concerning the health and beauty of a lot of people: a burn on a factory worker, acne on the face of a female clerk, a stomach ulcer that troubled an elderly man and a liver disease that depressed a CEO’s vigorous spirit, to name a few. The CEO related his experience as follows.

“I have been doing business all of my life. Despite my numerous successes and failures, I continued to run companies guided by the mission of producing goods that could prove beneficial to the world. However, I developed a situation where I had to give up everything -both means and goals-because I fell ill with a liver disease about ten years ago. By good fortune, I managed to recover my health through aloe, and I wanted to share that miracle with other people. The aloe business shows that doing something good for the world-which is the ultimate objective of business-can be a means to create goods. In other words, it is an effective business with a positive cycle, where the business is in harmony with the objectives. Our business is to toil and sweat to cultivate high-quality aloe, then transform it into a useful product through our research in order to bring health and hope to the legions of people like me who suffer from sickness. Through aloe, I discovered the ultimate purpose for the rest of my life. I want to share with you my confidence in the success of this business, and the significant, rewarding satisfaction that comes from benefiting humankind. Let’s do our best!”

These remarks, made by the late Chairman Yeon-ho Lee to a group of about ten Namyang Aloe staff members during a morning meeting a few days after I joined the company were enough to deeply engrave in the minds of those present why the company was running over with passion, as well as how and to what end we should use our passion.

The summer of 1986, which started in such a way, was a continuous stream of work by day and study by night. In those heady early days, we worked hard all day tackling myriad tasks at the company. Come nighttime, we would gather round and immerse ourselves in sketching out and refining our future. Naturally, the remarks and beliefs of our founding chairman became a main theme of the discussions. The chairman’s words-about aloe, benefits, business means and cause, a positive cycle, doing something good for the world and humankind and being the best-were combined and dissected dozens of times. As the discussions continued night after night, we were able to realize that the vision outlined by the chairman had fixed firm beliefs in everybody’s mind. As the beliefs grew ever stronger, we dreamed of ever-loftier go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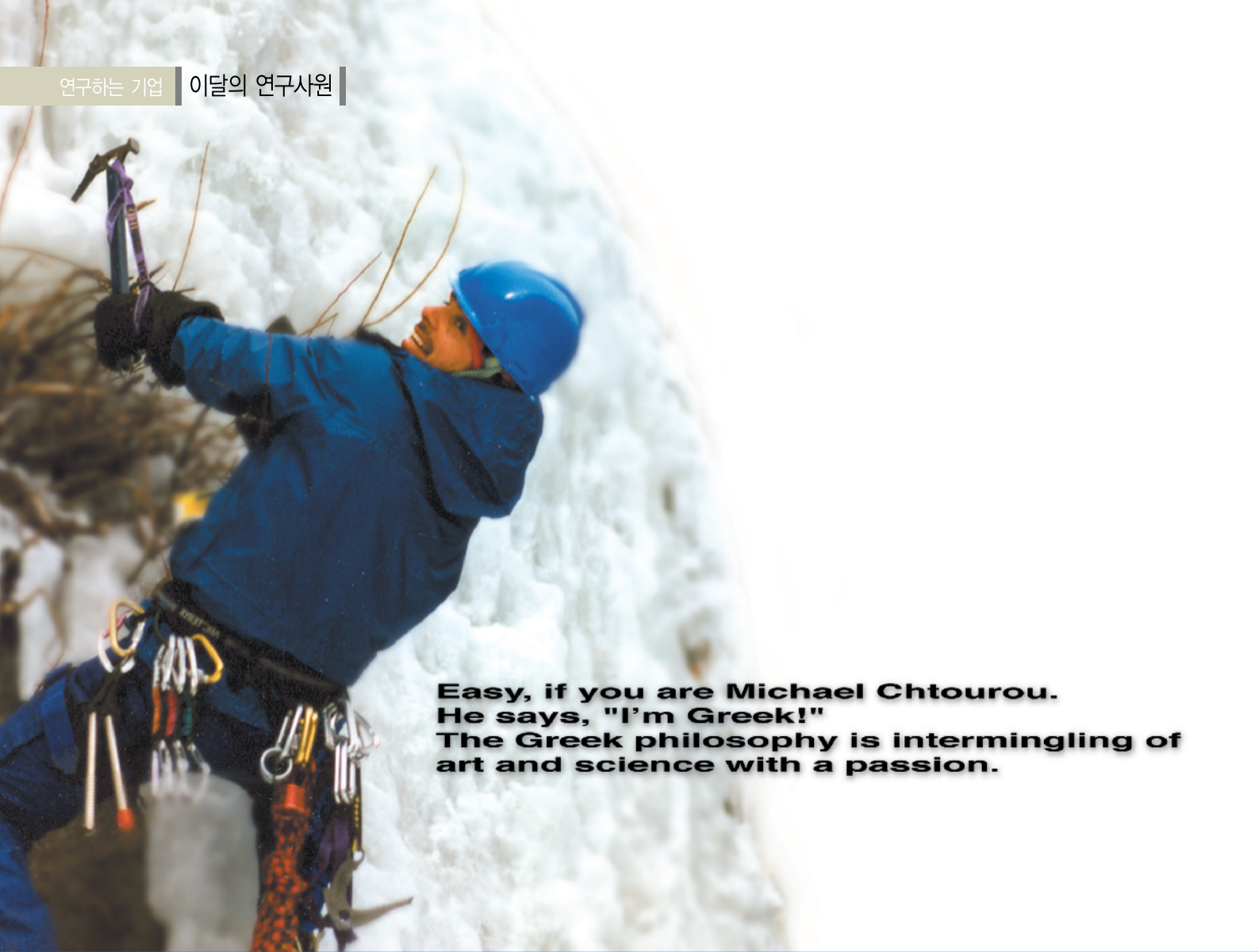
Our discussions continued into the height of summer. On one summer day, someone suddenly declared, “That’s it! What we’re trying to do is bring the wonders of nature to mankind.” Instantly, the room became silent, only to sublimate into the relieving pleasure of knowing that our heated debate over the past three months had finally reached a conclusion. We experienced the solemnity of overwhelming exhilaration that our future had become clearly defined after all. Although we later substituted the word “best” for “wonders” due to the government’s interpretive ruling that “wonders” is too ambiguous, that summer, Namyang Aloe had envisioned the philosophy and aspirations that we would pursue for over a century.

The motto, “Bring nature’s best to mankind,” reflects the somewhat naive dreams and desires of a younger Namyang Aloe of eighteen years ago. Humankind may be still facing many problems on account of the extreme self-indulgence of human civilization, which is in disharmony with nature. At the time of our founding, we believed that various health problems now widespread were not exceptions. Therefore, we made a firm resolution to correctly understand nature, as symbolized by aloe, and through our tireless search for answers in nature, to uncover benefits that could help humankind. Even when I think of it today, it was a very challenging and bold idea.

The challenging spirit of a youthful Namyang continued when we defined “mankind.” From our discussions, we concluded that since we had decided to work together to create a world where nature and humankind are in harmony, it was proper to convey these benefits not only to Koreans and Asians but to people throughout the world, to all of mankind. That was the aspiration of a newborn company with annual sales of barely 1 billion won.

It has been eighteen years since we specified the corporate philosophy, “Bring nature’s best to mankind!” which sums up the reason for Namyang Aloe’s existence. Countless efforts to find the best way to realize this philosophy are ongoing as we speak. The sweat and tears shed by legions of people in these undertakings have created the ECONET we see today.





**Easy, if you are Michael Chtourou. He says, "I'm Greek!" The Greek philosophy is intermingling of art and science with a passion.**

**Michael Chtourou UPI 품질관리 담당자 인터뷰**

미국 콜로라도 브룸필드에 위치한 유니젠 파머슈터컬(Unigen Pharmaceuticals). 이곳에 가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Michael Chtourou의 작품을 '느려봐야' 한다. 무슨 말이지 하며 의아해 하겠지만, 사실이다. Michael은 최선을 다해 직무를 이행하는 UPI 직원이면서 동시에 석술 조각가. 건물입구 통로를 수 놓은 아름다운 타일이 바로 얼마 안 되는 자유시간을 할애 해 만든 그의 작품이다.

Michael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몬트리올로 옮겨왔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Kenneth Thiman 식물학 교수님에게 식물이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과 소위 "자연의 부엌"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흥미를 갖게 된 Michael은 이때부터 자기만의 열정의 길을 걷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생명산업에 진출한 Michael은 마음을 바꿔 의대진학을 결심했다. 생명을 구한다는 것. 이보다 매력적인 이상이 있을까마는, 이미 그의 마음은 발견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결국 Michael은 결단을 내리고 다시 생명산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콜로라도로 재배치 되었다는 소식을 받는다. 그를 아끼는 고향 그리스의 신들이 콜로라도 UPI에 자리가 생기도록 힘을 쓴 듯 하다. Michael은 자신의 경력에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날이었다고 말한다.

원재료 물질에서 최종 생산물에 이르기까지의 생명주기는 Michael 손에서부터 시작된다. 신규 혹은 원재료 물질이 도착하면 우선 성분과 내용물을 분석한 다음 후속 단계인 제조 및 개발 부서로 보낸다. Michael은 제반 발견과정 뿐 아니라 신규 물질 확인에도 남다른 열정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신규물질과 개발 중인 신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개발하고 표준을 설정해야 할 때도 있다. 새로운 발견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최첨단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가 좋아하는 일 중의 하나다.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Michael이 다시 한번 확인작업을 통해 제품 및 필요성분의 고품질을 점검한다. 때로는 고객이 안달을 하면서 기다려도 승인을 늦출 때가 있다. 제품이 그의 높은 표준에 확실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UPI가 최고 품질의 제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Michael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유니젠은 Michael이 국제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왔다. 공식적으로는 UPI의 품질관리 담당자일 뿐이지만, Michael은 UPI를 비롯해 자매 회사인 알로콧 및 오아시스의 성공을 지원하는 것이 자신이 맡은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최근 Michael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될 국제알로에과학위원회(IASC) 회의에서 연설을 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유니젠의 CLIA 인증 실험실

을 이용해 오아시스 제품을 지원하는 것은 자매 회사들에게 엄청난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Michael은 UIP 및 오아시스의 ACI 부장 대행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과학자로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Michael은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쉽다고 한다. 예술과 과학이 열정을 만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의 철학이다. Michael은 스스로 대리석과 청동을 이용한 조각예술을 터득했다. 서른 여섯 번째 작품이 완성 된 후, 그의 조각상을 본 UPI 경영진은 한국 남양알로에를 위한 작품 제작을 요청했다. 댄스를 좋아하는 여느 그리스인들처럼 그도 볼룸댄스 수업을 듣고 있다. 댄스와 조각 외에도 Michael 이 자유시간에 즐기는 활동이 또 있다. 산악 자전거 타기와 달리기를 즐기며, 기회가 되면 빙벽타기도 즐기기도 하고 안락한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소설을 쓰기도 한다. 미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질문에 Michael은 머뭇거리지 않고 질병 치료제 발견에 몰두하는 Michael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Michael Chtourou, 그는 UPI의 진정한 르네상스 선구자다.

인터뷰 담당자 : Erin Leeper 및 Yohan Lee/UIP



**Interview Mr. Michael Chtourou, UPI QC Manager**

Did you know that when you visit Unigen Pharmaceuticals, Inc. in Broomfield, Colorado, USA you will walk all over Michael Chtourou's work? Yes, that is right. On top of all the other duties he performs for UPI he also is a mason and sculptor. He was seen skillfully laying the beautiful tile floor in our entryway. Ok, he did all of this in his limited free time.

Michael was born in Athens, Greece and then moved to Montreal with his parents. While attending college in California he recalls his Botany professor, Kenneth Thiman, taught him about "nature's kitchen" and the potential of plants to cure diseases and remedy all sorts of ailments. That lesson sparked an interest that began Michael's passionate quest. After several years he entered in bio-industry, he changed his mind and decided to go to medical school. The idealistic thought of saving lives was alluring, but his heart was in discovery. He made the difficult decision to return to bio-industry. Shortly thereafter he was re-located to Colorado. The Greek gods must have been working hard on the day a position at UPI Colorado became available. Michael says that this was the best career move he could have made.

The lifecycle of a raw material to a final product begins with Michael at Unigen. When new materials or raw materials arrive, he is the first person to analyze the qualification of the ingredients and contents and release to the next stage for manufacturing, and development. He has a passion for validating new materials as well as the entire discovery process. From time to time he needs to develop a new method and set standards to validate the new material and new products that are being developed. In this kind of process he really likes to work acutely with cutting edge instruments that rapidly confirm the new discovery efficiently. At the final stage of the product, Michael becomes involved again to verify the high quality of the product and all the necessary ingredients. Sometimes he delays the approval, even though the customers are urgently waiting, until he is assured that his high standards are met. And UPI supplies the best quality product! Michael says he believes it will be a greater benefit to the long-term success of our company. Unigen has afforded Michael an opportunity to make a big difference in an international community. Michael officially is the Quality Control Manager for UPI but he feels that his primary role is to support the success of UPI and her sister companies, AloeCorp and Oasis. Because of his hard work Michael was recently invited to speak at the IASC conference in Las Vegas, Nevada, USA. Product support for Oasis using Unigen C.L.I.A. certified lab is advantageous and a huge benefit for the sister companies. Michael is also acting Supervisor of the ACI Department for UPI and Oasis.

How does this dedicated scientist maintain his sanity? Easy, if you are Michael Chtourou. He says, "I'm Greek!" The Greek philosophy is intermingling of art and science with a passion. He has taught himself how to sculpt marble and bronze statues. 36 pieces later the upper management of UPI saw one of his statues and requested him to design something for NamYang in South Korea. Because Greeks love to dance he is presently attending ballroom dance classes. Dancing and sculpting is not the only activities that take up Michael's free time. He is an avid off-road bicyclist, runner and.... ice climber! And when he just wants to relax he continues writing his novel. When asked what the future holds for him he quickly responds by saying to help find the cure for a disease. Michael Chtourou is UPI's Renaissance Man.

Interviewer : Erin Leeper & Yohan Lee/UIP





Namyang Aloe in My View  
내가 본 남양알로에

남승우  
(주)풀무원 대표이사  
Seung-woo Nam, Pulmuone CEO

한 기업의 발전과 성공의 밑바탕에는 우수한 경영자의 긴 시간의 헌신과 끊임없는 도전이 있음을 알게 된다.

◆ 학력

1970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9 연세대학교 대학원 식품생물공학 박사학위 취득

◆ 경력

84. 1 ~ 현재 (주)풀무원 대표이사 사장 취임  
95. 7 ~ 현재 (주)ECMD 대표이사 사장 취임  
97. 1 ~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 취임  
99. 4 ~ 03. 2 부천가톨릭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02. 8 ~ 현재 환경재단 이사  
03. 9 ~ 현재 여성부 정책자문 위원

◆ 상훈

94. 6 제3회 다산 경영상 수상 (한국경제신문사 선정)  
96. 3 제30회 조세의 날 대통령상 수상  
97. 3 제6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식음료부문)

◆ Educational Background

1970. 2 Graduated from Gyeongbuk High School, Seoul  
1974. 2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2 Received Ph.D. in Food Biotechnology, Yonsei University

◆ Work Experience

84. 1 ~ Present CEO of Pulmuone  
95. 7 ~ Present CEO of ECMD  
97. 1 ~ Present Chairman of the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99. 4 ~ 03. 2 CEO of Pucheon Cartoon Network  
02. 8 ~ Present Director of the Green Fund  
03. 9 ~ Present Policy Advisor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Awards

94. 6 Received the 3rd Dasan Best Professional CEO Award (selected by the Korea Economic Daily newspaper)  
96. 3 Received Presidential Award on 30th National Tax Day  
97. 3 Received the 6th KEJI Award (Food and Beverage sector)

16년전

동결건조알로에 제조업체를 찾기 위해 미국의 여러 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 알로에를 동결건조하면 완제품이 100% 알로에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지금은 남양알로에의 해외 관계사인 알로콥(Aloecorp)의 기술에 의해 가능하지만) 제조공정과 원료 구입처인 알로에 농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다.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2군데를 방문하고 실망한 뒤에, 3번째로 텍사스에 있는 남양알로에의 현지 법인인 알로콥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그곳의 책임자였던 이병훈 사장을 만나게 되었다. 알로콥(Aloecorp)의 공장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남양알로에가 직영하는 멕시코의 광활한 알로에 농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남양알로에가 알로에에 기울인 피땀어린 정성과 노력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작은 기업이 해외에서 약용 식물인 알로에를 대량재배하고 품질위주의 가공품인 동결건조알로에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 원료성분의 정량분석과 추출을 위해 기울인 과학적인 노력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돌아오는 긴 시간의 여행 중에 이병훈 사장과 건강식품산업과 경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추억은 지금 생각해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물론 풀무원은 그 후 동결건조 알로에는 항상 알로콥(Aloecorp)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그 당시 내가 보고 확신하였던 남양알로에 이병훈 사장의 경영능력과 꿈은 현실화되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기업의 발전과 성공의 밑바탕에는 우수한 경영자의 긴 시간의 헌신과 끊임없는 도전이 있음을 알게 된다.



◎ Namyang Aloe in My View

◎ Namyang Aloe in My View

I had the opportunity, 16 years ago, to visit several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while searching for a producer of freeze-dried aloe. At that time, when aloe was freeze-dried, it wasn't possible to tell whether a finished product was made of 100-percent aloe (Today, this is possible thanks to technology developed by Aloecorp, an overseas affiliate of Namyang Aloe). Therefore, I was making these visits to check out production processes and aloe farms, the source of raw materials.

After two disappointing visits in Florida and California, my third stop was at Aloecorp, which is Namyang Aloe's U.S. affiliate in Texas. There, I had the chance to meet Byeong-hoon Lee, Namyang's current CEO, who was in charge of Aloecorp at that time. I toured the Aloecorp plant as well as a huge aloe plantation in Mexico, which was located hundreds of kilometers away but run by Namyang Aloe. Through my visit, I came to acknowledge the hard work and painstaking efforts Namyang Aloe has been making to produce high-quality aloe.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fact that a minor Korean company was cultivating aloe, a medicinal plant, in large quantities on foreign soil, and producing and exporting freeze-dried aloe, a high-quality processed product. It was also striking how the company was using scientific technique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extraction of the raw ingredient.

On the long return journey, I had candid discussions with CEO Lee on the health food products industry and the role and attitude of an executive. It was an encounter that's remembered to this day as very enjoyable.

From that time on, Pulmuone has unquestionably purchased its freeze-dried aloe from Aloecorp.

At that time, I was quite confident in Mr. Lee's ability as an executive and in his dream. Over the long period of time since, his company today is achieving successes greater than ever.

This once again goes to prove that the untiring devotion of a talented executive, who's eager to face new challenges head-on, underlie the development and success of a company.

◎ Namyang Aloe in My View





NABA (Namyang Aloe Business Academy)는 남양알로에 교육에 대한 한마디의 정의이며, 비전과 동시에 남양알로에 교육체계의 확립된 체제를 말하고 있다.

## NABA Namyang Aloe Business Academy

NABA (Namyang Aloe Business Academy)는 남양알로에 교육에 대한 한마디의 정의이며, 비전과 동시에 남양알로에 교육체계의 확립된 체제를 말하고 있다. 이는 평범한 가정주부를 경제활동인으로 성숙을 기대하며 한사회의 경제중심의 축으로 만들고 영위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동안 남양알로에는 창사이래 방문판매 업체라는 특성으로 꾸준히 교육을 해왔고 그러한 교육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으나 향후 남양알로에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competency 및 교육 need를 파악하여 경영여건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장기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양알로에 Vision 달성을 위한 본사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2001년에 시작하게 되었다. NABA는 교육 요구분석을 통한 본사 및 대리점교육체계의 수립, 교육체계에 따른 교육시스템의 구축등을 목적으로 직무와 직책/직급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체계 수립과 교육체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대리점 교육체계의 수립방향은 첫째, 대리점 운영 노하우 습득 및 정보공유를 통한 대리점 사장 교육, 둘째, 체계적인 교육 실행을 통한 설계사 질적관리를 통한 설계사 직급교육, 마지막으로 대리점교육 활성화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사내강사 교육으로 볼수있다. NABA 대리점 교육 시스템은 매체의 다양화, 전국대리점의 표준화, 교육의 체계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개발 전략으로는 생활건강설계사, 중간관리자인 팀장과 부장, 경영자인 대리점 사장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총 4개의 직급별 교육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리점 사장교육은 각분야별심화학습실시, 본사와의 파트너쉽 공유, 실제적 대리점 운영방법, 상위 대리점의 벤치마킹, 견학,참관학습을 강화하였고 팀.부장 교육은 중간관리자로서 충실한 교육, 튜터로서 활용 가능한 교육, 현장 중심적인 교육, 판매와 관리에 적절한 조화를 강화했으며, 설계사 교육의 경우 교육목적과 대상의 체계화, 대리점 실정에 따른 맞춤교육, 대리점 자체교육 역량 강화, 실질적 판매, 증원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대리점 교육과정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기반, 그리고 학습의 효과적 측면에서 학습자 위주로 역량중심, 성과중심, 현장중심, 학습자 중심의 네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2년에 걸쳐 만들어진 산출물은 설계사 6개과정, 팀장 13개과정, 부장 3개과정, 대리점 사장9개과정, 기타 6개 과정의 학습자교재, 강사용교재, 운영매뉴얼등 총 82권의 교재로 탄생되었다. 이제 NABA는 첫 걸음을 시작한 아이와 같다. 따라서 많은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 끊임없는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다음 네가지의 보완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교육 시스템의 확실한 정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은 본사직원에 대한 교육체계 수립 및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대상별 지속적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며 둘째, 교육 인력양성으로 자체 강사인력의 Pool을 확보하고 영업 컨설턴트의 Tutoring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셋째, 교육운영 시스템의 경우 교육 대상자의 특성별 세분화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투자 평가시스템 차원에서 교육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교육투자 평가모델을 도입해야한다. 향후 NABA는 사내대학으로 발전 될 것이다. 한아가 유치원에서 시작하여 대학까지 한단계 한단계 교육을 받듯이 각 직급별, 대상별 공통과목과 자기계발을 위한 특별과목을 개설하여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재수강하고 본인이 선택 수강할수 있는 전문적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를 갖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된 기업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남양알로에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NABA에 전 임직원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하고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팀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당부하며 Vision 2005를 위하여 다시한번 파이팅 합니다.

(주)남양알로에 총괄상무 정찬수

The Namyang Aloe Business Academy (NABA), a one-word definition of Namyang Aloe's educational program, represents its established system as well as its vision. Its mission is to nurture an ordinary housewife into someone actively engaged in the economy, who forms an economic pillar of society.

In the business of direct marketing, Namyang Aloe has consistently offered training programs since the company was founded, and its curriculums have been highly appraised. NABA was launched in 2001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 priority-based, mid- to long-term educational system by first identifying the educational needs required by the Namyang Aloe organization and, based on this, developing online and off-line educational curriculums to enable the head office and its agencies to achieve the Namyang Aloe's vision. The educational system it developed focused on those capabilities required for each job post and title/rank and curriculums aligned to those educational needs.

Accordingly, the directions of the agency education system are 1)learning agency operation and training agency heads through information-sharing; 2)training health planners (agents) through the qualitative management of planners based on systematic training; and 3)cultivating in-house lecturers to stimulate agency training and carry out continuous follow-ups. The NABA agency educational system seeks the diversification of training media, nationwide agency standardization and systematically structured education. Its development strategy is to structure the educational system according to four ranks-health planners, team leaders, senior managers (middle managers) and agency heads (management)-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rainees. The educational curriculum for agency heads focuses on in-depth learning of each area, a shared partnership with the head office, practical tips on running an agency, benchmarking of high-performing agencies and learning through field visits. The education curriculum for team leaders and senior managers stresses appropriate training to cultivate a competent middle manager, training useful to a tutor, field-driven training and adequate harmony between sales and management. As for education for health planners, the aims are systematic training objectives and scope, a curriculum customized to an agency's situation, capability-building through an agency's internal training and substantial increases of sales and recruiting. The agency educational curriculum is designed around four basic principles-being capability-driven, performance-driven, field-driven and trainee-driven-with a focus on diverse experiences, a knowledge base and effective learning.

The concrete results of two years of hard work include a total of 82 volumes of manuals including a student manual, teacher's manual and operator's handbook for six curriculums targeting planners, 13 curriculums for team

leaders, three curriculums for senior managers, nine curriculums for the agency heads and six other curriculums. Today, NABA is like a child who just took his first step; it still needs a great deal of encouragement, ongoing interest and unending refinement.

I am planning improvements in the following four areas, which are imperative for the establishment and sound oper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First, in the area of educational system and program, systems and programs targeting the staff at the head office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development of onlin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initiated and trainee group-specific programs should be continuously refined. Second, in terms of cultivating lecturers, an in-house lecturer pool needs to be secured and tutoring capabilities of sales consultants need to be enhanced. Third, in terms of the training operation system, training programs that are segmented according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rainees should be monitored on an ongoing basis. Last but not least, in terms of an educational investment evaluation system, education data need to be managed systematically and an educational investment evaluation model should be introduced.

In the future, NABA is expected to become an in-house company college. Just as a child begins by going to kindergarten and takes the steps toward a university education, NABA should be developed into a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that offers elective subjects for self-development as well as compulsory subjects for every rank and division. This will enable each trainee to re-study his weak areas and tailor a curriculum to meet one's needs. In addition, in order to stimulate online educ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obtain more programs and operational know-how and to suggest a new model combining online and off-line methods for corporate education.

Your continuous interest and support for NABA, an educational system that is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Namyang Aloe, are deeply appreciated. I d also like to ask the education team, which is in charge of running NABA, to dedicate themselves to ongoing development. Let's join our hands together once again for the achievement of Vision 2005.

By Chan-Soo Chung,  
General Managing Director/Namyang Aloe

## NABA Namyang Aloe Business Academy







(주)남양알로에 서울영업팀  
조은석 사원

## 엄마, 아빠, 사랑해요 !

사랑하는 부모님께...

따스한 봄 햇살이 어느덧 따갑게 느껴지는 5월이 바로 앞에 와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새벽부터 분주하게 농사일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때인데요. 들에서 구슬땀을 흘리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껏 기분 즐기는 따스한 봄 햇살도 그리 반가운 손님만은 아니네요.

아버님, 어머님, 몸은 건강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안녕하시구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건강 챙기시는 건 잊지 마세요. 갈 수록 걱정이 됩니다. 농사일 힘든데도 평생을 그 일을 해 오셔서 안 하면 병 나실까 말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오히려 탈 나시지는 않을까 맘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이곳 저곳 아프시다는 말씀을 간혹 하시고, 손이나 얼굴, 몸 구석구석에 고생하신 흔적들이 골골이 남아 있는 모습에 마음이 무겁고,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실감하네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산지가 벌써 함께 지낸 시간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네요. 참으로 세월 빠르죠? 이젠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는 손자 손녀가 더 많으니...

그래도 빨리 지나간 세월의 양만큼 부모님의 사랑과 향수는 갈 수록 깊어가네요. 한 평생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몸소 사랑을 보여주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이라곤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노력하고 있구요. 어딜 가도 겸손하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 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믿으시죠? 또 형제들간에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우애로 푹푹 뭉쳐 함께 할게요. 얼마 전 아버님의 뒷모습을 꼭 빼닮은 큰형의 모습을 보며 까닭 모를 가슴뭉클함이 느껴지더군요. 이제는 아버님의 모습으로,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데로 멋진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어릴 적 봄의 화려함에 놀라는 반가움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이제는 깊고 푸르른 신록처럼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저를 감싸고 지켜보고 계시는 존재감에서 완숙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집을 스쳐온 듯한 훈훈함 베인 실바람 하나에도 마음이 설레고, 저녁 노을만 보아도 어릴 적 불계 물들은 들판 저 멀리서 걸어 오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라, 맘은 금새라도 부모님 곁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두 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해도 해도 부족한 말이거늘 왜 이리 그 동안 아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당신들의 사랑으로 지금껏 걸어왔고, 또 앞으로 제 앞날에도, 아니 저의 마지막까지도  
그러할 분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서울에서 막내 아들 올림

## I love you, mom and dad

By Eun-seok Cho, Seoul Sales Team/Namyang Aloe

Dear Mom and Dad,  
May is just around the corner, a time when spring's warm sunlight tingles the skin.  
Around this time of year, you must be busy out in the fields from early dawn till dusk.  
When I think of you, sweating under the sun, the springtime sunshine that thrills so many people is not all that welcoming to me.  
Mom and Dad, how are you? Are grandmother and grandfather also doing well?  
No matter how busy you are, don't forget to take care of your health first.  
I'm getting more concerned day by day.  
I'm aware that farming is laborious work, but I'm not stopping you out of concern that ceasing to work the fields may in fact make you sick since you've been used to doing it all of your life. Nevertheless, I am worried that you might overwork yourself and get sick.  
You sometimes mention that you have aches here and there. The traces of hard work in your hands and faces make my heart heavy.  
I can now tru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Now, I have lived longer away from you than beside you. How time flies!  
You now have more grandchildren, who call you Grandma and Grandpa, than your own children.  
However, my love toward you and homesickness seem to grow greater as time passes. I am aware that the only way to pay back the sacrifices you made and affection you showed us throughout your life is to live a life that adheres to your guidance. I always try to do so.

No matter where I am, I will be modest but confident, and do my best in everything. No need to worry. You trust your son, don't you?  
You also don't need to worry about us brothers. We will care for and love each other and remain closely bonded by our strong friendship.  
Looking at my oldest brother, who resembles dad exactly, gives me a lump in my throat for no particular reason. I was proud to see him playing the role of a father so remarkably, just as you had taught him. His looks, which resemble yours, Dad, appear very trustworthy!  
I feel a mature contentment as you stay in the same place with the same look, guarding me and watching me with a gaze like fresh, dense verdure rather than carefree encounter in springtime.

A warm breeze that makes me wonder if it's blown from my hometown, where you are, makes my heart flutter. The sight of a sunset reminds me of my childhood when you would walk home over a field dyed red from the setting sun. I feel like running to you right now. Although I am not close to you physically, I will always think of you two and try to become a son that you can be proud of.  
I love you, mom and dad.

That is never said enough, but I don't understand why I have been saving it so much.  
I have grown this much thanks to your love and I will grow even further with your love.  
I really love you.

From your youngest son in Seoul





# 서로 다른 공간의 같은 시간

4월 20일 오후 3시 05분, ECONETIAN들이 동시에 셔터를 눌렀다.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 오는 에메한 시간...  
잠깐 방심하면 졸음이라는 복병에게 기습을 당하기 딱! 좋은 이 시간에 우리의 동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 Different Places at the Same Time

ECONETians snapped their camera shutters simultaneously  
at 3:05 p.m. on April 20.

At this time in the afternoon, the day's accumulated fatigue hits us all at once  
What are our colleagues doing at a moment when they're liable to be nodding off?

## 남양알로에 Namyang Aloe



브레인스토밍과 스토리보드법을 활용하는 파워브레인 이재은 이사님!  
Have you heard about Brain Storming or Story boarding skill?  
Jaeeun Lee, Marketing Director.

남양알로에정보보호의 첨병! 경영정보팀입니다. 자세는 무척 폭력적인데 표정만은 밝네요  
MIS Team...the front line of Namyang Aloe's information system!  
Quite an aggressive attitude, but cheery faces.

일에 몰두해 있는 당신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노준호 주임님.  
Obsessed with your work...you look simply divine!  
Jun-ho Nho, Marketing Team.

언제나 넉넉한 미소, 영업기획팀의 인기의 차장님.  
Always offering a generous smile!  
Deputy senior manager Gi-eok Ahn, Sales Planning Team.

고객의 행복은 우리에게 맡겨라! 고객지원팀의 미녀 삼총사입니다.  
Customer's happiness is in our hands We're the Charlie's Angels of the Customer Support Team.

## 오아시스 Oasis



나는 음악이 있어야 일이 더 잘된 다니까!  
I need music when I work...it really hel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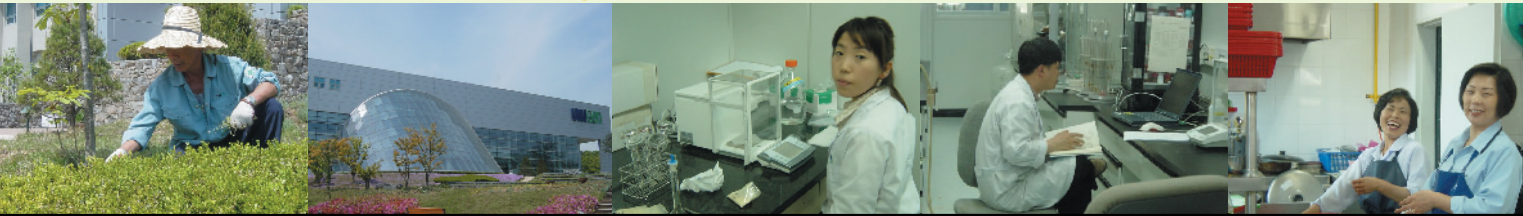
어? 앞에서 찍어주지!  
Uh? Why don't you take me in front?

우리의 진지한 대화를 왜 방해하세요.  
Do not disturb! We're having a serious talk here.

안녕! 에코넷 친구들...  
What's up...  
ECONETIAN...

나는야 행복한 남자!  
I am truly a happy fellow!

## 유니젠이스트 Unigen East



정원을 돌보시는 우리의 경비아저씨!  
A security guard is busy weeding in the garden.

유니젠 전경  
A bird's-eye view of Unigen.

시료무게를 달고있는 모습 천연물팀의 황보현정 연구원님  
Researcher Hyun-jeong Hwangbo of the Natural Product Chemistry Team, weighing sample materials.

열중이신 이강우 박사님의 모습!  
Dr. Gang-woo Lee immersed in his work.

유니젠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영양사님과 아주머님..  
The nutritionist and cafeteria staff...cooking tasty food for Unigen employees is their mission.

## 유니젠웨스트 UPI



"맞아요! 아니에요!"  
또 논쟁중인 Cheryla과 Mirriam  
"Don't I look good?"  
"Yeah, Yuan, you are so cute!"  
Dr. Yuan Zhao in the lab

"수잔, 이번엔 무슨 일이에요?"  
본인 사무실의 Sasan Vance  
"Susan, what's the deal this time on the phone?"

오아시스 견학. 한 참가자는 카메라가 더 흥미로운가 보다.  
During a tour led by Oasis, one participant found the camera more interesting.

"제 실험 망치지 마세요"  
유전체학 실험실 Chris Smith  
"Don't mess with my experiment"  
Chris Smith of Genomics Lab

"저 멋지지 않아요?" "유안, 정말 귀엽네요!"  
실험실에 있는 Yuan Zhao 박사  
"Don't I look good?"  
"Yeah, Yuan, you are so cute!"  
Dr. Yuan Zhao in the lab

## 남양 Namyang



방심은 금물 제발 조심하세요!  
Danger! Always stay alert.

제품에 새옷을 입히는 으샤! 으샤!  
우리의 패션 디자이너들.  
Fashion designers are giving our products a new look

알로에의 엑기스를... 음! 냄새 좋군..^^  
Aloe extract...Don't you love that smell?

"알았어요, Tom, 당신 요청대로 안경 안 쓴 사진을 실을게요....."  
"Ok, Tom, I will honor your request and include the picture without your glasses..."

## 유니베라 Univ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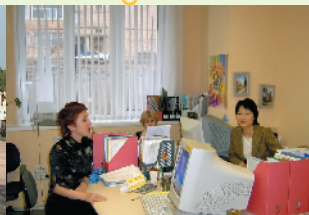
"Xinxin, 서류더미 사이에서 당신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Xinxin, I hope I can find you in the midst of all the paperwork..."

## 알로코프 Aloecorp



아가야! 중국가서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흠 냄새 좋고...  
"My dear baby, you must grow up to be strong and healthy when you go to China. You smell great!"

## 유니젠러시아 Unigen Russia



열심히 근무중인 회계팀..  
Accounting Team...working REALLY hard!.

## 하이난알로코프 Hainan Aloecorp



수다쟁이들의 근무시간. 사진 찍는다고 하니 나오는 웃음도 진정하고...  
I'm usually quite the socialite? except at work of course

해남도의 열정!  
One of Hainandao's many pretty faces

오늘따라 "삽"질이 잘 안돼네~  
A bad "shoveling" day!



마치, 내가 그 나비부인양 얼마나 애처럽고 서글프고, 그렇던지.. 나비부인인 미나파스카 야마자키(Mina Tasca Yamazaki) 가 정말 숨 넘어가는 줄 알았다.

푸치니 재단 초청 오페라 나비부인 100주년 초연 공연이 광화문 세종 문화회관에서 4/3~4/5까지 개막되었다. '100주년 오페라 나비부인' 은 나비부인 초연 100주년을 기념해 이탈리아 <푸치니 재단>에서 세계 5대 프로젝트 (한국, 중국, 이태리, 프랑스, 아르헨티나) 중 첫 공연으로 기획한 것으로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5개국 순회 공연의 대장정이었다. 그 중에서 나와 석미경 주입은 4월 4일 공연을 관람했으며, 관람비는 당연히 직장인으로는 참 비거운 비용이었으나, 남양알로에 복리후생비로 가능한 관람이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복리후생비로 헬스를 끊어 왔으나, 한번의 공연에 그 큰 돈을 쓴다는 것은 정말 내가 문화인이 되가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정말 다신 볼 수 없는 공연이며, 멋진 추억이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돈의 값어치 이상은 한 듯하다.

왜 아니겠는가. 공연이 끝나고, 프로그램 화보집을 보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푸치니 야외 공연장에서 다시 나비부인을 볼 수 있음 하는 상상을 하게 됐고, 이탈리아에 대한 동경도 갖게 되었다.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 하나가 더 늘었다. 이태리에 가면, 그 멋진 해안가에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정말 꼭 푸치니의 너무나 유명한 3대 오페라도 보고 싶어졌다. 답에는 복리후생비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란 꿈을 가진다...그렇다면 몇 년을 모아야 할까? 하하

사실 그간의 나의 행실로는 차마 2막을 넘기지 못하고, 잠을 청했을 터.. 그러나 다년간의 나의 실수 아닌 실수(공연관람시 졸음..) 로 인해서가 그날의 나비부인 공연은 너무나 푹망한 눈으로 거의 2층의 로얄석으로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감동을 느꼈다. 마치, 내가 그 나비부인양 얼마나 애처럽고 서글프고, 그렇던지.. 나비부인인 미나파스카 야마자키(Mina Tasca Yamazaki) 가 정말 숨 넘어가는 줄 알았다. 너무나 유명한 소프라노라는데, 지난번 투란도트 공연에서 <류> 역으로 열연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라고 한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 했던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나비부인은 자신의 자결로 생을 마감하는 불운의 여인이 되어갔다. 죽음을 맞이 하는 그 순간에 음악이 또 어찌나 절묘하던지... 잠깐의 정적과 함께 들려오는 핑커톤의 목소리 '버터 플라이...' 목놓아 불러대더니, 무대위로 나부끼는 꽃들은 또 어찌나 아름답던지...

무대 디자인도 여느 때와는 다르다고 했다. 생화 100만 송이를 사용하였으며, 나가사키에 가본 적은 없지만, 웬지 그곳에 바다를 끼고 있는 언덕에 있을 법한 집에 너무나 일본다운 무대는 나를 일본에 있게 만들었다. 역시나, 푸치니 또한 동양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 있는 서양인 이었나보다.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에 동양을 배경으로 비극의 여인을 만들어 낸 것을 보면 말이다. 1904년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나비부인의 초연 공연은 참패였다. 오죽하면, 여주인공인 소프라노가 울었을 정도라고 한다. 그랬던 오페라가 푸치니가 떠난 후에야,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우리들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문화인으로 거듭남을 느꼈고, "돈" 이라는건 이럴 때 쓰라고 있나 보다.

(주)남양알로에 교육팀 / 교육강사 주입 김소연

오페라 나비부인 열거...



Viewing the Opera Madame Butterfly

By So-Youn Kim,  
Education Dept / Senior Staff Namyang Aloe



PUCCINI  
Puccini

The Puccini Foundation of Italy produced "The Centennial Madame Butterfly" in Seoul in the first stop of a five-nation tour to celebrate the centennial of the premiere of Giacomo Puccini's opera. Following shows at the Sejong Center for Performing Arts on April 3 and 4, the opera was to tour China, Italy, France and Argentina.

On April 4, I attended the opera with my supervisor, Mi-gyeong Seok. Of course, as a salaried worker, I could not easily afford tickets to the performance, I attended thanks to special welfare allowances provided by Namyang Aloe. Until recently, I had been paying for my gym membership with this welfare allowance, which was introduced last year. Spending such a large sum of money on one performance made me feel that I was truly becoming a man of culture.

Suffice it to say, the performance was unforgettable. It had probably been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he overwhelming sensations I felt were worth far more than the money spent, I have no doubt. While browsing through the program brochure after the performance, I imagined myself sitting at the Puccini outdoor performance hall in Italy enjoying "Madame Butterfly" again. Now, another place has been added to the long list of places I wish to visit: Italy. When I go there, I can't wait to see Puccini's three masterpieces in the outdoor performance hall, located on the beautiful beachfront. I am dreaming that someday, this too will be realized through the welfare allowance. How many years would I have to save my welfare allowances to make this dream come true! Ha, ha, ha...

To be honest, based on my past behavior, you'd figure I would have fallen asleep by the second scene of the opera. Madame Butterfly was different, though. As if to make up for the years of dozing off during performances - unintentionally of course - I became totally immersed in the performance, absorbing every little bit of the show. I empathized with Madame Butterfly completely, I felt so sorry and sad for her. I even thought Mina Tasca Yamazaki was going to stop breathing. I am told she's a world-class soprano, who performed as Liu in "Turandot."

Someone once said that a woman is as fickle as a reed. In the finale, Madame Butterfly becomes a tragic character, ending her life by committing suicide. At the moment of death, the music was incredibly exquisite. After a few moments of silence, Pinkerton wailed "Butterfly!" Above the stage, the fluttering flowers added a magnificent touch.

I heard that the stage design was different from previous setups. As part of the stage decorations, one million fresh flowers were used. I haven't been to Nagasaki, but the stage looked so Japanese, with a house perched on top of a hill along the beach, that I felt transported to Japan. Puccini must have been a Westerner who fantasized about the Orient, given that one of his masterpieces is set in the Far East. When Madame Butterfly premiered at Milan's La Scala theater in 1904, it was a complete failure. Indeed, the opera's heroine at the time even shed tears. It only won international acclaim after Puccini died. As a result of seeing this performance, Mi-gyeong and I felt that we were really becoming men of culture. It was money well spent.



# { 병천에 동지를 튼지도 어언 2년 }

병천 읍내 아우내 장터에 유니젠의 10여명의 연구원들이 퇴근길에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장소는 병천의 명소 '청외집 순대'로 이병훈 사장님께서도 순대를 드시고자 하시며

아낌없이 이 집을 선택하실 만큼 순대국밥의 국물 맛이 일품인 곳이다.

그날 우리가 모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올 5월 9일이면 **유니젠 생명과학연구소가**

**병천의** 신축연구소에 새 동지를 튼지도 어언 2년이 되는 날이다.

낯설다면 낯선 이 지역에서 **천연물**을 좋아하고 또 연구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이곳에 모여든 우리...

비록 각자 다른 **삶**의 방식과 생각을 지녔지만,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그 동안 잘 생활해 왔다.

지난 2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켜보고 이야기 나눠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SOONDAE TALK SOONDAE TALK SOONDAE TALK SOONDAE TALK SOONDAE TALK SOONDAE TALK SOONDAE TALK SOONDAE TALK

## 서울 방이동 사무실에서 이곳 병천까지..

현재의 서울 방이동 사무실 한 곁이 유니젠 생명과학연구소가 처음 출발한 곳이다. 텅 빈 100평 남짓한 공간에 사무공간과 실험공간으로 나누어 실험 기기가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연구원들이 일할 사무실 공간뿐 아니라 다니는 이동 공간도 부족하여 복도에도 실험기계가 나와 있던 그곳에서 약 2년을 보냈다.

“그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러웠지. 내가 앉았던 공간은 기계소리도 시끄럽고, 기계에서 나오는 열로 여름엔 정말 더웠는데..”

입사순서가 늦은 탓에 사무실내 책상이 없어 실험실에서 일했던, 차경섭 연구원에 말에 그때 그의 옆 자리에서 같이 일했던 오미선 연구원이 말을 이었다.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는 좋은 업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연구를 해서인지 이젠 그것도 추억으로 기억되는 걸요.”

2002년 봄 몇 번의 이전 계획 지연으로 실험계획 조차도 불안했지만 5월 9일 드디어 연구소 건축이 완성되어 이곳 병천 까지 짐을 꾸려 들고 새로운 보급자리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건물하나 없이 허허 별판이었던 곳이, 이제는 국내 최대 민간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연구의 내용이나 주변 경관, 연구원의 모습들에서도 성숙된 분위기를 느낄수 있다.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정말 난감했어.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명이고,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 정일형 연구원의 말을 이어, 김미란 연구원의 한마디..

“이사 날에 조금 먼저 도착했었는데, 아직도 일부는 공사중 이었고 텅 빈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 순간 그런 생각부터 들었더니깐..”

“그래, 이사들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이지~ 모두들 정말 수고 많았어” 역시,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인지 항상 듬직한 박길수 연구원의 말에 지난 기억이 생각나는 듯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 자연을 벗삼아...

병천 연구소의 자랑 중에 하나가 쾌적한 업무 환경이다. 전면의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과 아치형의 아트리움 구조로 조형미를 갖춘 외형에 조경이 어루러져 자연 속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심 속에서 생활하다가 이런 한적한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니, 개인차는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했다. 교통도 많이 불편하고 물건 하나를 구입하려 해도 차를 타고 나가야만 했고, 이런 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도심지에 나가면 오히려 번잡함이 불편하게 생각되어 진다.

“전에는 서울로 출장을 갔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니깐 목도 아프고, 정신도 없더라~ 이곳 공기가 좋긴 좋아” 김중환 연구원의 말에 나도 한뭇 거들었다.

“가끔 전원생활이 이런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정원도 있고, 호수도 있고, 앞으로 승마장이 완성되면 나는 승마를 배워보고 싶어.”

옹겨다 심어 처음에는 앙상한 가지만 보였던 나무들도 이젠 어느 정도 심어진 땅에 적응을 했는지 한해가 다르게 무성히 잎을 싹 트이고 있다. 금년 조성한 테마 숲도 어우러져 벌써 울여름 자연의 정취를 그리게 하고 것처럼 우리들도 자연을 벗삼아 이곳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감을 느껴가고 있다.

## 훈훈한 인정 속에 사랑을 배워간다.

“준공식 전날에 우리 밤새워서 준비 했던 거 기억 나지. 소방호수로 도로청소 하고...”. “기억하지, 새벽까지 연구소 복도 벽에 식물그림 붙이고.. 로비에 유니젠 역사 사진작업도 했었잖아..” 성희선 연구원과 이지수 연구원이 준공식 때 일이 생각났는지 그때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아무래도 인원도 한정 되어서 인지 행사나 일손이 필요할 때면 너나 없이 모두들 동참하여 서로를 도왔다.

올 겨울 폭설 내린 날도 추운 날씨와 눈이 계속 내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남자 연구원들이 모두 나가서 눈의 무게로 혹여 나 어디라도 파손이 될까 싶어 아치형 유리 돔 위에 눈을 치우고 서로의 차도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니젠에서 따뜻한 보살핌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더 계신다. 바로 구내식당 하희자 영양사님과 식당이모님, 그리고 경비 아저씨들 이시다.

“식당이모님 피곤 하실 텐데도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아침 준비해주시고, 영양사님도 엄마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시잖아.” 조지너 연구원의 말에 남정범 연구원 배를 두드리면 농담으로 잇는다. “저는 이곳에 와서 2kg가 찼다니깐요. 이젠 정말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유니젠 구내식당은 계열사 직원들에게도 맛있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이다. 맛도 맛있지만 그분들의 정성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같다. 이젠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가리는지 정도는 기본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호를 생각하여 챙겨주신다. 외진 곳이라서 밤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 새벽에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항상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경비아저씨 들께서는 너무 감사 드린다.

회사원의 일원이기 전에 이제는 가족처럼 서로를 생각해 주고 아끼고 배려하는 유니젠 식구들의 훈훈한 인정 속에 사랑을 배워간다. 일의 프로뿐만 아니라 서로를 아껴 주는 동료애와 인정으로 어우러져가는 일터...

병천 유니젠은 이젠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이들 속에서 삶의 가치와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다. 이제는 일의 성공으로 서로에게 위안과 보람을 주려고 노력하는 곳이 되었고 나도 이곳의 한 구성원으로 서로 돕고 아껴주는 이곳이 참 좋다.

비록 오늘 모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져본 값진 모임이었다. 우리들 모두가 서로 돕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유니젠이 더 발전하길 바라고 있음을 알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취재-유니젠 연구지원실 / 홍영주 주임





## “Two Years Since Building a Nest in Byeongcheon”

One by one, about 10 researchers who work at Unigen stopped by Aunae market in Byeongcheon on their way home after work. Their gathering took place at Cheongwajip Sundae, a famous sundae (Korean-style sausage) restaurant in Byeongcheon. The superb taste of their sausage soup is proven in that CEO Byeong-hoon Lee also stops by when he wants some sundae. We gathered on that particular day because this May 9 would be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Unigen Life Science Institute at its newly built laboratory in Byeongcheon, south Chungcheong province. We moved to this town, which may have appeared strange to some of us, out of our love for natural materials and commitment to research. Although we all have different lifestyles and ways of thinking, we managed to get along well by sharing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We met together to look back upon and chat about our lives over the past two years.

### *From an Office in Seoul's Bangi-dong to Byeongcheon*

One corner of our existing office in Bangi-dong, southern Seoul is the root of the Unigen Life Science Institute. An empty space of 100 pyeong was divided, into an office area and an experiment area. As lab equipment was moved in one at a time, the space became so crowded that researchers could barely walk around, let alone conduct experiments. During our two years there, some of our equipment had to be stacked in the hallway.

“I really envied those working in the office area. The corner I was sitting in was quite irritating because of the noise coming from the machines and was also quite hot because of the heat generated by the machines.”

To the above remarks made by Kyung-seob Cha, a researcher who was forced to sit at the laboratory because by the time he joined no desks remained in the office area, Mi-seon Oh, a researcher who once sat next to him, commented, “That’s very true. However, it’s only a distant memory now, probably because I’m working and doing research in such a great environment today.”

During the spring of 2002, the mere act of planning a schedule of experiments was quite risky, as our relocation plan has been delayed several times. Finally, the building for the Life Science Institute was completed on May 9. We packed our stuff and moved to our new quarters in Byeongcheon. In the beginning, the building was situated on a vast, flat expanse without a single building around. Today, however, matching up to its reputation as Korea’s largest private research institute, a rich atmosphere can be sensed in the surrounding landscape, serious discussions and presence of many researchers.



## DINNERTIME CHAT

“When we first moved here, it was really frustrating. I had never heard of the town, and buses were scarce,” said Il-hyeong Jeong, a researcher.

Mi-ran Kim, another researcher, added, “I came earlier than others on moving day. A part of the building was still under construction and I wondered for a second, ‘How are we going to fill up this vast space?’”

“Right. Everybody had a lot of trouble moving. Compared to back then, we look pretty stable now. All of you, great work!” Everybody nodded at researcher Gil-su Park’s remarks, which seemed to drum up old memories. The fact that he’s a father of two makes him seem very trustworthy.

### *Having Nature as a Companion...*

Among the things the Institute’s employees are proud of is its pleasant work environment. Landscaping, coupled with a modern, glass-fronted building structured around an arched atrium, further accentuates the feeling that we are nestled amid nature. However, it took time for people to get used to living in such a remote area because almost everyone had been living in a city. Public transportation was very limited and one had to drive to pick up even a small item. At the time, people found this suffocating. Nowadays, however, we feel uneasy with the hectic pace of city life.

“When I went to Seoul on a business trip, I had to ride the subway,” said Jong-han Kim, a researcher. “After the ride, I had a sore throat and felt at a loss. The air here must be really clean.”

I couldn’t stay quiet. “I sometimes wonder if living in a country home must be something like this. We have a garden and a lake. When the horseracing track is completed, I want to learn to ride a horse.”

The trees, whose branches were so thin when they were planted, must have adapted well to the new soil; their leaves are getting thicker each year. The theme forest, which was created this year, will harmonize with the rest of the landscape and already makes us long for the natural beauty of summer. We feel that we are getting used to life here, with nature as our everyday companion.

### *Learning about Love from Compassion*

“Do you remember the all-nighter we pulled off on the eve of the building completion ceremony? We had to clean the roads with a fire hose.”

“Of course. How can I forget? I hung up framed pictures of plants in the hallways of the Institute till dawn. We also had to arrange photos showing the history of Unigen in the lobby.”

Researchers Hui-seon Seong and Ji-su Lee began to talk about the building completion ceremony. Because the organization is small, when an event is short of help, everybody joins in and lends a hand.

During this past winter’s heavy snows, despite the cold weather and steady snowfall, male researchers voluntarily went out to check if the weight of the snow had damaged the arched glass dome and to push each other’s cars out of the drifts.

In addition, some special people at Unigen look after us with care and love. They are Hui-ja Ha, the nutritionist at the company cafeteria, the ladies working at the cafeteria and the security guards.

“Working at the cafeteria must be really tiring. Nevertheless, the ladies working at the cafeteria come to work at the break of dawn to prepare breakfast every morning. And the nutritionist also cares for us like a mom.” Responding to the above remarks by Ji-nyeo Jo, fellow researcher Jeong-beom Nam tapped his belly and added jokingly, “I gained two kilograms since working here. I really need to go on a diet.” Among affiliated companies, the Unigen cafeteria is well known for its delicious food. Not only the taste, but also the sincerity of the staff really makes us appreciate them. The cafeteria crew is now aware of the likes and dislikes of every person that they serve food to. Let’s not forget the security guards, who stay on alert around the clock. It can be dangerous at night here because this place is very isolated. We are very grateful to them.

We learn about love through the kindness that Unigen staff show to each other? as if they’re family, not just co-workers. It is a workplace where a caring attitude toward colleagues, compassion and professionalism are fused together.

Unigen in Byeongcheon is now the basis of our life. We’re learning the value of life and love through people who are leading their lives in the right direction. It’s become a place where people strive for success to comfort and reward each other, and I am proud to be a part of this place. Although the gathering didn’t last long, some of our most valuable moments together in a long time took place there.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affirm that we wish to help and support each other and hope that Unigen develops further.

By Yeong-joo Hong,  
Staff of Unigen, Inc./Korea/Reporter



# 동기사랑 통하였느냐!



## 너무도 닮은 우리, 그래서 더 좋아요

하이난 알로콥에서 일하고 있는 Susan과 Coco! 바로 옆 부서에서 서로 의지하고 있는 이들은 외모도 닮았지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좋은 점은 배우면서 노력하며 사이 좋게 지내는 사이이다. 서로서로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그녀들을 환한 날씨에 만나보았다.  
하이난 알로콥 출납을 담당하는 Susan, 공장의 살림을 맡고 있는 Coco 둘은 여러 모로 닮은꼴이다. 업무도 비슷하고 키도 똑같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 Susan이 본 Coco는?

Coco라는 이름이 너무도 특이합니다. 또한 본명인 黄石挺이라는 이름은 분명 남자 이름인데 첫 출근할 때 보니 여자더라고요. Coco는 몸집은 작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책임감이 있고 자제력이 강한거 같아요. 그 점이 항상 부러웠어요. 한마디로 작은 거인 이죠.

### Coco가 본 Susan은?

처음 Susan을 봤을 때 나랑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입사 초기 아무것도 모를 때 수잔이 많이 도와 줬죠. 아직 나이도 어리고 회사에서 여러모로 갑조 역할을 톡톡히 하죠. 고향을 떠나 멀리 와서 고생하는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휴일은 어떻게 보내는지?

Coco : 특별히 하는건 없어요. 남편하고 조용히 집에서 보내죠. 주로 인터넷을 많이 접속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 방면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많이 합니다.

Susan : 쇼핑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역시 T.V시청과 잠자는 거죠. 제가 제일 잘하는 노래도 모두 T.V에서 배웠어요.. 하하하

### 취미 활동은?

Susan : 특별한 취미 활동을 하는건 없어요. 가끔씩 체력단련을 위해 회사 건물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해서 수영을 하곤 합니다.

Coco : 저도 특별하게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은 없습니다. Susan같이 간혹 수영을 하는 정도죠

### Coco와 Susan 둘다 이름이 특이하고 이쁜데...

대학시절 영문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영어 이름을 하나씩 지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해남도의 상징인 코코넛을 연상했죠. 이곳이 저의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 이거던요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Coco라고 했죠..

저는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어렸을 적 텔레비전을 많이 보다보니 자연히 영화도 많이 봤죠. 근데 수잔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수잔으로 지었어요.

### 서로의 별명들은 아는지...

Susan : 저는 어렸을적 별명은 생각이 나지 않고 지금은 소장님이 땅콩이라고 불러요. 아마도 내가 키가 작고 외소해서 이런 별명을 붙여 주신거 같아요. 근데 작은게 사실이라서 만족합니다

Coco : 특별한 별명은 없는데 저도 워낙 작고 외소해서 Susan의 별명에 공감해요.

중국 하이난 알로콥 & 남양 총경리 비서 송윤섭 기자



We're like two peas in a pod... that's why we like each other even more.



By Yoon-sup Song,  
Secretary of Hainan Aloecorp & Namyang / China / Reporter

Both Susan and Coco work at Aloecorp's Haikou branch office. They work side by side and rely on each other. Not only do they look alike, but they're also best friends who cover each other's weaknesses, learn from one another and care for each other. We met up with Susan and Coco on one fine sunny day.

Susan is in charge of accounting and Coco handles general affairs at the plant. They have many things in common. For starters, they perform similar roles and are the same height. The list goes on... We listened in on their chat.

### Coco in Susan's eyes

The name Coco is very unique. Moreover, her Chinese name 黄石挺 is definitely a boy's name, but a girl showed up on the first working day. Although Coco looks kind of thin and delicate, she has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normous self-control. I always envy her for that. You could say she's a small giant.

### Susan in Coco's eyes

When I first met Susan, I thought we were very much alike. When I was new to the office, Susan helped me out a lot. Although she's young, she is an indispensable person at the office. I feel sorry for her that her home is so far away from her workplace.

### What do you do on weekends?

Coco: Nothing special. I stay at home with my husband. I surf the Internet a lot. We also like to have debates on various topics.

Susan: I go shopping and take classes. However, I like watching TV and sleeping the most. I learned all of the songs that I sing well by watching TV. Ha, ha, ha...

### What are your hobbies?

Susan: I don't do anything in particular. I sometimes go swimming at the pool in our office building to stay in shape.

Coco: Nothing in particular, either. I swim sometimes, like Susan.

### Both Coco and Susan are unique and pretty names...

While I was at university studying English literature, my professor asked me to choose an English nam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I decided on the coconut, the symbol of Hainan Island. Although it's not my hometown, it is now my second home. That's why I named myself Coco.

My name does not have any special meaning. I watched TV a lot when I was a child and naturally, I saw a lot of movies. One day, a heroine named Susan impressed me very much, so I named myself after her.

### Do you have a nickname?

Susan: I don't remember any nicknames from childhood, but our office manager calls me "peanut" nowadays, probably because I'm short and slim. To be honest, I like that nickname because it is true that I am small.

Coco: Nothing interesting, but I like Susan's nickname because I'm also small and thin.



Susan



Coco





이렇게 27일 오전의 관광을 마치고 우리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중식을 하였다. 우리 입에 맞을리는 만무하지만 10년 전보다 맛이 좋아진 음식 솜씨에 다소나마 안도가 되었다. 다들 허기를 채우고 우리는 바로 다음 코스인 "여미지 식물원" 구경에 나섰다.

전세계 식물들은 다 옮겨다 놓은듯한 그곳은 사진기 후래쉬를 쏠새 없이 터트리게 할 정도로 신비롭고 아름다웠으며 우리는 마치 어린이가 된듯한 기분으로 넓은 초원을 밟고 다녔다. 다행히 하늘마저 우리를 반겨 좋은 태양빛을 선사했고 100배 만끽하며 관광을 즐겼다.

다음은 "약천사"라는 절을 구경 갔는데 소형 석가상이 42만개나 놓여 있고 7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소형 석가상은 108만개를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많은 석가상을 보는 순간 인간의 위대함을 느꼈다. 약천사 앞에 누군가가 심어놓은 유채꽃이 빛을 발해 해말게 반짝였다.

오늘의 마지막 관광코스인 "천지연폭포"는 어떤 식구가 입장권을 받아 오지 않아 다시 끊어오는 해프닝이 있었고 처음으로 단체사진을 찍은 곳이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하루 일정이 끝났고 우리가 힘들게 계획하여 제주도까지 와서 제주 특산물을 아니 먹고 갈수 없다는 모든분들의 의견을 따라 "흑돼지(퐁돼지)" 구이를 배부르게 먹고 숙소로 옮겼다. 모두들 피곤함에 지쳐 버스에서 잠들을 청했고 눈을 떴을 땀 해가지고 밖이 어두워 져있었다. 바다는 어둠을 삼켜 보이지 않았고 단지 우리를 반기는 것은 숙소의 불빛만이 보였다.

15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펜션은 12번째인 바이올렛(건물명)이 우리 몸을 맡길곳이었고 모두들 숙소에 들어 여정을 풀고 각자의 방을 배치한후 하루의 때를 벗고 모두들 한자리에 모였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일찍(19시30분경) 잠들수는 없다며 알코올을 권했고 소량의 돈을 모아 제주산회를 사다 가로 등 하나로 불을 밝힌 야외에서 우리는 모두 건배를 했다.

제주도도 밤은 쌀쌀했다. 다들 건하게 술이 올랐으나 밤바람에 쏘려 숙소로 모두들 흩어졌고 우리는 제주의 첫날밤을 맞이하였다.



# 나도야 간다 ~ (주)남양 산악인의 제주도 여행기



(주)남양 산악인 20명(가족 14명)이 봄을 맞이 하여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코져 3월27일 8시 아시아나 항공으로 청주 공항을 뒀다. 비행기의 이륙에 다들 작은 탄성을 내뿜고 기내에서 주는 음료를 한잔씩하고 마음을 가라 앉히는듯 했다. 마치 우리들이 전세를 놓은듯한 비행기는 수다로 왁자지껄 하다. 무사히 제주공항에 입국을 마치고 가이드와 버스로 관광을 시작했다.

### 신비의 섬 제주,

처음 우리가 방문한 "석굴원"이다. 제주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돌 하르방을 정으로 직접 조각하시는 분이 조성한 조각 공원인데 마치 기계가 깎아 놓은 듯한 정교한 조각상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고 특히 유부녀들에게만 공개한다(상상에 맞겨요!!)는 조각상은 신기한

듯했다. 각각각색의 조각상을 사진에 담고 다음 코스인 송악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차내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주에서 난 성이 3개(고,양,부)이고 총인구가 56만명에, 여자 많은 제주가 된 이유가 4.3사건에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죽었기 때문이며 고령의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송악산"에 도착하니 바닷가 해변에 마치 누군가가 파놓은 듯한 동굴들이 나란히 놓여있고, 지금은 "대장금"의 마지막 장면 촬영지로 유명한곳이 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세모금 마시면 장수하고 네모금 마시면 도로묵이 된다는 약수가 있는 "산방산"였다. 산등성에 위치한 이곳은 한참 계단을 올라가 줄을 서고 마실수 있다는 귀한 약수였다.



###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섬!

제주도 여행 이틀째, 우리는 이른 조식을 하고 관광버스에 올랐다. 부지런히 다녀와도 8시간이 걸린다는 한라산 정상을 향해 모두들 들뜬 마음들이다. 등산채비를 마치고 8시20분부터 한라산 등반에 올랐다(해발 750m). 진달래밭까지 7.3km이고 거기서 정상까지 또 2.2km를 올라야 우리가 그리도 보고 싶어했던 백록담을 볼수가 있다.

해발 1,950m이고 총 9.5km나 되는 높고 긴 한라산과 우리는 한몸이 되어 올랐다. 산이 높아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정상임에도 아이젠 없이 무사히 23명이 올랐고, 그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사람이 61세이며 가장 연령이 낮은 사람이 6세였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백록담 정상을 배경으로 한 장의 사진에 담고 내려온 시간은 오후 4시였다. 약 6시간30분에 걸쳐 두 다리를 내딛은 거였다. 가장 단시간으로 다녀오신 산악인은 약 4시간30분만에 하산하였다. 특히 박현진 유아를 업고 백록담을 밟고 오신 박승희 대리님! 산을 좋아하여 힘들게 이겨내는 그들을 보니 뿌듯하지 않을수 없었다. 모두들 즐거운 산행을 마치고 제주산 조깅대기 막걸리를 한잔씩 한 후 아쉬움을 남기고 청주행 비행기에 탑승을 마쳤다.



(주)남양 경영지원팀 최순미 주임



## Namyang Alpine Club's Expedition to Jeju Island

By Soon-mi Choi, Management Support Team/Staff of Namyang company

Greeting the arrival of spring, 20 members of Namyang Alpine Club embarked March 27 on an expedition to Korea's highest peak, Mount Halla.

The journey began as club members, accompanied by 14 family members, boarded an 8 a.m. Asiana flight from Cheongju Airport, jittery with excitement, then tried to relax with a complimentary drink. The plane's cabin was so filled with our boisterous chatter it was as if we'd leased it all to ourselves. After safely landing at Jeju Airport, we boarded a bus and set out on a tour of the island.



### Jeju Island

#### *An Island of Mystery - Jeju Island*

The first destination was Seokgurwon, a sculpture park created by an individual who personally carves stone statues known as harubang with a chisel. The sculptures, exquisite nature - as if carved by a precision machine - drew our attention. One sculpture in particular, which is shown only to married women (hmm... wonder why) seemed quite fascinating. After taking pictures of the different sculptures, we were off to our next stop, Songak Mountain. The bus ride itself turned out to be very educational. From listening to our tour guide, I learned that three family names, Go, Yang and Bu, originate from Jeju Island, that the island's population is 560,000, that Jeju Island has more women than men because more men died during the April 3, 1948 armed uprising, and that the island has many elderly women.

When we arrived at Songak Mountain, caves that appeared to have been dug out by someone lined the beachfront. The site became famous as the setting for the final scene of "Daejangeum," a very popular drama that aired recently in Korea.

We then headed to Sanbansan, a place where one can get natural mineral water. There is a saying that three gulps bring longevity, but four gulps become a waste. We had to climb up a flight of stairs and wait our turn in line to get the precious mineral water.

With our morning sightseeing for the 27<sup>th</sup> completed, we broke for lunch to satisfy our hunger. Although the food didn't quite suit our palates, we were relieved that it tasted much better than ten years ago.

With our hunger satisfied, we were off to the Yeomiji Botanical Garden. It seemed as if plants from all over the world were in this garden. It was so beautiful and enchanting; we were snapping photos left and right. We wandered through the fields as if we were children again. Fortunately, we were blessed with clear skies and lots of warming sunshine. We enjoyed the tour a hundredfold.

Our next stop was Yakcheonsa temple, a seven-story structure with 420,000 small Buddha sculptures. At the time, the temple was getting ready to house 1.08 million Buddha sculptures. Upon seeing so many Buddha sculptures, I couldn't help but feel the greatness of mankind. The rape flowers planted in front of the temple glittered under the bright sun.

At Cheonji falls, our final destination for the day, one of our members forgot the group's admission tickets so we had to buy tickets again. This was where we had our first group photo taken.

Our first day had nearly come to an end. As everyone felt that we couldn't possibly miss the chance to enjoy a Jeju Island specialty after going through so much trouble to plan the trip, we gorged on barbecued black pig before retiring to our pension.



After dinner, everybody was tired and began dozing off on the bus. When we opened our eyes again, the sun had already set and it was getting dark. Because of the darkness, we could not even see the ocean. Only the lights of our pension welcomed us.

The pension had 15 structures, and building No. 12, nicknamed Violet, was our home for the night. After we'd all gone to our rooms to unpack and wash up, someone claimed that it was too early to call it a day (it was around 7:30 p.m.) and suggested a round of drinks. After collecting a small sum of money, we bought some raw fish, so easily obtained in Jeju Island, and made a toast in the air beneath the light of a streetlamp.

As the night wore on, the air on Jeju Island grew cooler. Everyone was quite tipsy by the time we went back to our rooms to sleep off the first night in Jeju Island.

#### *An Island Blessed by Heaven!*

Day 2 on Jeju Island.

Following an early breakfast, we boarded the bus once again.

Everybody was excited to embark on the long climb to the top of Mount Halla, a hiking trip that can take eight hours even at a fast pace.

After gearing up for the mountain ascent, we struck out for the summit of Mount Halla at 8:20 a.m., starting from an altitude of 750 meters above sea level.

It is 7.3 kilometers to the Azalea Field, and from there it's another 2.2 km to the summit, where you can see Baengnokdam. We yearned to see it so much!

As we began climbing, we soon became one with the mountain, which soars above the island to 1,950 meters and whose peak can be reached following a 9 1/2-km hike.

Although the summit was still covered in snow due to the mountain's lofty height, all 23 members from Namyang arrived safely at the top without having to strap on crampons. Our oldest comrade was 61 years old, while the youngest mountain climber was just 6 years old. It was four o'clock in the afternoon when the entire group came down - after taking a picture in front of Baengnokdam. We had been on the trail for about six and a half hours. The fastest hiker took only four and a half hours for the round trip. In particular, Assistant Manager Seung-hee Park successfully made the expedition to Baengnokdam carrying his child, Hyun-jin, on his back. All of us were so proud to see them overcoming difficulties out of a love for the mountain.

After completing this memorable journey, we quenched our thirst with a special beverage made from hulled millet. It wasn't long before we were aboard a plane back to Cheongju, and already missing Jeju Island.





# 우리회사 이런 소식 저런 소식



## Company News



### ECONET 통신원 수첩

### Tidbits from ECONET Correspondents

#### 1) Shared Service System 도입

2000년 4월 (주)남양알로에의 분사로 인해 각 사별로 구축된 인사 및 재무부문의 프로세스 혁신의 필요성과 운영상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Shared Service System 개념을 5월에 도입했다. Shared Service System의 개념은 조직 내 분산된 경영지원부문과 비전략적 활동을 분리하여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핵심 비즈니스 조직으로 운영하는 개념이다. 남양, 남양알로에, 유니젠 경영지원부문의 재무, 자금, 인사를 통합하여 남양 경영전략본부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각 사에 제공 할 예정이다.

#### 2) 조직개편

##### ● (주)남양알로에 조직개편

남양알로에는 특화 분야의 역량 집중 및 기능(마케팅, 연구개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2실 1본부 1연구소로 2본부 1연구소(마케팅본부, 영업본부, 생명과학연구소)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또한 ECONET 시간 명칭 통일을 위해 "실"을 "본부"로 변경하였다.

##### ● (주)남양 조직개편

OEM/ODM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Integration과 High Speed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종전 2본부 7팀 1실에서 2본부 4팀 1실(생산본부-생산기술팀, 연구실, 경영지원본부-경영지원팀, 영업팀, 정보시스템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 3)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 피해동포 돕기에 (주)남양알로에 스킨케어 5,000개 기증

지난 4월 22일 룡천역 참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주)남양알로에는 성의를 모아 스킨케어 5,000개를 5/10(월)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기증했다. 부상을 입은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과 의료설비 제한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감자가루와 술을 버무리며 바르며 (화상)독기와 화기를 뿜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화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스킨케어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보냈다.

▶ 우리모두 북한 용천 동포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 1) Introduction of the Shared Service System

The Shared Service System was introduced in May to innovate the HR and financial affairs processes established at each company since Namyang Aloe's spin-off in April 2000, and to maximize operational efficiency.

Under this system, decentralized management support functions and non-strategic activities are spun off, consolidated and run as a separate core business organization. The finance, capital and HR functions in management support sections of Namyang, Namyang Aloe and Unigen will be consolidated, and Namyang's Management Strategy Headquarters will provide shared services to each affiliated company.

#### 2) Reorganization

##### ● Reorganization of Namyang Aloe

To focus capabilities in specialized areas and enhance such functions as marketing, R&D and sales, Namyang Aloe has shifted from a two-office, one-headquarters, 1-R&D Center arrangement to a two-headquarters (Marketing, Sales), one-R&D center (Life Science Institute) system. In addition, to unify organizational names across the ECONET companies, "Offices" have been renamed as "Headquarters."

##### ● Reorganization of Namyang

As part of efforts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hat can systematically address OEM/ODM, and to pursue integration and high speed, Namyang switched from two headquarters, seven teams and one office to two headquarters, four teams and one office (Production Headquarters-Production Planning Team and R&D Office, Management Support Headquarters-Management Support Team, Sales Team and Information System Team).

#### 3) Namyang Aloe Donates 5,000 Skincare Products to Help North Korean Victims of the Ryongcheon Train Explosion

To help North Koreans suffering from the April 22 disaster at Ryongcheon, Namyang Aloe donated 5,000 skincare products to the Inter-Korean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Foundation and the Korean Red Cross on May 10. Learning that victims were

### ECONET 통신원 수첩

### Tidbits from ECONET Correspondents

#### 4) 2004년 2차 러시아 농장연수

##### 러시아 연수의 목적은?

- A) ECONET 천연물 생산기지에서 도전, 창의 인화정신을 공유하며, ECOENT 조직과 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 체득함
- B) 대자연의 품에 안겨 호연지기를 마음껏 발산하며 협동하고 경쟁하는 자기수련과 문화공동체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ECONET Vision과 Mission을 이해하고 공유함
- C) 러시아 농장 연수는 근무의 연장으로써 결속력 강화와 실천주체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함.

- 인원: 남양 17명, 남양알로에 15명, 유니젠 6명, 경영전략본부 2명, 미국현지법인 1명, 중국현지법인 2명, 러시아현지법인 1명, 컨설턴트 2명.
- 대상기준: 팀장이상 중 전년에 불참자인 경우는 필참, 팀원인 경우는 각 사의 선발기준(우수사원 또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 중심)에 의거해 선발 함.
- 러시아 연수 기간 중에 ECONET 철학, 비전, 미션, 전략 공유와 기업 문화 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출항: 속초항 ~ 자루비노는 6월 22일(화) 오후 15시 출발  
귀항: 자루비노 ~ 속초항은 6월 28일(월) 오후 18시 출발

#### 5) ECONET 러시아농장에 아시아 고속도로 통과 전망

북한 국경인 두만강변에 인접한 러시아 하산군의 크라스코키아에는 ECONET 천연물 생산기지 중 하나인 'UniGen-Russia Bio Mass 농장'이 위치하고 있다. 본 농장은 대단위 '천연물 생산단지'로 650만평(5,265Acre)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며, 황금(Scutellaria), 가시오가피(Siberian Ginseng)와 같은 천연물을 재배 중이다. 부산-중국 및 러시아 하산과 시베리아로 이어지는 아시아 고속도로(Asian Highway)가 우리 생산기지 농장과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ECONET 생산기지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2004년 4월 27일 매일경제신문(mk.co.kr) 기사에 따르면 제60차 아시



not getting proper treatment due to a shortage of drugs and medical facilities, and that they were treating skin burns by applying "a mixture of potato powder and alcohol," Namyang Aloe provided skincare products known to be effective in alleviating skin burns, along with its heartfelt concern.

▶ Let's hope for a quick recovery among the North Korean victims of Ryongcheon!

#### 4) The 2nd Russia Farm Training in 2004

##### The objectives of training in Russia are

- A) To share challenging ideas, creativity and a spirit of harmony, and to lear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CONET organization and members, at the source of ECONET's natural products
- B) To comprehend and share the ECONET vision and mission, and to enhance self-discipline and corporate pride, which encourages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hile revitalizing our energy amid nature's grandeur
- C) To strengthen solidarity and affirm a sense of duty as the torchbearers of achievement by viewing the Russia-based training as an extension of our service.

• Participants : 17 from Namyang, 15 from Namyang Aloe, 6 from Unigen, 2 from Strategy & Planning office, 1 form Univera Holdings(U.S.A), 2 form Hainan Aloecorp(China), 1 form Unigen Russia(Russia), 2 Consultants.

• Qualifications : Team leaders or higher management who couldn't participate last year; team member-level employees were be selected according to such criteria as high performance 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company.

• The agenda for Russia Training includes sharing the ECONET philosophy, vision, mission and strategy, forging a corporate culture and many other useful programs.

• Departure : Leave at 15:00 on June 22 from Sokcho port ~ Zarubino  
Return: Leave at 18:00 on June 28 from Zarubino ~ Sokcho port

#### 5) Asian Highway Will Likely Pass Through ECONET's Russia Farm

The UniGen-Russia Biomass Farm is located in Kraskino, which borders the Tumen River along the North Korean border. Spanning 6.5 million pyeong (5,265 acres), the farm is one of ECONET's cultivation sources for natural produce. Currently, Scutellaria and



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연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32개국을 연결하는 "아시아고속도로(Asian Highway)" 구축 프로젝트가 정부간 협정을 통해 본격화한다.

6) 남양알로에 대표 도메인 변경 안내건

(aloe4you.com→namyangaloe.com)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aloe4you.com이메일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5월 1일 이후부터 남양알로에에 보내시는 메일은 amyangaloe.com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 kaoh@aloe4you.com→ 5/1부터 kaoh@namyangaloe.com으로 변경

7) ECONETIAN들의 입사 1년차 환영회식 자리

지난 4월 25일에 있었던 ECONETIAN들의 입사 1년차 환영회식에서 이병훈 사장님과 신입사원들의 화기에애한 행복한 소식을 전합니다.



ECONET 전사소식

(주)남양알로에 소식

1) 2004/4/07 팀부장 전진대회

남양알로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Action Win-Win 2004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4/7에 대전충무체육관에서 팀부장 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행사는 비타민복합 보충용 신제품인 "에너벨" 발매식을 성황리에 선보였고, 경영관리자상, 우수관리자상, 증원수기상 등을 수상자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2) 남양알로에 독서통신교육 실시(3.10 ~ 6.9)

남양알로에는 계층별 경영교육의 일환으로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3개월간) 독서통신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임직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며, 독서하는 좋은 습관 배양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임원과정, 고급관리자과정, 중간관리자과정, 사원과정으로 구분되며 본인의 교육과정 내에서 원하는 교재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독서 후 도서는 개인이 소유하며, 교육수료 시 교육학점 1학점이 부여 된다. 특히, 3개월 과정 수료 후 성적 우수자에게는 시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2003년에는 10명의 성적 우수자에게 남양알로에 제품 및 국민관광상품권 등을 시상한 바 있다.

그 밖의 소식들

1) 백일을 축하합니다.

박선혜 사원의 귀여운 아들의 100일이 지났습니다. : 4월 19일에 전직원이 100일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길 기원합니다



Siberian ginseng are produced there.

A planned Asian Highway, which will run from Busan through China, Russia and Siberia, will likely be linked to the biomass farm, which will raise the property's commercial value. In addition, Russia's Far East is expected to become a strategic region in the world economy.

According to an article in Korea's Maeil Economic Daily (mk.co.kr) dated April 27, 2004, the "Asian Highway" development project connecting 32 Asian nations will be discussed in earnest at the 60th annual ESCAP meeting, at which time an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project will be signed.



6) New domain for Namyang Aloe

E-mail service via aloe4you.com, which was provided temporarily during the transition from aloe4you.com to namyangaloe.com, has now been shut down. Beginning May 1, e-mails addressed to Namyang Aloe are available only through namyangaloe.com.  
ex) kaoh@aloe4you.com: will change to kaoh@namyangaloe.com as of May 1

7) A welcome dinner for first-year ECONETIANs

A welcome dinner for first-year ECONETIANs. The CEO and new hires sharing some good times together at an April 25 welcome dinner for first-year ECONETIANs.



ECONET-Wide News

Namyang Aloe News

1) Team Leader and Senior Manager Rally on April 7

The company held a Team Leader and Senior Manager Rally at Daejeon Chungmu Stadium on April 7 to reaffirm the identity of Namyang Aloe members and to share in the vision of Action Win-Win 2004. At the event, a new multivitamin supplement called Enerbelle was successfully launched, and winners of the Business Management Award, Outstanding Manager Award and Best Recruiter Award were feted.

2) Namyang Aloe Launches Remote Reading Training (March 10 ~ June 9)

As part of its segmented management training, Namyang Aloe launched a three-month-long remote reading training program on March 9. The training was introduced in 2003 to support employee

2) 출산을 축하합니다.

4/23 영업기획팀 물류반 오성균씨가 득남을 했습니다.

3) 6/4~6/5 (주)남양알로에 임직원 연수

단합도모를 통한 사기진작과 하반기 전략방향 설정을 위해 6/4~6/5 월 악산(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야간산행을 하며 연수를 가질 계획이다.

4) "알로에 진실, 하나 더!" 캠페인 임직원 가두 캠페인 참여

[4월 22일 D-Day - Happy Partnership 2탄] 올해의 경영 방침인 Action Win-Win 2004에 맞추어 "본사-대리점-설계사"가 통합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기 위한 "알로에진실 하나 더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매출확대와 증원을 목표로 매월 주제를 가지고 올 연말까지 시행하게 될 예정이며, 설계사의 영업활동강화, 아토피 하나 더, 전국 대리점 가두 캠페인, 대리점에서의 고객초청행사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고, 4월 22일(금) 본사 직원들이 Action Win-Win의 취지로 대리점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11일의 1차 "Happy Partnership"에 이은 2차 "Happy Partnership"입니다. 새로운 대리점, 새로운 영업담당과 함께 다양한 대리점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막강한 현장경험을 통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Get Naked!의 시간이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주)남양 소식

1, (주)남양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ECONET 정보화 전략 차원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정확한 Data에 의한 전략경영을 실천 및 OEM/ODM 경쟁력 확보와 더 나아가 천연물을 이용한 세계 1위의 제조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ERP (전사적 자원관리) 개발 구축을 시작하였다.

2. 5/29~5/30 (주)남양 워크샵

임직원의 단합과 성공적인 ERP 과업수행을 위한 토론회를 5/29~5/30 에스원 천안연수원에서 가졌으며 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유니젠 소식

1. 국제특허(PCT) 출원

혈액순환개선제 (제PCT KR2004-000708호)  
"COMPOSITION COMPRISING BAMBOO EXTRACT AND THE COMPOUNDS ISOLATED THEREFROM SHOWING TREATING AND PREVENTING ACTIVITY FOR INFLAMMATORY AND BLOOD CIRCULATION DISEASE"

2. 보건복지부 국가과제 신청

지난 4월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여 5월 10일 현재 현재 2차 심사중이다. 신청 연구개발 사업분야에는 약 30억원이 배정되어 1차 서류 심사후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후 최종 과제를 선정될 예정이다. 유니젠은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하여 지난 5월 3일 2차 발표평가를 마쳤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구비는 2년간 총 3억원 규모로 유니젠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 과학기술부, 농림부에 이어 보건복지부 연구사업에도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self-growth, enhance business functions and help staff develop better reading habits.

Each trainee can select his or her reading material for the curriculum, which is unique for executive, senior manager, middle manager and line staff. Trainees may keep the books, and will receive one "training credit" for completing the course. High performers in the course will receive prizes. Last year, 10 high performers were each awarded Namyang Aloe products and a National Tourism gift certificate.

Miscellaneous

1) Happy 100th day!

The adorable son of Sun-hye Park celebrated his 100th day since birth. The entire staff relished his 100th day rice cakes on April 19, and also shared their hopes that he would grow into a healthy, bright boy.



2) Congratulations on a New Baby!

Seong-Gyun Oh is ecstatic over his baby boy, born April 23. Seong-gyun is with the Logistics Unit of the Sales Planning Team. Congratulations, Dad!

3) 6/4~6/5 Namyang Aloe Staff Training

As an event to boost working morale through strengthened solidarity and to set the strategic direction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 staff training is planned on June 4~5 which will include night mountain trekking at Worak Mountain (Suanbo Park Hotel).

4) Executives and Employees Join in "One More Aloe Truth" Street Campaign

(D-Day on April 22-2nd Round of Happy Partnership)  
The "One More Aloe Truth" campaign, an effort to forge a marketing communication partnership among the head office, agencies and planners, is now under way, in line with this year's "Action Win-Win 2004" business policy, With the aim of boosting sales and recruitment, the campaign will proceed until year's end, with a different topic for each month. Some activities on the agenda are enhanced sales activities by planners, one more for atopy, nationwide street campaigns by agencies and open-house events at agencies. On April 22, head office staff joined agencies in the campaign, in the spirit of "Action Win-Win." This second round of "Happy Partnership" - following the opener on March 11-was an ideal forum for surveying the enthusiastic members of several agencies, by bringing together new agencies and new sales staff. Although brief, the meeting was thought by participants as a great time to bare themselves-to learn to understand and trust each other through the power of a field activity.



3. Supply Side Show (UPI 참가)

5월 6일부터 8일 까지 미국에서 개최되는 Supply Side Show West에 연구소장, 팀장3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국제 행사에는 미국 Unigen West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전세계에서 참여한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Unigen East 와 West가 공동으로 마케팅 하는 모습이 Global unigen 입을 실감나게 한다

4. Unigen Global Summit

2002년부터 시작된 제 4 차 Unigen Global Summit 이 5월 10일부터 12일 까지 미국 UPI에서 열린다. 양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특히 이번 Summit 에서는 Unigen 마케팅 전략과 혈액순환개선제 미국 임상실시전에 대한 집중 토론을 할 예정이다. 6월부터 약 6개월간 시행 예정인 미국임상실험은 약 3억원 이상의 연구비와 그간 유니젠의 역사가 함께 투여될 만한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5. (주) 유진텍 연구회의

생명공학연구원내 벤체기업인 (주) 유진텍과 Aloe 당단백질 클로닝 위탁 개발과제 대한 연구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003년 10월부터 조건부 협약으로 위탁한 과제에 대해서 1차 DNA Sequencing 결과에 결과 보고 회로 향후 내부적으로는 대량생산 가능성등의 전략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그 밖의 소식들

1. 신호범(Senator Paull H. Shin, PH.D) 의원 유니젠 방문

지난 4월 28일 미국의 워싱턴주 상원의원인 신호범(Senator Paull H. Shin, PH.D) 의원이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희경 이사장과 함께 유니젠 병원을 견학 하였다.



2. 식목행사

지난 4월 1일 식목일을 기념한 1인 1목 식목행사가 있었다. 이 날 심어진 나무는 감나무, 잣나무, 밤나무 등 약 40여 그루에 달하였고, 임직원들을 포함한 전직원들이 본인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아주고 연구소 건물 주변에 정성스레 심었다. 창립 이래로 처음으로 이루어진 식목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던 행사였다. 유니젠의 미래와 함께 할 멋진 수목으로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3. 5/14 제3회 식품안전의 날-조태형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 5월 14일 있었던 제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유공자 포

Namyang Company News

1. Namyang Introduces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Namyang recently launched an ERP development project. Its main objectives include: 1) to practice strategic management based on accurate data, using an integrated database at the ECONET IT-strategy level; 2) to secure OEM/ODM competitiveness and 3) to renew itself as the world leader in the natural products industry.

2. 5/29~5/30 Namyang Workshop

A workshop to promote solidarity among staff members and carry out the ERP project successfully was held at the S1 Training Center in Cheonan on May 29-30.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new our resolve to secure independent competitiveness.

Unigen East News

1. PCT Application Submitted: Blood circulation remedy agent (No. PCT KR2004 -000708)

"A COMPOSITION CONTAINING BAMBOO EXTRACT AND COMPOUNDS ISOLATED THEREFROM IS SHOWING PREVENTIVE AND TREATMENT ACTIVITY FOR INFLAMMATORY AND BLOOD CIRCULATION DISEASES."

2. Applicat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Projec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pril, Unigen submitted an application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for a health &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As of May 10, the application had reached the second round of screening. Final project selection will be based on both the first round of screening, which involved document review, and the second round, which includes a presentation by the project leader. About 3 billion won has been budgeted for the submitted R&D project, which has a research budget of about 300 million won for two years.

After passing the first screening, Unigen made its presentation on May 3 and now awaits the final results. A successful outcome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Unigen to partake in a MOHW development project, following previous work at the national R&D project level with Korea's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an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3. Supply Side Show (participation by UPI)

Unigen was represented by its Institute Director and three team leaders at the SupplySide East International Trade Show, which took place from May 5 to 7 in Baltimore, U.S. It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the U.S.-based Unigen West also participated in this international event. The sight of Unigen East and West's joint marketing efforts, targeting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makes us realize how truly global Unigen is.

4. Unigen Global Summit

The 4th round of the Unigen Global Summit, which began in 2002, took place at Univera Pharmaceuticals Incorporated in the US from

상식이 있었는데, 이날 조태형 유니젠 대표이사께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1981년 서흥갑셀 제약 사업부에 입사해 남양알로에 전무이사겸, 유니젠 부사장, 남양그룹 기술총괄 부사장(CTO) 등을 이어서, 2003년부터 유니젠 대표이사를 역임해 오고 계신다. 97년부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술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3년 공포 및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법령 제정 등에도 참여해 법제화에 기여했으며 식약청장이 승인하는 표시·광고 심의위원으로도 활약, 제도 정립에 크게 기여하셨다. 그동안 국내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 활약해온 성과들의 결과로 95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98년 과학기술부 장영실상, 99년도부터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장 수상이외의 수많은 공적 및 업계에 기여한 공이 금년 업계최초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얻게되었다.



알로콧 소식

드디어 Lyford, Texas에 오랜 숙원이던 생산공장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지난 3월 16일에 계약체결, 3월 26일 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후 오늘 현재(4월 23일) 생산공정 및 재고창고의 위치까지 콘크리트 바닥이 완성되었다. 건물면적 18,400SF(515평) 에 총 공사비는 건물공사 \$1M(100만불)에 전체 농장 조성계획 \$2.4M(240만불)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부사장 Mr. Jerry Pilgrim과 함께 concrete slab을 만드는 현장

오아시스 현지법인 소식

1. 커뮤니케이션 팀, "세계 속의 오아시스 얼굴" 창조

매니저 Mark Metzler, 그래픽 디자이너 Helen Scanu, 카피라이터 Donna Sandahl은 우리의 "외모와 느낌"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독창적 개념화를 통해 본사의 혁신 제품 AgelessXtra의 명칭, 역동적인 새 포장, 부수적인 마케팅 자료를 창출했다. 사보 "Ageless Living," 오아시스 교육훈련 안내서, 오디오 자료, 제품 브로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담하고 호소력 짙은, 그러면서 역동적인 AgelessXtra 포장은 앞으로 오아시스 제품라인 전반에 스며들게 될 것이다.

2. 오아시스 제품유통 팀, 수요충족을 위한 끝없는 노력

매니저 Ed Clark, 코디네이터 Tom Hansen은 AgelessXtra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다. 두 사람은 오아시스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예측, 구매, 재고관리, 보관작업, 선적을 책임지고 있다.

May 10 to 12. At the summit, Unigen's marketing strategy, U.S.-based clinical testing of Unigen's blood circulation remedy agent and development of a bilateral R&D network were discussed in-depth. The clinical tests, scheduled for a six-month period starting in June, will be an important milestone in Unigen history. Over 300 million won has been already invested toward this research.

5. Research Meeting With Eugentech

A research meeting on the aloe glycoprotein cloning development project is scheduled with Eugentech, a venture firm under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At the meeting, preliminary results of DNA sequencing related to the project will be presented. Internally, the direction on the potential for mass production will be decided. The joint project was outsourced in October 2003 on a conditional basis.

Miscellaneous

1. Senator Paull H. Shin Visits Unigen

Accompanied by Helen Hee-Kyung Chung, Chairman of the Chungkang Educational Foundation, United States Senator Paull H. Shin of Washington State toured the Unigen R&D Center in Byeongcheon, South Chungcheong province on April 28.



2. Arbor Day Event

In celebration of Korea's Arbor Day, the company sponsored a "one tree per person" event on April 1. Over 40 trees, including persimmon trees, chestnuts and large pines were planted with care on the grounds of the Research Institute. Each of the trees was tagged with the name of a staffer, which included executives. The auspicious event marked the first tree-planting event since the company's founding. We hope these newly planted trees will mature into a verdant grove, in unison with the future of Unigen.

3. Unigen CEO Jo Won the Presidential Award on the 3rd Food Safety Day

At a ceremony celebrating the 3rd Food Safety Day on May 14, in which winners of Orders of Merit were announced, Unigen CEO Tae-hyung Jo won the Presidential Award. Beginning his career at the Pharmaceutical division of Seoheung Capsule in 1981, Cho went on to serve as managing director at Namyang Aloe, vice president at Unigen and chief technology officer at Namyang Group. He took up his latest post as CEO of Unigen in 2003. While serving as a technology adviser at the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since 1997, he helped in shaping the legislation for the Health Supplement Law, which went into effect in 2003. Serving as a screening officer, he also played a constructive role in defining



3. 오아시스 제품개발 팀, 혁신 고지 점령

매니저 Preston Keeler, 코디네이터 John Johnson은 AgelessXtra를 통해 오아시스 제품 출시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RTD(ready-to-drink) 샘플과 편리한 고농축 음료인 AgelessXtra는 핵심 경쟁제품보다 ORAC(항산화 효능수치)가 5배 높으며, 열수축(heat-shrunked) 라벨을 선보인다.

4. 커미션 팀, 새로운 보상계획 관련 교육훈련 실시

매니저 Rob Kalnitsky, 판매세 및 커미션 관리자 Tracy Haines, 고객 서비스 커미션 전문가 Greg Mecillas 팀은 새로운 보상계획 혜택에 대한 교육훈련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5. 오아시스 콜 센터, 기록 갱신

3월과 4월, 오아시스 콜 센터가 대량주문 및 전화 수신 수 면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매니저 Rose Petrosky를 중심으로 한 콜 센터는 4월 초 하루에 600건 가까운 전화를 접수했다. 최근 Petrosky는 Debra Christensen 및 Paul Zasadny와 함께 입사 5주년을 맞았다.

UPI 현지법인 소식

1. 유피아이(Unigen-West) 위더(Weider)와 대형 라이선스 계약체결  
유피아이는 주력상품인 유니베스틴 판매를 허가하는 대형 계약을 2004년 5월 18일 위더 뉴트리션과 체결하였다. 위더는 관절 강화 및 유연성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의 선두주자로, 주력상품인 "Move Free"는 관절 분야에서 미국 제3위의 건강식품으로 유명하다.

라이선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지속적인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허가된 지역은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이며 식품, 의약 및 대형시장이 포함된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유피아이와 유니젠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 계약에 따르면 위더는 향후 5년동안 최소 58,000 KG의 유니베스틴을 구매할 예정이며, 위더의 첫 상품 출시는 2004년 4분기으로 예상된다. 금번 계약은 ECONET의 모든 분야에 활발한 협력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이다.

2. 유피아이(Unigen-West) 파나마대학교와 공동연구 협력구축

첨단 연구소로서 특허 및 생체조직에 유효한 원료를 건강식품 및 제약업계에 공급하는 유피아이(Unigen-West)는 파나마 대학의 제약연구센터(CIFLORPAN)와 식물채취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양사는 원주민들이 전수하는 부족의학 식물을 수집하여 제약, 건강, 미용 및 기능식품 개발에 활용될 성분 확인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유니젠은 파나마의 식물추출물에 선진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생물학적, 생화학, 유전학적 모델이 포함된 연구실험을 할 예정이다.

현재 유피아이의 과학분야 부사장이 치 지아 박사는 "파나마는 세계에서 25번째 식물재료가 많은 나라로 생물학적으로 다양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물이 자라는 광도, 습도와 온도를 가진 열대림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제약분야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을 체계화하여 저명한 마하

a system for requiring approval of the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r product descriptions and advertisements. As a result of his achievements in the Korean food supplement industry, he won the Minister of Health & Welfare Award in 1995, Jang Yeongsil Award of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in 1998 and the President Award of the Korea Food Supplement Association consecutively since 1990. His outstanding performance and contribution to the industry led to the honor of winning the Presidential Award for the first time in this sector.



Aloecorp News

Construction of a production plant, a long-cherished dream, has finally been launched in Lyford, Texas. The contract was signed March 16 and construction began in earnest on March 26. As of April 23, a concrete slab has been laid down on the future structur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facilities and inventory warehouse. The construction cost for the building, with a total floor area of 18,400 square feet (515 pyeong), is estimated at \$1 million. The total budget for the farm development plan is about \$2.4 million.



Concrete Slab- With Vice President Jerry Pilgrim at the site

Oasis News

1. Communications Team Creates the "Oasis Face to the World"

Manager Mark Metzler, Graphic Designer Helen Scanu and Copywriter Donna Sandahl produce our "look and feel." The team conceptualized and created the name, dynamic new packaging and collateral marketing materials for our breakthrough product AgelessXtra. These include our Company magazine "Ageless Living," the Oasis training guide, audio informational materials, and product brochures. The bold, appealing and vibrant look of AgelessXtra packaging will permeate the entire Oasis product line as we move forward.

2. Oasis Product Distribution Team Meets the Demand

Manager Ed Clark and Coordinator Tom Hansen have been very busy recently meeting the increasing demand for AgelessXtra. Ed and Tom are responsible for forecasting, purchasing, inventory, warehousing and shipping all Oasis products.

버 피 굽타 박사와 그의 연구진과 함께 연구하여 기대가 큼니다"말했다. 파나마대학교 약학대학에서 CIFLORPAN의 수석 감독인 굽타 박사는 "진기하고 고유한 제품개발로 세계의 건강을 추구하는 유니젠과 협력하며 지식을 공동소유하게 되어 우리 연구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라고 전했다. 양사는 "식물다양성 유엔협약", 일명 "식물다양성조약", 을 준수하며 파나마 열대의학식물의 보전 및 지속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전수, 전통적인 지식의 가치를 인식하여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도모에 의지를 표명하였다. 금번 협력은 3000종의 의학식물, 5000 이상의 식물추출물, 200,000 이상의 분획물과 복합물을 소유한 유니젠의 식물도서관을 극적으로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인간에게 유익한 진기하고 생체에 반응하는 자연제품을 개발 및 발명을 주도할 것이다.

3. 국립암센터(NCI)와 연구협력 체결!

2004년 2월 20일 - 유니젠이 항고형 종양성 화합물 분리, 확인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약업계의 실시권 허여 및 약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암센터(NCI)와 연구협력을 체결했다. 본 물질이전계약(MTA)은 소스 식물 생산국을 포함한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며 1년 내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젠은 본 MTA의 일환으로 NIC 천연물 자원에서 36개 항고형 종양 식물 추출물을 확보하고 자사의 PhytoLogix 기술 플랫폼을 이용해 고효율 정제(HTP: High-Throughput Purification) 및 확인을 이행하게 된다. 유니젠은 분리된 천연 화합물을 조세핀 포드 암 센터(Josephine Ford Cancer Center)에 보내 정상 골수 줄기세포에서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활성 항고형 종양 화합물 확인을 위해, 선정된 억제제를 유방, 결장, 폐 종양세포에 한층 자세하게 검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NCI의 고품종양 억제 식물 추출물은 헨리포드 헬스 시스템(Henry Ford Health System) 소속 조세핀 포드 암 센터가 NCI와의 물질이전계약 일환으로 확보한 5,000 종 이상의 NCI 천연물 검사를 통해 발견 한 것이다. 포드 암 센터는 NCI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매년 수천 종의 NCI 천연물 샘플을 검사하고 "히트" 추출물을 발견할 경우 유니젠에 보내 분리 및 확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상기 세 당사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상전 및 인간 임상 시험에서 선도 화합물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FDA 승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 할 것이다.

4. 조세핀 포드 암 센터와 UPI의 NCI 물질 활용 지원 합의

조세핀 포드 암 센터의 신약 발견 및 개발 담당자인 Frederick Valeriot 박사는 2003년 2월 13일 유니젠을 방문, 브룸필드 R&D 시설을 견학하고 센터의 항고형 종양 연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측은 지속적인 유니젠 PhytoLogix 물질 검사를 통한 항암 약품 개발, 2004년 소규모 기업 혁신연구(SBIR) 보조금 지원 신청, 정기적인 상호 방문, 활성중에 기반 한 UPI의 NCI 물질 활용 지원에 합의했다. 2003년 포드 암 센터는 유니젠과의 협력을 통해 2,000 종 이상의 유니젠 PhytoLogix 식물 추출물을 검사했다. 그 후 유니젠은 본 결과에 근간해

3. Oasis Product Development Hits Innovation High Point  
Manager Preston Keeler and Coordinator John Johnson succeeded in the most successful product launch in Oasis history with the introduction of AgelessXtra. The ready-to-drink samples and convenient high value concentrates highlight more than five times the ORAC value of its key competitor, and heat-shrunked labels.

4. Commissions Department Training on New Compensation Plan

Oasis Associates are keeping Manager Rob Kalnitsky, Sales Tax and Commissions Administrator Tracy Haines and Customer Service Commissions Specialist Greg Mecillas very busy these days. The team is training on the benefits of the new compensation plan.

5. Oasis Call Center Breaking Records

The Oasis Call Center set records for volume orders and number of calls taken during March and April. Under the direction of Manager Rose Petrosky, the call center took nearly 600 calls in a day in early April. Petrosky recently celebrated her fifth anniversary with the company, as did Debra Christensen and Paul Zasadny.

UPI News

1. UNIGEN SIGNS MAJOR LICENSE AGREEMENT WITH WEIDER NUTRITION, INC.

On May 18<sup>th</sup>, 2004 Unigen Pharmaceuticals Inc. signed a major licensing agreement with Weider Nutrition for Uninvestin®. Weider Nutrition is a leading manufacturer of joint health and mobility products. Their major retail product is called Move Free® and is the 3rd largest volume dietary supplement for this 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license is for a period of five years, with ongoing renewal periods. The licensed market is the food, drug and mass market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Mexico. This is the largest market in the United States and will help secure a bright future for both Unigen East and Unigen West. Based on the minimum purchase volumes committed to in the contract, Weider will purchase at least 58,000 kg's of Uninvestin over the five year period. Their first product will be launched in the fourth quarter of 2004. This will be a great partnership and generate great business for all levels of the ECONET

2. Unigen Pharmaceuticals and University of Panama Form Collaboration Alliance

Broomfield, CO-May 20, 2004-Unigen Pharmaceuticals, Inc., a lea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y and supplier of proprietary, biologically active plant-derived ingredients to the natural products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has announced entering into a plant collection agreement with the University of Panama's School of Pharmacy and Center for Pharmacognostic Research on Panamanian Flora (CIFLORPAN).



14개 선도 식물 중 효력 있는 9종의 항고형 종양 화합물을 분리, 확인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7종의 선도 화합물은 다음 단계인 임상전 평가를 위해 포드 암 센터로 옮겨졌다. Frederick Valeriote 박사에 따르면, “유니젠과 수년 동안 함께 일 해 오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새로운 천연 화합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력이 늘었다. 포드 암 센터의 목표는 인간 종양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항암 약품을 발견, 개발, 상용화 하는 것이며, 유니젠 및 NCI와의 협력을 통해 발견과정 속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5. UPI의 새로운 피부 미백제 “티로시나제” 실용 특허 신청 준비중**  
Bioassay 주도하에 진행된 유니젠의 새로운 피부 미백제 분리 및 확인 프로젝트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유니젠이 새롭게 확인한 티로시나제 억제 천연 화합물 유형은 기존 피부미백 화합물로 잘 알려진 Kojic 산보다 효과가 50배 이상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유니젠은 15종의 유도체를 합성했으며, 본 활성 화합물에 대한 분자 모델링 분석을 완료했다. 현재 새로운 티로시나제 억제제를 B-16 및 기타 시험관내 모형에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실용 특허 신청은 5월에 이루어 질 예정이다.

**6. Primus에 Immuno20 공급 & Immuno 10의 상용화**  
2004년 4월 22일 역사상 최초로 Immuno 20이 UPI의 소중한 실시권자 중 하나인 Primus에 공급되었다. UPI는 수 년에 걸쳐 Immuno 20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상당히 제한된 양의 Immuno 10이 남양에 제공되어 면역제품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Immuno 10은 시험 및 샘플링을 위해 비계열 기업에도 제공되었으며, 현재 시장에서 완전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Immuno 10은 천연, 비독성 특허 물질로서 UPI가 발견, 분리하여 특허권을 지니고 있다. Immuno 10은 피부의 자연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역행 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피부의 면역 및 아교질 재생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Immuno 10 고유의 화학 구성은 건강한 피부세포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분자 및 시토키인 수치를 조절한다.

**중국 현지 법인 소식**

**1. 하이난 알로에 농장 만들기 - 산책로**

중국 하이난 알로에가 그 첫 장으로 지난 1월 알로에 종식을 시작한 이래 아름다운 알로에 관광 농원과 실용성을 겸비한 하이난 알로에 농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중인 농장 부지내 열대 수목들을 이용한 산책로의 일부입니다.



CIFLORPAN and Unigen will work side by side to collect plants that have documented ethnomedical uses by native tribes in order to identify lead compounds for the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nutraceutical, cosmeceutical and functional food products. Unigen will apply natural product chemistry and high throughput screening to fractionate the Panamanian plant extracts, which will be further tested in its laboratory using appropriate biological, biochemical, genomic, and proteomic models.

“Panama is among the top 25 most plant-rich countries in the world, with rainforests that provide a perfect level of light intensity, humidity and temperature to yield unique and diverse plants containing the most biodiversity and high nutrient content,” stated Dr. Qi Jia, Unigen’s Vice President of Scientific Affairs.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University of Panama scientific staff and Dr. Mahabir P. Gupta, a highly acclaimed expert in his field and renowned for his role in utilizing biodiversity as a source of pharmaceuticals.”

According to Dr. Gupta, Principal Investigator and Director of CIFLORPAN at the University of Panama’s School of Pharmacy, “Our scientific team is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to share knowledge and collaborate with Unigen on a project designed to create novel and indigenous products addressing the health needs of the world.” As coordinator of the Latin American Program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YTED), Dr. Gupta was recently given a Board Archives Award by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for his exemplary efforts to develop pharmaceuticals from natural resources and to promote scientific advances across Ibero-American countries.

Both Unigen and CIFLORPAN operate in full compli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Biodiversity, also known as the Biodiversity Treaty, with a commitment to promoting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ropical medicinal plants native to Panama, and providing technology transfer, benefit sharing and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raditional knowledge to the source country, as well as supporting economic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This collaboration will help dramatically expand Unigen’s already impressive PhytoLogix™ ethnomedical plant library that currently includes more than 3,000 medicinal plants, over 5,000 plant extracts and 200,000 fractions and compounds. The output of this project will lead to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novel, bioactive natural products to benefit mankind.

**3. Entering collaborative research with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February 20, 2004- Unigen Pharmaceuticals, Inc. has entered into research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to isolate and identify anti-solid tumor compounds for ultimate licensing and drug development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s part of this Material Transfer Agreement which protects the rights of all the parties involved, including the countries of origin of the source plants, and which is expected to net positive results within a year, Unigen will obtain 36 anti-solid tumor plant extracts from NCI’s Natural Products Repository and will utilize its PhytoLogix™

**2. (주)남양알로에 우수설계사 해남도 방문**

지난 4월18일부터 4월 21일까지 남양알로에 우수설계사 스몰여섯분이 이곳 하이난 알로에를 방문하여 하이난 알로에 알로에농장 및 일월만 부지를 관람하였습니다



**3. 하이난 알로에 전직원 농장 체험**

알로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중국 하이난 알로에 전 직원이 가진 하이난 알로에 농장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속감도 고취시키고 단합회 겸 저희는 한달에 두 번씩 농장에 내려가 흙의 소중함을 느끼고 온답니다. 맑은 공기도 마시고 농장에 풀도 뽑고 단결심도 쌓이고 소풍 나온 기분으로 다녀온답니다. 물론 점심은 농장내에서 맛있는 국수로 먹지요.



**유니젠-러시아 현지 법인 소식**

**1. Bon-Sam & Co의 최고 관리자 변경건**

5월1일부로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 시도렌코(Vladimir Petrovich Sidorenko)씨가 러시아 현지법인의 하나인 BonSam & Co.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 가시오가피 생장에 거는 큰 기대**

5월8일 묘목식재 완료한 가시오가피 10,000주가 5월 15일부터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여 19일 까지 99%정도의 묘목에서 새싹이 나왔습니다. 뿌리의 정착을 위하여 단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0일 오후부터 21일 금일 오전까지 단비가 촉촉히 내려 가시오가피 생장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 직원들 모두 묘목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원모 이사-저는 농장에 있는 날 매일 아침마다 가시오가피 밭(13헥타르)을 다니며 가시오가피 숨결을 느끼곤 하였는데 비를 기다리던 20일은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가시오가피 곁에 있었습니다. (너무도 기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3. ECONET 연수의 차질없는 준비!**

농장에서는 비가 오면 영농일을 못하기때문에 6월22일 ECONET직원 연수 관련하여 손님 맞이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직원들 연수시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 러시아의 출입사전허가의 냉전 체제 분위기**

러시아는 1993년 국경지역 출입사전허가와 관련된 법이 있었는데 2개월 진행하다가 중단된 법을 금년 5월8일부터 부활시켜 출입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자국민들도 허가를 받고 출입을 해야합니다. 다시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듯 한 분위기입니다.

technology platform to carry out high-throughput purification (HTP) and identification. Unigen will submit the isolated natural compounds to the Josephine Ford Cancer Center for further screening of these selective inhibitors against breast, lung and colon tumor cells for the identification of active anti-solid tumor compounds that do not create toxicity in normal bone marrow stem cells. The NCI’s solid tumor inhibitory plant extracts were discovered by the Josephine Ford Cancer Center, a division of the Henry Ford Health System, after screening more than 5,000 plant extracts in NCI’s Natural Products Repository also acquired as part of 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between the Center and the NCI. The Ford Cancer Center will continue to work with NCI and screen thousands of samples per year from NCI’s library and identify “hit” extracts that it will then provide to Unigen for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All three parties will work together to further pursue the lead compounds in preclinical and human clinical studies, which may lead to FDA-approved therapeutic agents.

**4. The Josephine Ford Cancer Center and UPI agree to support NCI for materials research**

Dr. Frederick Valeriote, Director of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at Josephine Ford Cancer Center, visited Unigen on February 13, 2004. At his visit, Dr. Valeriote toured the R&D facility at Broomfield and gave a seminar for anti-solid tumor research at Ford Cancer Center. Both institutes agreed on continued screening of Unigen’s PhytoLogix library for anti-cancer drugs, filing SBIR grant applications in 2004, visiting each other regularly, and helping UPI to access NCI collections based on the active genera. In 2003, the Ford Cancer Center worked with Unigen and completed the screening of more than 2,000 plant extracts from Unigen’s PhytoLogix™ ethnomedical plant library. Based on these results, Unigen has since completed the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nine potent anti-solid tumor compounds, generated from 14 lead plants. Seven lead compounds have been moved into the next phase of preclinical evaluation at the Ford Cancer Center. Dr. Frederick Valeriote said, “I have worked with Unigen for several years and am impressed with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ies to find novel natural compounds in a relatively brief period of time. The goal of the Josephine Ford Cancer Center is to discover, develop and commercialize new experimental anticancer drugs targeted against human tumors, and we are confident that this collaboration with Unigen and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will significantly accelerate the discovery process.”

**5. UPI prepares a patent application for its new skin-whitening agent “tyrosinase.”**

Bioassay directed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a novel skin whitening project at Unigen has made a significant breakthrough. Unigen has identified a novel class of natural compounds with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ies that are more than 50 times more potent than the well-known skin whitener compound, Kojic acid.



Unigen has synthesized 15 derivatives and completed molecular modeling analyses of the active compounds. Further testing of the novel tyrosinase inhibitors on B-16 and other in vitro models are in progress. A utility patent application will be filed in May.

**6. Supply of Immuno 20 to Primus and commercialization of Immuno**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mmuno 10 was shipped on April 22, 2004 to Primus, one of UPI's valuable licensees. UPI has been working and developing Immuno 10 for many years and, at this time, a very limited amount of Immuno 10 was provided to Namyang for immune product. It was also sent to nonaffiliated companies for testing and sampling. Now it is fully commercialized on the market.

Immuno 10 is a proprietary, all-natural, non-toxic substance discovered, isolated, and patented by UPI. Immuno 10 has been proven to retard and reverse the skin's natural aging process. Immuno 10 works by enhancing immune and collagen renewal functions in the skin. Its unique chemical make-up controls the level of important molecules and cytokines that support the growth of healthy skin cells.

**Chinese Subsidiary News**

**1. Creating an aloe farm at Hainandao**

A walkway lined with tropical trees  
Since planting their first aloe plant in January, Aloecorp's China Office in Hainandao has created a walkway using tropical flora taken from the farm site. This is part of an effort to make the aloe farm attractive for tourism as well as being a working aloe plantation



**2. High-performing Planners of Namyang Aloe Visit Hainandao**

Twenty six high-performing planners at Namyang Aloe visited Aloecorp's Hainandao site from April 18 to 21, where they toured the aloe plantation and Riyue Bay site.



**3. Staff of Aloecorp Hainandao Experience an Aloe Plantation**

The entire staff of Aloecorp Hainandao, which is writing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the aloe industry, enjoyed a field trip to the Jiaxin Town plantation. Twice a month, office staffs visit the farm to build their team spirit and sense of belonging with the company. While in the field,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enjoy lunch at the farm's cafeteria, pull some weeds, breathe in the clean air and gain an appreciation for the importance of the soil



**Unigen-Russia News**

**1. New CEO at Bon-Sam & Co**

Effective May 1st, Bladmir Petrovich Sidorenko has assumed the position of CEO at BonSam & Co., one of our subsidiaries in Russia.

**2. High hopes for the growth of Siberian ginseng**

Ten thousand saplings of Siberian ginseng, which were planted on May 8, began budding on May 15.

As of May 19, about 99 percent of saplings were showing buds. We were hoping for timely rainfall so the sapling roots could settle down, safe and sound. The arrival of long-awaited rains on the afternoon of May 20, which continued to the next morning, buoyed our hopes for the growth of Siberian ginseng.

The entire staff of the farm are excited as they smooth down the saplings.

※ Wonmo Koo - Every morning at the farm, as I walk around the 13-hectare ginseng field, I try hard to absorb the vitality of the ginseng. On May 20, I lingered around the ginseng field all day long, even willing to get wet from the rain. I nearly shed tears of joy.

**3. Meticulous planning for ECONET training!**

Since we cannot do much work at the farm when it's raining, the staff are making plans to greet the trainees who are visiting as part of the ECONET Russia Training program, which is scheduled to get under way on June 22. We are developing plans to facilitate a smooth training environment.

**4. A new law requiring permits for entry to border areas creates a Cold War era-like atmosphere**

In 1993, Russia passed a law requiring pre-approval to enter border areas, only to suspend the law after two months in effect. However, the law has been re-enacted effective May 8, 2004, making access to the border area very difficult. Today, even a Russian national must obtain permission to enter the area. It is as if the Cold War era is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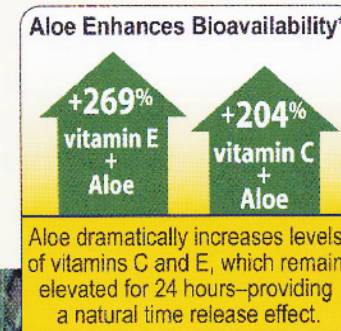
**ALOECORP:**  
**NEW science**  
**NEW applications**



**Aloe Enhances Bioavailability and Provides a Natural Time-Release Effect**

*Groundbreaking new research shows Aloe dramatically increases levels of vitamins C and E in the blood...by over 200%. And, levels remain elevated for 24 hours—providing a natural time-release effect. This study also shows that Aloe can enhance the bioavailability of BOTH water- and fat-soluble vitamins.*

*Like Aloe, vitamins C and E are known to be powerful antioxidants that boost immune system function, promote skin health, and protect cardiovascular health. By adding the natural time-release effect of Aloe, enhanced levels of these health-preserving vitamins are assured over a 24 hour period.*



\*Study sponsored and funded by IASC.

**New Aloe Research means more value-added products for you**

To get the best results from your *Aloe vera* products, purchase from Aloecorp—the world's leading, vertically-integrated supplier of IASC Certified Pure *Aloe vera* ingredients under the patented **ACTIVE ALOE®** and **CERTIFIED PLUS®** brands. We offer gel, whole leaf, concentrate and powder products. Our *Aloe vera* plants are grown in Organic Certified fields, and carefully processed under Aloecorp's proprietary Time, Temperature and Sanitation (TTS) and ISO 9001 certified quality systems.

Our patented **ACTIVE ALOE®** is the first standardized *Aloe vera* to guarantee 10% polysaccharides by weight as measured by NMR and SEC (HPLC)—assuring batch-to-batch consistency and enhanced biological activity. **ACTIVE ALOE®** is research-proven to retain and enhance the biological activity of native *Aloe vera* gel, delivering wondrous health-promoting properties such as: youthful-looking skin, enhanced immune system function, healthy cholesterol and blood sugar levels already in the normal range, and potent antioxidant protection.

What this means to you is an array of product opportunities...**NEW, IMPROVED, VALUE ADDED...**

- **Cosmetics and Cosmeceuticals** (internal and external)
- **Hair, skin and personal care products**
- **Functional foods** (bars, drinks, yogurt, ice cream, soy or cow's milk)
- **Capsules, tablets, chewables**
- **Health products for children and teens**
- **Pet and Animal care** (internal and external)
- **Transdermal patches, incontinence pads, tissues, detergents...**

**Aloecorp Aloe vera is your answer. CALL TODAY!**



Contact us for information and product samples  
**800-458-ALOE (2563)**  
**www.aloecorp.com**







## ECONET 새식구 앙케이트

조직은 신입사원으로 인해 젊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새식구들의 의욕에 찬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봄으로써 처음에 회사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한번쯤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함께 일하는 신명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코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① 나는 이런사람
- ② 입사전엔 어떤일을 했었고, 현재 우리회사에서는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 ③ 우리회사 입사전과 입사후의 인상
- ④ 입사후 우리회사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주신분은
- ⑤ 이렇게 말해주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듣고 싶은말)
- ⑥ 선배님들, 할말이 있는데요~
- ⑦ 앞으로의 포부



㈜남양알로에 중부 영업팀 - 김봉호

- 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해 보이기 보다는 그들 속에 묻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싶은 김봉호 입니다.
- ② 입사 전엔 졸업을 앞둔 많은 학생들이 그랬듯이 저 또한 취업을 위해 매일 정보를 수집하고 저 자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남양알로에란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중부 영업팀 부서에서 충남지역 대리점관리라는 직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 ③ 입사 전부터 어머니께서 알로에 제품을 드셨기에 남양알로에란 회사에 대해서 그리 생소하지는 않았습니. 입사 후에는 무엇보다 회사 전직원이 모두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과 앞으로의 회사 발전 가능성을 보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 ④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대전 중부 영업팀 사무실로 내려온 지 3일이 지나서야 이경원 팀장님을 뵈게 됐습니다. 항상 하나하나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직원들이 외근 나갔을 때 전화 받는걸 좋아하시는 우리 이경원 팀장님 사랑합니다.
- ⑤ 식구가 한명 느니까 일이 훨씬 수월한걸~... 김봉호씨가 들어오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 ⑥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사회경험도 부족한 저이기에 아는 것보단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선배님들의 가르침에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⑦ 세상의 한 부분이 되듯이 남양알로에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사의 근간이자 중요한 영업팀에서 목표를 가지고 제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 The Questionnaire Survey of ECONET New Family Members

An organization gets an infusion of new energy from fresh recruits. We hope the enthusiastic ambitions and aspirations of our new recruits remind you what your thoughts and goals were when you first joined Namyang. We hope that this article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create an even more exciting workplace where everyone cares about and expresses interest in each other. - the Editors



- ① Who am I?
- ② What did I do before joining Namyang and what do I do now at Namyang?
- ③ My impression of Namyang before and after joining the company
- ④ The person in the company who had the greatest impression on me
- ⑤ I will work hard until someone praises me by saying ... (The compliment I'd most like to hear)
- ⑥ I'd like to say ...
- ⑦ My ambition is to ...



Namyang Aloe  
Jungbu Sales Team/ Bong-ho Kim

- ① My name is Bong-ho Kim. I prefer to mingle and get along well with people rather than to stand out.
- ② Like many other students nearing graduation, I had been gathering information on employment every day and striving to enhance my competitiveness. As a result, I was able to join a company called Namyang Aloe. Currently, I am assigned to the Jungbu Sales Team and managing agenci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 ③ Because my mom had been using aloe products before I joined the company, Namyang Aloe was not all that new to me. Since joining, I am most satisfied with the company's growth potential and family-like atmosphere, where every member of the company works together.
- ④ I came to the Jungbu Sales Team office in Daejeon after completing training in Seoul, and met Team Leader Gyeong-won Lee on my third day in Daejeon. He kindly explains things in detail and is happy to answer the phone when we are out in the field. I love you, Team Leader Lee!
- ⑤ With help from another member of the Namyang family, it is much easier to do our job... "Everything's going well since Bong-ho Kim joined the team..." (I'll do my best!)
- ⑥ I am still young and lack work experience. I have so much to learn compared with what I already know. I'll work hard to meet my supervisors' expectations and follow their suggestions.
- ⑦ Like being part of the world, I am now part of Namyang Aloe. I will do my very best to the end, challenging myself, without getting discouraged. I will perform at my fullest capability to achieve my goals on the sales team, which is an important foundation of the company.





(주)남양알로에 영업 교육팀 - 전익표

Namyang Aloe Sales Training Team / Il-pyu 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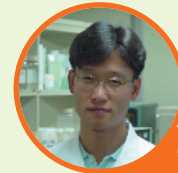
- 1 행복하세요!! 교육팀의 전.익.표입니다. 아직도 처음 남양알로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그 설레임이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전해져 옵니다. 입사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제게 몇 가지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S.S' / '찌거' ... 기타 등등... 'S.S'는 미국 어느 영화배우 이름의 약자입니다. 록키, 램보 등 최고의 흥행작을 내놓았던 배우라고 합니다. ^^;; '찌거'라는 말은 '새것'이라는 말의 변이입니다. 중고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 별명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니까요. 저는 그만큼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말이겠죠? ^^\*
- 2 입사 이전에는 잠시 온라인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본사 교육팀의 교육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3 입사 전에는 여기저기 보이는 많은 기업들 중의 하나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입사 후 몇 일은 군(軍)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 체계적이고 위계가 있는 조직생활에서 그런 부분을 느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참 즐거운 곳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바쁘게 업무를 하면서도 눈이 마주치면 항상 웃어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시고, 힘들다고 괜한 엄살 부릴 수 있는 동기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자주 먹는다라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
- 4 좋은 인상이라면...누구 한 분 빼놓을 수가 없지만...그래도 역시 항상 옆에서 생활하시는 조준용 과장님 & 조용호 대리님...^^\* 이유라면...과장님은 첫인상은 무섭게 보이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씀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두 배로 인상이 좋아지고, 대리님은 첫인상이 너무 편하신데다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니 또한 두 배로 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두 분은 꼭 형제 같습니다. ^^;;
- 5 "애가 우리회사 대들보예요!!"  
누구 앞에서나 망설임 없이 저를 회사의 기둥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6 이제 입사 2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은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지만 가끔은 실수도 하고, 가끔은 분위기도 못 맞추고, 또 가끔은 버릇없이 보일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선배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많은 가르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7 처음 입사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작은 변화에 민감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진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 진주를 발견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은 제게 주어진 일이며, 제 꿈이기도 합니다. 그 꿈을 위해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넘치는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최고가 되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 1 Don't worry, be happy!! My name is Il-pyu Jun, with the Training Team. The flutter I felt when I first set foot in Namyang Aloe is still vivid in my mind as I write this. Although it has been only two months since I joined the company, I have already gotten a few nicknames within the company, such as "S.S," "ssaeegeo," and so on. "S.S" are the initials of an American movie actor who starred in blockbusters such as "Rocky" and "Rambo." "Ssaeegeo" is a variation of "saeegeot" (which means "a new thing" in Korean). Thank god it does not come from something meaning old! People with many nicknames are known to be happy; it means that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them, which in turn means that I am also a happy person.
- 2 Before joining Namyang Aloe, I participated in online training for a while. Currently, I am handling educational planning affairs for the Training Team at the head office.
- 3 Before starting at Namyang, I had only a vague concept of Namyang. I considered it as one of numerous companies. The first few days after joining the company reminded me of my time in the military. I think the hierarchical and systematic aspects of the organization created this impression. Nowadays, however, I consider it to be a very pleasant workplace. I have senior colleagues who are busy doing their work quietly, but still manage to smile at me when we make eye contact. There are also colleagues to whom I can complain when I am in deep water. I also think that one of pleasures that I cannot leave out is that we go out for "bean paste stew," which is my favorite food!
- 4 As for the most impressive person... I cannot possibly pick just one, but if I must narrow it down, it has to be Manager Jun-yong Jo and Assistant Manager Yong-ho Jo, who always stand by me. Although Manager Jo may appear fearsome at first, once you get to know him you'll find that he's kind and warmhearted. Naturally, his impression then improves twofold. As for Assistant Manager Jo, he appears very pleasant at first sight and speaks very softly, which also improves his impression twofold. This is purely my personal opinion, but they're like real brothers to me.
- 5 "He is the pillar of our company!!"  
I would like to be introduced, without hesitation, as the pillar of our company to other people.
- 6 It has been two months since I entered the company. Although I've learned many things, I probably have an even longer list of things to do, which means that I still need to develop in many respects. Of course they were not intentional, but I must have made some mistakes, not gotten along and even appeared impolite from time to time. I hope all of you kindly understand these blunders with an open mind and guide me in the right direction.
- 7 To this day, my dream remains the same as when I joined the



(주)남양알로에 부산 경남팀 - 이창수

- 1 뭐든 잘하려고 노력해 그래도 못하지는 않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늘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으로 대인관계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늘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 2 대학생으로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며 주침야할(?) 하며 지냈습니다. 대학시절 기억에 남는 활동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배용준, 장동진. 남자가 봐도 질투나게 잘생겼더군요.) 현재는 부산 서부 14개 대리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사장님들 모두 좋은 분들만 계셔서 하루 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 3 여타 다른 회사와는 달리 가족적인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좋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더욱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 4 입사면접 때, 잔뜩 긴장한 저는 면접관이셨던 부사장의 격려 말씀과 따뜻한 미소 덕분에 무사히 면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5 아! 그거... 창수한테 물어봐. 개가 그 업무는 꼭 잡고 있잖아!
- 6 선배님, 그 동안 저의 실수로 번거롭고 힘들게 헤드리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교육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구요. 앞으로 선배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당당한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주위에서 칭찬 받고 능력을 인정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남양 연구실 - 박용운 주임

- 1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편하게 대해준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남을 좀더 배려하려 노력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려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 2 입사전엔 작은 화장품 OEM회사에서 색조 화장품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늘 양손과 옷이 색소가 묻어 지저분했지만 예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는 기초화장품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3 입사전엔 그저 막연하게 건설하고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만 갖고있었는데 입사해보니 입사전과 별 다른건 없지만 좋은회사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남양 식구들을 보면서 나도 그러한 남양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4 연구실 이재현 대리님.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는거라고 하듯이 업무와 대인관계에서 무어라 말하기 보다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파. 진정으로 남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양인이라 생각된다.
- 5 "자네가 한일이니까 믿을만하네." 이런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 6 남양의 인상은 무척 좋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배들의 진심어린 충고가 많이 부족한듯 싶다. 많은 꾸지람과 칭찬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

company. My determination to fulfill this dream also is unchanged. Work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leads me to think of many things. It is sensitive to small changes and it sometimes creates a jewel from the unexpected. My job ? and my dream ? is to discover and polish such a jewel. I want to be No. 1 in realizing this dream. I will make up for my shortcomings and be more discreet about my pride, bearing in my mind that when I strive to become the best, I will really become the best some day. Your constant support and encouragement is deeply appreciated. Thank you.

Namyang Aloe Busan Gyeongnam Team / Chang-soo Lee

- 1 Because I always try hard in everything I do, at least I don't get criticized for doing poorly. I try to be considerate of and get along well with other people. I am building up my capability to be helpful to others.
- 2 When I was at university, I was busy sleeping during broad daylight and going out at night, which was quite alarming to my parents. The most memorable event during my college years was working as a volunteer at the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Yong-joon Bae and Dong-geon Jang, (star actors in Korea) were so handsome they made me feel jealous). Currently, I supervise 14 agencies on the west side of Busan. All of the agency heads are so nice that every day is a joy.
- 3 Unlike at other companies, I felt a warm, family-like atmosphere at Namyang. Such an impression has gotten stronger since joining the company.
- 4 I was really nervous during my interview. However, I was able to smoothly finish the interview thanks to the Vice President's kind words and warm smile.
- 5 Oh, that! Go ask Chang-soo. He's the expert!
- 6 Guys, I'm really sorry for troubling you because of my accidental blunders. In addition, thank you so much for coaching me despite your busy schedules. I will do my very best to become a colleague who will also be helpful to you. You can bet on it!
- 7 Bearing in mind my original goal, I want to be a person who always works hard and is praised highly and recognized for my ability.

Namyang Company Research Team / Supervisor Yong-woon Park

- 1 As for interpersonal skills, I am known to be good at making others feel comfortable and try to be considerate of others. I consider myself a person who tries hard and likes to challenge himself to be perfect in every respect.
- 2 Before joining the company, I developed color makeup at a small OEM company that produces cosmetics. Although my hands and clothes were always messy from pigments, I worked hard to



7 화장품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며, 또한 동료들 사이에서 좋은 인간성과 신뢰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주남양 연구실 - 유승환

1 저에 대하여 이것저것 말하기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할말도 별로 없고... 저는 집안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군에 계셔서 많은 지역을 이사와 전학으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때 전학만 9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10번이상 하면서 많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어머니가 정서적 안정을 찾아주시려고 학원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도 피아노와 미술분야 그리고 많은 분야의 상식과 경험은 있으나, 제 생각에는 하는게 별로 없네요..^^;;

2 저는 입사전에는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자원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한(?)학생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졸업이 늦은 이유는 없고 이것저것 하다보니 졸업이 늦었습니다. 아무튼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사회에 첫발을 옮긴 새내기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남양 연구실에 있으며 식품분야에서 반/완제품 QA/QC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를 배우고 응용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3 더 많은 애착과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인상은 첫날부터 좋은 이미지였고, 지금도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 입니다. 또한 저의 일에 애착이 가고 한 분이라도 더 알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인상이 좋으면 그 인상이 변하지 않듯 입사 때 좋은 인상이 저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4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은 음...연실에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5 무엇을 말해주길 기다리기 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기대하고 혼나기 싫다고 일하기 보다는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사한지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지만 잘 배우시고, 다독겨려 주신다면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7 흐르는 물처럼 강에서 바다로 가듯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썩거나 증발하지만, 흐르면 썩지도 않고 증발해도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직 입사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많은 분들을 모르지만, 남양 뿐만 아니라 유니젠, 남양알로에에 계신 많은 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주남양 연구실 - 서동미

1 안녕하세요. 지면상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네요.저는 2004년 1월 2일부터 '남양'의 한 식구가 된 서동미 입니다. 운동신경은 없지만 운동을 좋아하고, 노래는 못하지만 노

develop pretty, high-quality products. Currently, I am in charge of developing skincare products.

3 I only had a vague notion that Namyang was a sound and good company before joining. That was not much different from what I've learned about the company since coming aboard. Looking at the members of the Namyang family who create and lead this fine company, I now want to be a Namyang member who can contribute likewise.

4 Assistant Manager Jae-hyun Lee at the Research Laboratory! To be a role model at work, he sets an example through his actions as far as work and interpersonal skills are concerned, instead of just talking. I believe he is a true Namyang member who really loves and cares about Namyang.

5 "I trust it since you did it." I want to be a person who instills such trust.

6 Although Namyang imparted a very good first impression, one thing I felt to be lacking was earnest advice from senior colleagues. I hope there are more reprimands as well as compliments.

7 I want to be a person who can be introduced, with confidence, as an expert in cosmetics. Also, I want to be a person who is regarded as having a good personality and being trustworthy.

Namyang Company Research Team / Seung-hwan Yoo

1 It is a bit embarrassing to talk about myself. I don't have much to say...I was affected greatly by my family environment. Because my father was in the military, I moved around a lot. I went to nine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and moved more than 10 times. Because of that, my mother insisted I partak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a sense of stability. Although I have experience and a basic sense in a number of areas including art and piano, I don't think I am good at any of them.

2 Before joining the company, I was a hardworking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Food and Life Science at Sungkyunkwan University. There was no special reason for graduating later than my peers; I just happened to be engaged in many activities. At any rate, as my status has shifted from student to a new member of working society, I'll continue to work hard. I am now assigned to the Namyang Research Team and in charge of QA/QC of semi-finished/finished products in the food area. I wish to gain a lot of knowledge and help improve product quality by applying this know-how.

3 I have greater affection for the company and feel a bigger responsibility. I had a good impression from the very first day. It still gives off a clean and fresh image. I am very fond of my job and want to get acquainted with as many people as possible. In other words, just as a good first impression of someone stays constant, the good impression I got when I first joined this company remains the same.

4 People who helped me...um...That's a tough question. It has to be everybody in Yeonsil.

5 Instead of waiting for instructions, I will look for things that

래하는 걸 좋아하고, 바다보다 산을 좋아해서 주말엔 등산으로 피로를 푸는 씩씩한(?) 여성입니다. 저의 성격은 처음엔 내성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털털한 성격으로 금방 사람들과 친해지곤 합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남양'에 들어와 신입사원으로 조용히 지내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저 서동미가 '남양'의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입사 전에는 충북대학교 식품공학과 효소발효공학 실험실에서 석사과정으로 기능성식품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학교 다닐 땐 효소를 이용한 기능성 발효식품을 많이 만들곤 했는데, 지금은 '남양' 연구실에서 제재 개발 업무를 맡으며 알로에를 이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연구했던 내용과 식품유형의 종류는 다르지만 인간에게 유익한 건강 기능성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새로이 배워 가는 기능성 원료와 제품개발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입사 지원하기 전 생각했던 '남양'의 인상은 자연과 함께하는 회사라고 할까요.. 그런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지원 후 그런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보다 더욱 인상 깊은 것은 가족적인 분위기의 '남양'이라는 것 입니다. 제가 '남양'의 한 일원으로 쉽게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그런 분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문에서 수위아저씨들이 출근길에 받아주시는 인사에서부터 실험실에서 퇴근하기까지 '남양'의 모든 식구들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분위기가 '남양'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4 1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연구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연구실 포한중 대리님께서 제재개발일을 시작하는 저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과 충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가끔씩 실수를 해서 꾸중도 많이 듣지만 저의 발전을 위한 충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5 "너가 연구실을 잠시라도 비우면 일이 안 되더라" 제가 없을 때 저의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되겠죠. '남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6 벌써 입사한지 몇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젠 웬만큼 '남양'에 대해 잘 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업무적인 일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서툰 일이 많더라도 깊은 아량으로 잘 봐주세요. 저도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7 남양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를 쓸 때 이 말을 쓴 기억이 납니다.

"남양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배우고 익혀 저의 개인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남양'과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eed to be done.

Instead of anticipating a compliment or avoiding a reprimand, I will work to move ahead silently.

6 I'll perform to my fullest extent. A few months have passed since I joined the company. Although I'm not perfect at many things, you'll see how I can change if you continue to watch and support me.

7 Like running water, I will develop myself to evolve from a river to an ocean. If water is still, it becomes fetid or evaporates. However, if it's flowing, it does not go bad or its volume stays the same even after evaporation. I will show you how I can grow and change like water that runs silently.

Although I haven't been able to meet many people because I've only been here a few months, I want to get acquainted with many people at Unigen and Namyang Aloe as well as Namyang.

Namyang Company Research Team / Dong-mi Seo

1 Hello! It's my great honor though slightly embarrassing to introduce myself here. My name is Dong-mi Seo, and I became a part of Namyang on January 2, 2004.

Although I'm not good at sports, I like sports; although I lack talent in singing, I like singing. I am a vigorous woman who enjoys hiking because I like the mountains more than the sea. Although I may appear to be an introvert, I am in fact quite outgoing and make friends with others quickly. I am keeping a low profile because I am just a beginner at Namyang. However, I'll quickly pick up the skills to become "Dong-mi Seo who is essential to Namyang."

2 Before joining the company, I studied functional food products in a master's degree program at the Enzyme Fermentation Engineering Laboratory in the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school, I developed fermented functional food products using enzymes. Currently, I am assigned to material development affairs and develop health supplements using aloe. Although the subject and types of foods are different from what I did at school, I am pleased to be creating health supplement products that are beneficial to humankind. I have a great deal of interest in functional raw materials and product development, which are still new to me.

3 My early impression of Namyang was as a company that values nature. I applied for a job with such a fresh, pure image in my mind. However, its family-like atmosphere has made an even stronger impression on me. It was probably this kind of atmosphere that helped me adapt easily to Namyang. From a cheery "good morning" by a security guard at the main gate to the kind "hellos" by Namyang folks until I leave the lab at the end of a day, "Namyang's" warmhearted atmosphere bonds its family members into one.

4 Since I joined the company in January, everybody on the Research Team has helped me out a great deal. In particular, Assistant Manager Han-jong Pyo dispenses valuable advice, and coaches me as I get started with material development affairs.





㈜남양 연구실 - 정찬대

- 저는 활발한 성격이 좋습니다. 제가 좀 내성적인 탓인지, 많은 사람과 친해지는것도 좋아하고 좀 서먹해도 같이 어울리는걸 아주 좋아합니다. (술한잔 하면서.....)
-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입사전 특별히 한일은 없고 학교 열심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구실에서 화장품원료 품질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 입사전에는 술잔히 남양 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알로에가 첨가된 식품,화장품을 생산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으로만 생각했는데, 입사해서 보니 사원들의 생활과 회사분위기를 보면 회사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이시찬 이사님의 인상은 처음 면접 볼 당시부터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못했을때는 꾸지람을 들어야겠지만 잘했을때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시면 일할 기운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 선배님 아직 아는데 별로 없는 저희 신입사원에게 선배님들의 많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세요.
- 처음 입사했을때의 마음가짐을 항상 잃지않고 틀에 박힌 사람이 아닌 항상 좀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양 생산 기획팀 - 신범순

-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내 삶 내 인생이다.
- 입사 전 중소기업체와 신세계에서 전기, 소방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좀더 높이고자 전기 기술사 시험을 함께 준비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는 역시 전공 분야의 기술을 살려서 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입사 전에 남양 알로에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은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입사 후에는 이런 단순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우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경영 이념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자연에서 얻어내는 알로에를 통해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많은 기술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21세기의 진정한 Global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딱히 한 분을 떠올리기 보다는 회사 내에서 상대방의 업무를 존중해주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예로점들을 이해해주는 몇몇 분들이

Although I get chided from time to time because I make avoidable mistakes, I understand that such words are meant to make me better.

5 "With you away from the laboratory, we couldn't get the work done."

I want to work hard so people would notice my absence when I am not around.

In order to do so, I have to learn and do my job earnestly.

I will gear up to play an essential role at Namyang.

6 Several months have already passed since I joined the company. I thought I was pretty familiar with Namyang by now, but I'm still lacking in many respects as far as work is concerned. Please be understanding when my performance is not entirely satisfactory. I will make an effort to make up for my shortcomings.

7 I remember writing the following when I filled out the Namyang application form.

"I'll work hard to become a person of indispensable talent to Namyang."

I will always keep this resolution in mind and not let it fade away. I'll work and study hard for my personal growth as well as Namyang's.

Namyang Company Research Team / Chan-dae Jung

1 Probably because I am introverted, I like outgoing people. I'd like to have many friends to hang out with over a drink even if we may not be close friends.

2 Because I joined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there's not much to say about my time before joining the company except that I studied hard at school. At present, I am in charge of quality control of cosmetics' raw materials in the Research Team.

3 To be honest, I was not familiar with Namyang. I only thought of it a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hat produces aloe-based food products and cosmetics. Through witnessing employees' quality of life and the corporate culture, I am confident that our company holds much promise.

4 Director Si-chan Lee, who always has a smile, left a very strong impression on me from the time he interviewed me.

5 There is a book called "Whale Done!" which stresses the importance of compliments. Of course I should be reprimanded for my wrongdoings, but a kind compliment will truly motivate me to do better.

6 Senior colleagues, I don't know much about your work. Please help pass on your knowledge and skills to new hires.

7 I'll keep the mindset I had when I first joined the company and make efforts to become a better and more innovative person.

나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5 한마디의 격려와 미소가 아닌가 한다. 한마디의 격려가 일의 능률을 높여주고, 따뜻한 미소가 하루를 즐겁게 한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6 직장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업무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일수록 더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잘 맞물려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잘 돌아가는 것처럼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 서로의 업무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 현재 회사에서 맡고 있는 전기, 소방업무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환경 등 관련업무들도 함께 익혀서 나무뿐만 아닌 전체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추는 실력 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뿌리내려져 있지 않은 회사내의 분위기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줄여나가고 모든 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단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안전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남양 경영 기획팀 - 김연진

1 '소주' 같은 사람.. 소주는 과일과 담가먹으면 오래 될수록 좋은 술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찾고 오래 담가 먹을수록 좋은 소주 같은 사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2 입사전엔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노어노문학과 학생. 현재 우리회사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입사 전에는 남양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북 진천에 알로에 첨가물을 생산하는 작은 중소기업체쯤으로 생각했지만, 입사해보니 생각과는 달리 견실하며, 가족 같은 임직원들이 있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한 남양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 나의 멘토.. 송상현 부장님

5 "김연진씨라면 뭐든지 믿고 맡길수 있지..!"

내이름 석자와 함께 '신뢰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6 아직 부족한 점도, 실수도 많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리는거 없이 다 잘먹어요^^;;)

7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Namyang Company Production Planning Team / Beom-soon Shin

1 I value every moment of my life, and I do my best for the things that I believe are valuable to me. That is my life.

2 Before joining the company, I handled electrical and firefighting services at a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 and at Sinsegae. At the same time, I was studying for the certified electrical engineer examination to enhance my expertise in this field. After joining Namyang, I have been assigned to various affairs related to electricity to demonstrate my ability in my area of specialty.

3 Before joining the company, I only thought of Namyang Aloe as a company that sells food supplements. However, since beginning work here, I have become familiar with its corporate philosophy. As I observe how Namyang has positioned itself as a world-class company that spares no technical investment to promote the health and happiness of mankind through aloe, I believe it is a true global company of the 21st century.

4 I cannot think of just one person. A few people in the company who respect others' work and understand the various difficulties that arise while doing one's work have imparted a good impression on me.

5 I think it has to be a word of encouragement and a warm smile. A word of encouragement boosts efficiency and a warm smile makes one's day. I'll also try to become a person who provides such support to others.

6 A workplace is a community where many people interact. Although work may cause a great deal of stress from time to time, I wish we'd try and have more fun at such times. As saw-toothed wheels, large and small, go round smoothly when they fulfill their roles, every function performed at the company is important. Instead of stressing the importance of one's own work, I hope we can create a corporate culture where we respect and show consideration for others as well.

7 I wish to become an expert with the insight and capability to see the entire forest instead of a single tree by learning about machinery,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affairs as well as the electrical and firefighting services that I currently oversee. In addition, I'll make efforts to eliminate, one by one, a variety of risk factors that may occur in a company setting where safety awareness is not firmly grounded. In addition, I wish to encourage all employees to do away with an indifferent attitude and become conscious of safety issues.

Namyang Company Management Planning Team / Youn-jin Kim

1 Someone like soju. When soju is poured over fruit, it becomes a better drink, as it gets older. I want to be someone who's liked by



many people and that, like soju, is preferred as it matures.

② Before joining the company, I was a Russian literature and language major increasingly dedicated to my schooling as I progressed. Currently, I am handling educational affairs at the company.

③ Before joining the company, I was not familiar with a company named Namyang. I thought it was a min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hat produces aloe additives in Jincheon, North Chungcheong Province. After joining the company, however, I realized it's a very sound company whose entire staff treats each other like their own family. I am very satisfied with the company

as I perform a role that is rewarding and enhances my self-development. I will work hard to become a faithful Namyang member.

④ My mentor...Senior Manager Sang-heon Song

⑤ "We can trust Youn-jin Kim for anything!"

I wish to be a person whose name reminds others of "trust."

⑥ Although I have many shortcomings and often make mistakes, I'll show you how good I can be.

(By the way, I have a voracious appetite)

⑦ I aspire to be a person who appreciates others and is responsible for the duties assigned to me!!!

동호회 소식

1) 남양알로에 롤링 스톤즈 : 따뜻한 날씨엔 인라인 로딩!

친구랑 또는 혼자서 연습하던 인라인 스케이트! 이제는 모든 동호회 회원이 모여서 타게 됩니다.

쉬는 토요일, 즐거운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한강변, 올림픽 공원을 누비며 건강과 화합을 다집니다.

2) 남양알로에 '사랑 나눔이' 봉사팀

사랑 나눔이 봉사팀이 세브란스병원으로 7, 8차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4월 17일에는 놀이교실과 이동도서대여를, 4월 24일에는 예쁜 환아들의 생일파티를 열어주었다. '사랑 나눔이' 봉사팀에 남양알로에 임직원 뿐만 아니라 ECONET 가족들의 전사적 참여가 늘고 있다. 1월부터 심호영 이사님의 가족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는 남양의 오경아 대리가 동참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3) 남양 영화사랑 - 전주 국제 영화제 관람...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전주에서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었다. 4월 24일 토요일, 매우 쾌청한 날씨에 영화사랑 동호인 12명은 전주 국제 영화제에 일본작품인 "815" 를 관람하기 위하여 전주에 모였다. 영화 관람 전 영화사랑 회원들과 전주의 명물 덕진호수에 도착하여 오랜만에 친목을 도모하였고, 한편 전주 국제영화제가 상영하는 영화거리를 우여곡절 끝에 찾아 예약한 장소에 도착하였다. 좀 어려운 영화를 선택하여 관람한 것이 무리긴 하였지만 회원들 모두 유쾌하게 끝까지 관람하였고, 관람 후 전주의 별미 "전주비빔밥"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정말로 맛있었다. 동호회의 참뜻을 느끼면서, 동우회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가 매우 고맙게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영화사랑 동호인만의 추억이었다.



Club Activity News

1) Rolling Stones: Inline Skating in the Warm Weather! (Namyang Aloe)

Inline skating can be enjoyed either with friends or on one's own. Let's go out for a spin with members of the Rolling Stones. On Saturdays when work's out, members of this inline skating club promote health and harmony by going skating along the Han River or through Olympic Park

2) "Love-sharing" Volunteer Team (Namyang Aloe)

The "Love-sharing" Volunteer Team visited Severance Hospital in Seoul for their seventh and eighth volunteer projects. On April 17, the team led some fun recreational activities and lent out books. On April 24, they threw a birthday party for sick children. The "Love-sharing" Volunteer Team is staffed not only by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Namyang Aloe, but supported at a company-wide level by members of ECONET. In January, Namyang Director Ho-young Shim and his family joined the team, while Assistant Manager Gyeong-ah Oh of Namyang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beginning this month.

3) Movie Lovers - Attended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amyang Company)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as held in Jeonju from April 23 to May 2. On April 24, a fine Saturday with cloudless skies, 12 members of our Movie Lovers club gathered in Jeonju to view "815," a Japanese film being screened at the film festival. Before going to the movie, the members gathered at Deokjin Lake, a Jeonju landmark, for some socializing. We then wandered about a while before finding the strip where the films were showing. We had gone slightly overboard and selected a movie that was difficult to comprehend. Nevertheless, we enjoyed the movie right to the last minute. The day ended as we dined on Jeonju's famous dish, bibimbap (mixed rice and vegetables), for dinner. It was really, really delicious! I was so grateful for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club members as I realized the true meaning of club activities. Every member of Movie Lovers would remember this as a memorable event for a long time after.

경조사 소식

남양알로에

◆ 본인 결혼 축하드립니다.

• 2004/6/5(토) 마케팅기획팀 강호진 주임

• 장소 : 센트럴 웨딩 5층(체리홀) • 시간- 오후 12시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04/4/8 고객지원팀 정현정 사원 / (여)동생 사망

※ 남양알로에 임직원 여러분의 가족 같은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현정)

• 2004/5/10 생명과학연구소 오선택 이사 / 모친 별세

미국 현지법인 UPI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04/4/10 UPI 이요한 / 장모 별세

생일자 소식 6~7월

남양알로에

(6/4)진찬숙, (6/11)김효재, (6/17)백재열, (6/27)김기자, (6/29)이경원,

(7/1)박정아, (7/4)이현주, (7/7)이원석, (7/18)김소연

남양

(6/5)이태순, (6/6)박상순, (6/13)정봉수, (6/22)김정순, (6/23)천창식,

(6/25)주혜련, (6/28)이병훈 대표이사

(7/2)이미선, (7/4)박정선, (7/12)조정임, (7/14)이추월, (7/14)위영숙,

(7/16)김연숙, (7/17)최승녀, (7/31)김진영

유니젠

(6/10)조지녀, (6/12)김미란, (7/3)도선길, (7/7)이지수

오아시스

(6/12)제니퍼 텀팜, (6/18)제이티 위트월스, (7/1)스테판 셔닌스키, (7/5)

달라스 힐, (7/9)에린 길톤, (7/14)제임스 화이트, (7/26)스탠리 위스

UPI

(6/7)에린 리퍼, (6/19)리간 마일즈, (6/14)수잔 밴스, (7/8)마이클 세토로우

알로Corp

(6/6)존 리스, (6/8)바바라 앱스, (6/16)환 살다냐, (6/28)마크 사이몬,

(7/7)마커스 구즈만, (7/10)존 브랜햄, (7/27)브리짓 아만, (7/28)호세 퀴

노네스, (7/28)산토스 살리나스

하이난 & 남양 알로Corp

(6/1)이성기, (6/14)케티, (7/11)코코

유니젠 러시아

(6/9)구원모, (6/19) Protopopovo Olga Anatolievna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Namyang Aloe

◆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 Supervisor Ho-jin Kang in Marketing-Planning will be married on June 5, 2004.

• Place: 5th floor (Cherry Room) Central Wedding Hall,

• Time: noon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A sister of Hyeon-jeong Jeong passed away on April 8, 2004

※ My sincerest appreciation to the staff of Namyang Aloe for their warmest sympathy (Hyeon-jeong Jeong)

• The mother of Sun-tack Oh, director of the Unigen R&D Center, passed away on May 10. Our thoughts are with him.

Univera Pharmaceuticals Inc.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mother-in-law of Yohan Lee at UPI passed away on April 10, 2004

Birthday in June & July

Namyang Aloe

(6.4)C.S CHIN, (6.11)H.J KIM, (6.17)J.Y BAIK, (6.27)G.J KIM,

(6.29)K.W LEE, (7.1)J.A PARK, (7.4)H.J LEE, (7.7)W.S LEE,

(7.18)S.Y KIM

Namyang Company

(6/5)T.S LEE, (6/6)S.S PARK, (6/13)B.S JONG, (6/22)J. S KIM,

(6/23)C.S CHEN, (6/25)H.R JU, (6/28)BILL LEE

(7/2)M.S LEE, (7/4)J.S PARK, (7/12)J.I JO, (7/14)C.W LEE,

(7/14) Y.S WEE, (7/16)Y.S KIM, (7/17) S.N CHOI, (7/31)J.Y KIM

Unigen East

(6/10)Ji-Nyeo Cho, (6/12)Mi-Ran Kim, (7/3)Seon-Gil Do, (7/7)Ji-

Soo Lee

Oasis

(6/12)Jennifer Taphorn, (6/18)JT Whitworth,

(7/1)Stephen Cherniske, (7/5)Dallas Hill, (7/9)Erin Kilton, (7/14)

James White, (7/26)Stanley Weiss

UPI

(6/7)Erin Leeper, (6/19)Regan Miles, (6/14)Susan Vance, (7/8)

Mike Chtourou

Aloecorp

(6/6)John Rhees, (6/8)Barbara Apps, (6/16)Juan Saldana, (6/28)

Mark Simon, (7/7)Marcus Guzman, (7/10)Joan Branham, (7/27)

Bridget Aman, (7/28)Jose Quinones, (7/28)Santos Salinas Jr

Hainan & Namyang Aloecorp

(6/1)S.G LEE, (6/14) Katie, (7/11)Coco

Unigen Russia

(6/9)Won-mo. Koo, (6/19)Protopopovo Olga Anatolievna





Derek Hall 사장 겸 CEO / UPI

## 유니젠 웨스트, 흥미진진한 변화와 발견의 여정을 떠나다

### Unigen West Embarks Upon Exciting Changes and Discoveries

By Derek Hall, 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 / UPI

Univera Way 창간호에서 Bill Lee가 남양알로에의 풍성한 28년 역사에 공헌한 내용, H.Y. Sung의 ECONET 가족에 대한 미래 비전, Jeff Han이 '달콤한 슬픔'과 승리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여 결국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국 알로에 농장을 설립하게 된 사연을 읽으며 내 마음도 함께 따뜻해짐을 느꼈다.

중국에서 2004년은 역동, 아이디어 교환, 변환을 상징하는 원숭이 해다. 이는 유니젠 웨스트에도 상징하는 바가 크며, 올해 지금까지 수확한 성공 및 현재 일어나고 있는 흥미진진한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월에 발간된 Univera Way에서 강조되었듯이, 알로콧, 오아시스 웰니스 네트워크, 유니젠 퍼머슈티컬을 포함한 미국 가족이 사무실을 콜로라도에서 워싱턴 레이시로 옮길 계획이다. 레이시는 아름다운 퍼켓 사운드(Puget Sound) 남단이라는 완벽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 생물기술 중심지이자 한국으로의 비행이 편리한 시애틀에서 80Km 가량 떨어진 워싱턴 주도 올림피아 가까이 있다.

미국 가족의 이전은 미국에 자연 통기, 자연 채광, 식물 정원, 산책길 등의 요소를 포괄하는, 자연 속의 회사 캠퍼스를 세우고 싶은 Bill Lee의 꿈에도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우리도 각 회사가 상징하는 건강과 복지를 반영한, 평화롭고 진보적인 작업 환경 창출이라는 꿈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되어 더 없이 기쁘다.

워싱턴주로의 이전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 질 것이다. 현재 부지에 건설중인 임시 시설로 이전하는 것이 1단계, 최첨단 실험시설, 창고, 유통 및 생산 시설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포함 해 총 5만 평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연구 캠퍼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2단계다. 연구 캠퍼스는 완성까지 3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매 회사인 유니젠 이스트와 마찬가지로 유니젠 웨스트는 신규, 특허 식물 기반 화합물을 발견, 생산하여 세계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 제품 개발 산업 전반에 공급한다. 지리적으로 통합된 최첨단 시설로 이전함으로써 유니젠은 기존 제품 파이프라인 판매 및 향후 새로

While reading the inaugural edition of Univera Way, my heart was warmed by Bill Lee's tribute to Namyang Aloe's fruitful twenty-eight year history, H.Y. Sung's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and by Jeff Han's journal entries reflecting the sweet sorrows and victories-and ultimate perseverance-that resulted in establishing an ever-growing and successful aloe plantation in China.

In Chinese astrology, 2004 is known as The Year of the Monkey, which symbolizes movement, the exchange of ideas, and transformation. This is especially meaningful for Unigen West and accurately reflects our successes so far this year, and the exciting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As highlighted in April's Univera Way, the U.S. family of companies, including Aloecorp, Oasis Wellness Network and Unigen Pharmaceuticals, is moving its office in Colorado to a new corporate campus in Lacey, Washington. Lacey is perfectly located at the southern end of the beautiful Puget Sound, close to the capitol city of Olympia, which is only 50 miles south of Seattle-an international biotechnology hotbed that also offers convenient flights to Korea.

The move is in line with Bill Lee's dream to manifest in the U.S. a corporate campus nestled in nature that integrates environmental components, such as natural airflow, natural lighting, botanical gardens and nature walking trails. We are excited to be a part of achieving this dream of creating a peaceful and progressive work atmosphere that exemplifies what each company stands for-health and wellness.

Our move to Washington State will involve two stages. The first stage will involve a move to a temporary facility currently being built on the corporate campus. Stage two will be to design a permanent, world-class, state-of-the-art campus on 40 acres of land, which will include cutting-edge laboratory facilities, warehouse, distribution and production capabilities, as well as other buildings as needed. It is estimated that the permanent campus may take up to three years to complete.

Unigen West, like our sister company Unigen East, discovers and produces novel and proprietary plant-based compounds that supply

운, 과학적인 활성 화합물 개발을 한층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레이시 시설에서 유전체학 실험실을 확장해야 할 것에 대비해 유니젠은 올림피아에 거주하는 유전체학 전문가 Yuan Zhao 박사를 기용했다. 박사는 현재 올림피아에서 콜로라도 유니젠 사옥까지 출퇴근하고 있지만, 이전이 시작되면 먼 길을 왔다갔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Yuan Zhao 박사는 상해 세포생물학 대학에서 분자세포 생물학 석사학위를, 워싱턴 주립대에서 식물생리학 및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미 중요한 유니젠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워싱턴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있다. 변화가 생기면 물론 초반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꿈을 쌓고 성장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변화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니젠은 다양한 보건산업 시장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주요 건강관련 제품 개발에 큰 발전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건강관련 사안을 해결하려는 제품,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바뀌는 경험을 전해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본사 같은 기업과의 비즈니스 제휴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다.

최근 본사가 NCI 및 조세핀 포드 암 센터와 체결한 협력계약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세 조직은 하나가 되어 최종적으로 제약산업의 실시간허여 및 약물 개발을 목표로 항고형 중앙 화합물을 분리,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본사의 PhytoLogix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NCI에서 제공한 활성 화합물 분리 및 확인 작업을 이행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약회사가 고형중앙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개발하게 되리라는 비전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는 성분을 연구, 개발하는 분야에서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본 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 건강 보조식품 산업의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사는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 UNPA(Utah Natural Products Alliance), NNFA(National Nutritional Foods Association), DSEA(Dietary Supplement Education Alliance) 등 신인도가 상당히 높은 조직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NPF(Natural Products Foundation) 활동에 적극 동참해 왔다(NPF에 관한 기사 참조).

이렇게 조직 및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제품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고 업계의 과학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유니젠은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건강 보조식품 성분 및 제품이 최상의 안전과 한층 제고된 효능을 지니도록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최근, 유니젠 웨스트는 과학으로 증명된 고품질 영양 보조제품을 제조,

a variety of industries that develop innovative products positively affecting the health of the world. Our move to a geographically centered, cutting-edge facility will position Unigen to more effectively market its current product pipeline and to develop new, scientifically active compounds, in the future.

In anticipation of the expansion of our Genomics Laboratory in Lacey, Unigen has already hired an Olympia-based genomics expert, Dr. Yuan Zhao, who is temporarily commuting from Olympia to work at Unigen in Colorado until the move takes place. Dr. Zhao has a Ph.D. in Plant Physiology and Molecular Biology from Washington State University and a Masters degree in Molecular and Cell Biology from the Shanghai Institute of Cell Biology, and has already become a valuable member of the Unigen team. We are very excited about the move to Washington. Though change can initially involve disruption, I strongly believe that change is an important part of growth and building dreams. Unigen continues to make great progress in developing exciting new health products that are being marketed in a variety of health industries. And we continue to explore business partnerships with companies whom, like us, are dedicated to developing products that address today's and tomorrow's most important health concerns-products that are truly life changing for people who want to lead quality lives.

An example of such an arrangement was the collaboration agreement we recently entered into with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and the Josephine Ford Cancer Center to isolate and identify anti-solid tumor compounds for ultimate licensing and drug development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tilizing our PhytoLogix™ technology platform to carry out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active compounds made available to us from NCI's Natural Products Repository, we hold the vision that we will develop ingredients for licensing by pharmaceutical companies for use in drugs that will treat diseases that are specific to solid tumors. We are striving to establish Unigen as the leading entity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ife improving and life saving ingredients. Incumbent with this strategy is the requirement to become extremely visible and vocal in the efforts to raise the level of credibility for the embattled U.S. supplement industry. To that end we have joined membership with extremely credible organizations such as 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 (CRN), Utah Natural Products Alliance (UNPA), National Nutritional Foods Association (NNFA), Dietary Supplement Education Alliance (DSEA), and most recently have become actively involved in the Natural Products Foundation (see separate article on NPF).

By working closely together with these companies and government agencies, our goals are to ensure product quality and safety, and to set scientific standards for the industry. Unigen is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helping ensure that only the best, safest and most efficacious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s and products are available on the market today.



판매하는 선도 기업과의 5년에 걸친 제휴 계약을 발표했다. 유니젠은 식품, 약품 및 대량 마케팅 경로를 통해 본 업체가 판매하는 몇몇 핵심 제품에 본사의 신규 체중감량 성분 DiAfin을 사용하도록 하는 실시권을 제공할 것이다.

유니젠의 '특허 출원 중' 성분인 DiAfin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식물 성분 혼합물로서, 순수근육부피는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줄어든도록 도와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체중감량을 지원한다. 비자극적 식물 추출물을 독특하게 혼합한 본 성분은 서구 식이에 사용되는 주요 당분이라는 점에서 체중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는 과당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유니젠 웨스트는 지난 1년 동안 다수의 신규 건강제품을 선보였다. 향후 출간 될 *Univera Way*를 통해 이 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쁠 것이다. 우리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성분 중 하나는 유니젠 이스트에서 발견 한 것으로, 특히 혈전증을 비롯한 심질환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 여름 본 성분에 대한 인간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며, 2005년에 전세계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 성분이 차기 Univestini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듯, 유니젠 웨스트와 제반 ECONET 가족 소속 기업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발견, 변화, 제품개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동료 직원을 대표해, 나 자신이 유니베라 가족의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원임을 힘차게 말 해 본다. 그리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유니젠 웨스트 가족을 대표해 올해 말 우리의 새 보금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 해 본다. 여행 길에 잠시 들러 준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많은 정보를 담은 훌륭한 *Univera Way*가 태어날 수 있도록 공헌 해 준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한 많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에 만날 때 까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 건강, 행복이 가득하길!

Unigen West recently announced a five-year partnership it has entered into with a leading manufacturer and marketer of high quality, science-backed, nutritional supplements. Unigen will license its novel weight loss ingredient, DiAfin™, for use in several key products sold by this licensee in finished products in the food, drug and mass marketing channels.

DiAfin™, Unigen's patent-pending, clinically proven proprietary blend of botanical ingredients, aids weight loss in several ways, including assisting the body in reducing body fat while maintaining lean muscle mass. This unique combination of non-stimulant plant extracts also affects fructose metabolism, a key factor in weight gain, since fructose is the major sweetener used in the Western diet. Unigen West has unveiled a number of novel health products over the past year. I welcome the opportunity to share more about these discoveries in future editions of the *Univera Way*. One ingredient we are extremely excited about has been discovered by Unigen East and is proving to have great promise for the treatment of heart disease, specifically thrombosis. We expect human clinical trials to begin this summer and we are projecting a world wide launch in late 2005. We expect this new ingredient to be the next Univestini!

Yes, exciting discoveries, changes and product development continue to take place at Unigen West, and at ALL of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I m sure I speak on behalf of my colleagues in the U.S. when I say that I am a proud and happy member of the Univera family. On behalf of my own Unigen West family, I invite you to come visit us at our new facility later this year. We welcome a visit from you during your travels!

We congratulate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o producing *Univera Way*-a quality, informative publication that we look forward to reading-and contributing stories to-for many years to come. Meanwhile, until next time, I wish you peace, health and happiness!

● 유니베라 웨이는 정말 멋졌습니다. 특히, "유니베라 웨이의 창간호를 기념하며"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기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소식이 널리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전 부탁드립니다.

오아시스 COO J.T. Whitworth

● 앞으로 *Univera Way*에 기대하는 것은 ECONET을 형성하고 있는 각 회사와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순박한 삶의 내용이 풍족하여져서 생활지로서의 편안함을 보여주고, 거대한 회사라는 전체의 모습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 중점을 두어 사람의 냄새가 물씬 나는 사보를 되었으면 합니다.

소재개발팀 주임연구원 조지녀

● *Univera way* 창간호에서 이달의 연구원 취재내용은 좋았고, 앞으로도 신선한 교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의 경조사 및 기타소식이 더욱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생활의 웃음이 넘치는 소식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생리활성 검증팀 주임연구원 김충섭

● *Univera Way!* I thought only large conglomerates had English newsletters in Korea. I am really proud that Namyang is now publishing an English newsletter. I enjoyed reading it very much. It was especially significant because I received the beautiful newsletter during the final moments of the Athletic Festival, where the entire staffs of all three affiliated companies were united as one.

Oasis, J.T Whitworth, Chief Operations Officer

● I would like *Univera Way* to be a company newsletter containing articles on ECONET member companies and the honest lives of its hardworking people. Instead of portraying an image that Namyang is a huge company, I hope that the newsletter puts a human face on things, focusing on the people working at the company.

Unigen East,  
Process Development / Ji-Nyeo Cho Researcher

● In the first issue of *Univera Way*, I enjoyed the article announcing the employee of the month. I would like to see it play a more active two-way communication role, however, and add happy and sad news about employees and other subjects in future issues. I hope the newsletter remains fresh, filled with bright ideas and laughter from our daily lives.

Unigen East,  
Bioassay & Discovery / Chung-Seop Kim Researcher

그 밖의 다른 분들

Our thoughts are with him

● 우리 모두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출판물이 발행되어 더 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설립자인 고(故) 이연호 회장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Jerry L. Pilgrim III 알로콧 부사장

● I am delighted with having one publication tying us all together as a family. Giving us a way of joining in the vision of our founder Yunho Lee all over the world.

Jerry L. Pilgrim III Vice President of Operations Aloecorp

● *Univera Way*~! 우리회사에서도 드디어 이런 사보가 나오다니...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만 의욕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던 영문사보를 우리 남양가족들도 가지게 되었군요.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구요. 무엇보다도 3개 가족사 임직원들이 하나가 되었던 체육대회의 마지막 순간에 이 예쁜 사보를 받게 되어 의미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남양알로에 마케팅팀 주임 노준호

● I am very impressed with *Univera Way* magazine. The article, "Celebrating the Birth of *Univera Way*" was simply outstanding. It will be my pleasure to contribute to this fine magazine. I look forward to reading articles from the American contingent. Keep up the fine work!

Namyang Aloe Inc, Jun-ho Nho Senior Staf Marketing Dept.



# Univera Way 특별 창간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 이번호 퀴즈

## 유니베라웨이 6행시 짓기

- 상 품 : 알로맥 덕용 증정
- 당첨자 : (주)유니젠 생명과학 연구소 영업팀  
신혜경 주임

유..... 유  
니..... 니젠은  
베..... 베스트 기업으로 발달을하기 위해  
라..... 라이브의 열정과  
웨..... 웨스트로 향한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이..... 이 세상 인류에게 자연의 혜택을  
전하는 기업입니다.

## 보너스퀴즈 - 이사람 누구일까요?

- ◆ 퀴즈정답 : 미국 유니베라 성한용 사장님  
(이번 퀴즈를 위해 특별히 성한용 사장님의 원고료를  
퀴즈 당첨자분들께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리바게뜨 상품권 받으실 당첨자
  - (주)남양 경영전략본부 손정주 주임
  - (주)남양알로에 고객상담실 신은미 대리
  - (주)남양알로에 경영지원팀 황혜정 주임
  - (주)남양알로에 마케팅팀 김정훈
- ※ 선발기준 : ECONET@univera.com에 접수한 순서
- ◆ 특별당첨자 : Eric Burge
  - Manager of Internet Development  
Oasis Wellness Network
  - 상품 : \$20 상당의 선물 증정

## 6월호 퀴즈 / 이번호 미스 스마일 주인공의 이름과 회사소속을 응모해 주세요!

- 응모기간 : 2004년 6월 5일 ~ 7월 15일까지 • 정답을 응모 하실분은 ECONET@univera.com로 보내주세요.

6.10 항쟁기념 이한열 열사를 추모 '아름다운 콘서트' 티켓 선착순 100명 1987년 6.10항쟁의 역사적 재조명과 고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아름다운 콘서트' 에 이병훈 사장은 콘서트 표 100매를 구입하여 임,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기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의 공연 수익금은 모두 이한열 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쓰인다.

- 콘서트 티켓 신청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사오니 (주)남양 경영전략본부 오경아 대리에게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신청 : ECONET@univera.com)

### ◆ 공연개요

- 일 시 : 2004년 6월 12일 (토) 오후 6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야외 노천극장
- 출연진 : 보아, DJ.DOC, 신혜철, 동물원, 안치환 등
- 주 최 : 6월 민주화 운동 기념 문화 사업회, 이한열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 ◆ 출연진

- 1970 ~ 1980년대 : 안치환, 정태춘, 박은옥, 노래를 찾는 사람들
- 1990년대 : 신혜철, 동물원
- 2000년대 : 보아, DJ DOC, 피터팬컴플렉스

Winners of special prizes in celebration of the first issue of *Univera Way*

## Quiz for June issue

### A six-line poem on Univera Way

- Prize : Aloemac - bulk packaging
  - Winner : Supervisor Hye-gyeong Shin, Sales Team, Unigen R&D Center
- With the passion found in a live concert,  
and the pioneering spirit of the West  
Unigen brings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to become the world's best.

### Bonus Quiz - Question; Who is this?

- ◆ Answer: Univera CEO H.Y. Sung  
(Mr. Sung donated the fee he received for his article to the winners of this quiz). Thank you!
- ◆ Winners of a Paris Baguette bakery gift certificate
  - Jeong-joo Sohn, Supervisor, Business Strategy BU, Namyang Company
  - Eun-mi Shin, Assistant Manager, Customer Call Center, Namyang Aloe
  - Hae-jeong Hwang, Supervisor, Management Support Team, Namyang Aloe
  - Jeong-hoon Kim, Marketing Team, Namyang Aloe
- ※ Selection criteria: in order submitted at ECONET@univera.com

### ◆ Special winner: Eric Burge

- Manager of Internet Development  
Oasis Wellness Network
- Prize: A gift worth \$20

### Quiz for June issue

What is the name of this month's Miss Smile and where does she work?

- Contest period: June 5 to July 15
- Please send answers to: ECONET@univera.com



*Be Better At Every Age*



OASIS